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소비자학 박사 학위논문

돈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 소득, 자산,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이 현 진

돈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
소득, 자산,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최 현 자

이 논문을 소비자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이 현 진

이현진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위 원 장 _____
부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국문초록

주요어 : 행복, 소득, 소비지출, 자산, 포화점,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
학 번 : 2010-31118

Shefrin & Thaler(1988)의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경제적 자원의 종류와 소비자 특성에 따라 소비자가 경험하는 효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돈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돈을 경제적 자원으로 정의하고,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자원의 종류와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경제적 자원을 소득, 자산(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 소비지출로 구분하고 각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소비자와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각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지점, 즉 포화점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 상대적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 소비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OLS 회귀분석, 독립변수의 2차항을 추가한 비선형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여 두 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 경제적 자원의 포화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chow 검정과 이원분산분석 등을 통해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OLS 회귀분석을 통해 각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 상대적 영향을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 금

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 소비지출은 행복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경제적 자원마다 포화점이 도출되었다. 2019년을 기준으로 경제적 자원의 포화점은 소득 약 1억4천만원(연소득), 금융자산 약 4억5천만원, 실물자산 약 30억원, 순자산 약 27억원, 소비지출 약 950만원(월지출)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포화점을 연도별 평균값 대비 비율로 나타내면 소득 3.2~4.2배, 소비지출 3.3~3.7배, 금융자산 8.4~16.8배, 실물자산 10.1~16.1배, 순자산 5.5~9.8배에 해당하였다.

또한 연령대별로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소득은 40대>50대>60대 이상>20-30대 순으로 영향력 차이가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20-30대에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났다. 실물자산과 순자산은 50대에서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주는 영향이 가장 높았고, 20-30대에서 가장 낮았다. 소비지출은 20-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낮았다. 전체적으로 20-30대가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났다.

소득, 자산, 소비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소득>금융자산>실물자산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신 소비지출을 투입할 경우 소비지출>금융자산>실물자산 순으로 나타났다. 유량 개념의 소득과 소비지출이 저량 개념의 금융자산, 실물자산에 비해 행복에 주는 상대적 영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0-30대는 소득>금융자산 순으로 나타나고, 실물자산은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 대신 소비지출을 투입할 경우 금융자산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40대는 소득>금융자산 순으로 나타나고, 소득 대신 소비지출을 투입할 경우 금융자산>소비지출 순으로 나타났다. 실물자산은 유의하지 않았다. 50대는 소득>금융자산>실물자산 순으로 나타나고, 소득 대신 소비지출을 투입할 경우 금융자산>소비지출>실물자산 순으로 행복에 영

향을 주었다. 60대 이상은 50대와 마찬가지로 소득>금융자산>실물자산, 소비지출을 투입할 경우 금융자산>소비지출>실물자산 순으로 나타났다. 50대부터 실물자산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 이들 연령대부터 실물 자산 축적이 행복에 주는 영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 소비지출에 대해 행복의 포화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도출된 포화점은 각 경제적 자원의 상위 1~2%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금액으로, 경제적 자원 수준이 매우 높은 일부 소비자를 제외하고는 자원의 증가가 행복을 증진시키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개인 차원의 돈과 행복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어, 소득 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경제적 자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득은 행복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지만, '버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바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현재의 욕구 충족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비 또한 행복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경제적 자원을 통해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행복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셋째, 행복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영향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는 연령대가 지니는 여러 특징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20-30대는 행복 수준이 높고,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낮으며, 행복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포화점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20-30대가 생애주기 상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욕구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가용한 경제적 자원은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들 연령대는 소비지출보다 미래에 대비하는 금융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Z세대, 에코세대 등 젊은 연령대가 소비 성향이 강하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가구주로 한정한 영향도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주택 보유는 전세대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이슈임을 반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0대, 50대는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 생애주기 상

이들 연령대는 소비지출을 통해 충족시켜야 하는 요구가 가장 큰 세대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50대는 실물자산이 절대적 영향과 상대적 영향이 높아지는 것이 40대와 차별된다. 이는 생애주기 상 은퇴가 임박하고, 일정 수준의 자산이 구축된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60대 이상은 필수적인 지출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고,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40대,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40대, 50대와 큰 차이가 없었고, 경제적 자원의 포화점도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는 소비자들이 이전에 형성된 생활 기준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60대 이상은, 욕구가 줄어드는 소극적인 고령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목 차

제 1 장 장 서 론 ····· 1
제 1 절 문제 제기 ····· 1
제 2 절 연구 목적 및 의의 ·····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 6
제 1절. 행복에 관한 이론적 논의 ····· 6
1. 행복의 정의 ····· 6
2. 행복의 측정 ····· 13
제 2절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 22
1. 돈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심리학의 이론적 논의 ····· 22
2. 돈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경제학의 이론적 논의 ····· 28
3. 포화점에 관한 논의 ····· 37
제 3절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자원 변수 ····· 41
1. 소득 ····· 43
2. 자산 ····· 50
3. 소비지출 ····· 57
4. 소결 ····· 63
제 4절 연령대가 경제적 자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 65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75
제 1절 연구 문제 ····· 78
제 2절 연구 방법 및 연구대상자의 특성 ····· 78
1. 분석자료 ····· 78
2. 변수의 구성 ····· 79

3. 분석 방법 ····· 86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96
5. 변수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 102

제 4 장 연구결과 ····· 104
제 1절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104
1.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104
2. 금융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110
3. 실물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114
4. 순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117
5. 소비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120
제 2절 연령대에 따른 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관계 분석 ··· 124
1. 연령대별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126
2. 연령대별 금융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133
3. 연령대별 실물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140
4. 연령대별 순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147
5. 연령대별 소비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153
제 3절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분석 159
제 4절 소결 ····· 172

제 5 장 요약 및 결론 ····· 176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 176
제 2절 결론 ····· 179
제 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85

참고문헌 ····· 188
Abstract ····· 208

표 목 차

[표 2-1] 주관적 안녕감의 구성요소 ····· 8
[표 2-2]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구성요소 ····· 10
[표 2-3] 행복의 개념구성 ····· 11
[표 2-4] 감정적 요인의 주요 측정 지표 ····· 15
[표 2-5] 인지적 요인의 주요 측정 지표 ····· 17
[표 2-6] Ryff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 ····· 19
[표 2-7] 돈과 행복에 관한 이론적 배경 ····· 37
[표 2-8] 개인 단위 소득과 행복의 포화점에 관한 선행연구 ····· 49
[표 2-9] 재무적 웰빙의 4가지 요소 ····· 51
[표 2-10] 자산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 ····· 56
[표 2-11] 소비지출과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 ····· 61
[표 2-12] 가구생애주기의 구분 기준 및 근거 ····· 70
[표 2-13] 생애주기와 경제적 자원 관련 선행연구 ····· 59
[표 2-14] 세대와 가치관, 재무행동 관련 선행연구 ····· 74
[표 3-1] 한국복지패널 자료 ····· 79
[표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 85
[표 3-3]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방식과 사용 자료 ····· 86
[표 3-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97
[표 3-5]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 98
[표 3-6] 한국복지패널(A)과 가계금융복지조사(B)의 분위별 경계값 100
[표 3-7] 조사대상자의 행복 수준 ····· 101
[표 3-8]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 103
[표 4-1] 소득과 행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05
[표 4-2] 소득에 대한 연도별 포화점 탐지 결과 ····· 107
[표 4-3] 금융자산과 행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11
[표 4-4] 금융자산의 연도별 포화점 탐지 결과 ····· 112

[표 4-5] 실물자산과 행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15
[표 4-6] 실물자산의 포화점 탐지 결과 ····· 116
[표 4-7] 순자산과 행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18
[표 4-8] 순자산의 포화점 탐지 결과 ····· 119
[표 4-9] 소비지출과 행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21
[표 4-10] 소비지출의 연도별 포화점 탐지 결과 ····· 122
[표 4-11] 연도별 표준생계비 ····· 123
[표 4-12] 연령대별 소비자 특성 ····· 124
[표 4-13] 연령대별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27
[표 4-14] 연령대별 소득 회귀계수에 대한 Chow 검정 결과 ····· 128
[표 4-15] 연령대와 소득분위에 대한 행복변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129
[표 4-16] 연령대별 소득에 대한 행복의 포화점 절대값 및 평균 대비 비율 ····· 130
[표 4-17] 금융자산에 대한 연령대별 회귀분석 결과 ····· 134
[표 4-18] 연령대별 금융자산 회귀계수에 대한 Chow 검정 결과 135
[표 4-19] 연령대와 금융자산 분위에 대한 행복변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 135
[표 4-20] 연령대별 행복의 금융자산 포화점 절대값과 평균 대비 비율 ····· 137
[표 4-21] 실물자산에 대한 연령대별 회귀분석 결과 ····· 141
[표 4-22] 연령대별 실물자산 회귀계수에 대한 Chow 검정 결과142
[표 4-23] 연령대와 실물자산 분위에 대한 행복변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 142
[표 4-24] 연령대별 행복의 실물자산 포화점 절대값과 평균 대비 비율 ····· 144
[표 4-25] 순자산에 대한 연령대별 회귀분석 결과 ····· 148
[표 4-26] 연령대별 순자산 회귀계수에 대한 Chow 검정 결과 · 149

[표 4-27] 연령대와 순자산 분위에 대한 행복변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 149
[표 4-28] 연령대별 행복의 순자산 포화점의 절대값과 평균 대비비율 ····· 151
[표 4-29] 연령대별 소비지출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54
[표 4-30] 연령대별 소비지출 회귀계수에 대한 Chow 검정 결과 155
[표 4-31] 연령대와 소비지출 분위에 대한 행복변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 155
[표 4-32] 연령대별 소비지출의 행복 포화점 절대값과 평균 대비 비율 ····· 157
[표 4-33] 경제적 자원과 행복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 164
[표 4-34] 경제적 자원과 행복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2) ·· 166
[표 4-35] 경제적 자원과 행복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3) ·· 168
[표 4-36] 경제적 자원과 행복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4) ·· 170
[표 4-37]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172
[표 4-38] 연령대별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173
[표 4-39]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 174

그림 목차

[그림 2-1]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의 소득계정에 따른 효용 ····· 31
[그림 2-2] 포화점의 위치 ····· 38
[그림 2-3] 소득의 포화점 논쟁에 관한 양측의 입장 ····· 40
[그림 2-4] 소득 증가에 따른 행복 4요소의 변화 ····· 47
[그림 3-1] 연구모형 ····· 77
[그림 3-2] 소득(소비)와 행복의 관계 ····· 89
[그림 3-3] 순자산과 행복의 관계 (스플라인 3차 회귀분석) ····· 93
[그림 3-4] 순자산과 행복의 관계 (2차항 회귀분석) ····· 94
[그림 3-5] 행복수준의 분포 ····· 101
[그림 4-1] 연령대와 소득의 행복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 129
[그림 4-2] 연령대에 따른 행복의 소득 포화점 ····· 131
[그림 4-3] 연령대와 금융자산 분위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결과 136
[그림 4-4] 연령대에 따른 행복의 금융자산 포화점 ····· 138
[그림 4-5] 연령대와 실물자산 분위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결과 143
[그림 4-6] 연령대별 실물자산 포화점 추이 ····· 144
[그림 4-7] 연령대와 순자산 분위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결과 ··· 150
[그림 4-8] 연령대별 순자산 포화점 추이 ····· 151
[그림 4-9] 연령대와 소비지출 분위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결과 156
[그림 4-10] 연령대에 따른 행복의 소비지출 포화점 ····· 157

제 1 장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행복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경제적 성장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희생하기보다 현재의 행복에 충실하자는 'YOLO'(You only live once), 주택 구입, 취업, 결혼 등 크지만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을 좇기보다, 일상의 작지만 성취하기 쉬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등 행복 추구가 일반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경제 성장이 국민의 행복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삶의 다양한 영역과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감정 등을 포함한 '삶의 질(quality of life)' 제고,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등으로 정책 목표가 전환되고 있다.

한편으로 돈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싶어 한다. 미국 10대의 75%가 대학에 가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고 했는데(Roberts & Jones(2001), 우리나라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2018년 초 가장 희망하는 새해 소망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돈·재화 등 물질적 여유가 건강, 시간적 여유, 정신적 여유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25.8%), 이러한 결과는 10대에서 60대까지 전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파이낸셜 뉴스, 2018.1). 2021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위 이직(36%)에 이어, 연봉 인상(16%), 재테크(11.2%) 등 돈과 관련된 소망이 2, 3위를 차지하였다(뉴스토마토, 2021.1).

행복은 인류가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

회에서 돈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Dunn et al.(2011)은 돈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우려와 위험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하며, 친구, 가족과 보낼 여유시간을 갖게 하고, 일상생활을 조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바로 행복의 원천이 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돈의 역할은 물질적 중요성이 더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 심화된다. Ng & Diener(2014)의 연구에서 소득과 같은 물질적 요인은 사회적 지지, 존중, 자율성 같은 비물질적 요인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 국가보다 고소득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즉 다양한 재화, 더 많은 선택권, 안전한 보금자리, 건강, 자유로운 시간 등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과 관련된 주요 요소들을 얻기 위해 돈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인가'와 같은 의문도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행복에 대한 포화점 존재 여부가 주요한 연구 주제로 부상하였다. 대표적 연구자가 Easterlin(1974, 1995 등)으로, 그는 한 국가 내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소득의 증가가 행복을 증진시키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이 지나면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포화점 논쟁을 비롯하여 돈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간 소득(GDP)을 비교하거나, 한 국가 내에서 장기간에 걸친 소득 변화에 따른 행복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계열적 분석을 위주로 한 것으로, 개인 차원의 논의와는 거리가 있다. 개인 차원에서 돈과 행복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시적인 담론이 필요하다. 돈과 행복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소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개인의 돈과 관련된 영역을 다루는 개인재무(personal finance)의 입장에서 볼 때 돈은 개인과 가계의 욕구를 채워주는 경제적 자원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경제적 자원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도 포함된다. 또한 경제적 자원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욕구 충족의 결과물인 소비지출의 측면으로 돈을 바라볼 수도 있다. 즉 개인 차원에서 돈은 소득 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각 자원이 지닌 성격 또한 상이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Shefrin & Thaler(1988)는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을 통해 경제적 자원의 종류에 따라 소비자가 경험하는 효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경제적 자원의 종류에 따라 소비자의 심리에 상이한 계정이 형성되고, 각 심리계정마다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효용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은 '버는 돈', 자산은 '모으는 돈', 소비지출은 '쓰는 돈'으로 상이한 계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애주기 가설은 경제적 자원에 대해 소비자가 경험하는 효용이 소비자가 지닌 특성, 즉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돈과 행복의 관계에 적용하면 경제적 자원의 종류에 따라 행복에 주는 영향이 다를 것이며,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돈을 인간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제적 자원으로 보고, 소득, 자산, 소비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적 자원의 행복에 대한 포화점 모색을 시도함으로써, 행복에서 돈이 미치는 영향에 한계점이 존재하는지, 있다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탐색한다. 또한 연령대가 소비자의 생애주기적 특성과 세대별 특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연령대에 따라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행복에 있어 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목적 및 의의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과 관련된 돈 관련 변수들을 규명하고 이들 변수들과 행복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그동안 돈과 행복에 관한 연구들은, 국가적·거시적 차원에서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담론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돈은 경제적 자원, 즉 소득, 자산, 소비지출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복의 정의와 개념, 돈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들을 고찰하고,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특성들을 살펴본다.

이렇게 파악한 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두 변수의 전반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각 경제적 자원의 포화점 존재 유무를 함께 파악해 보고자 한다. 경제학의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나 행복과 소득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한계체감적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즉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행복의 증가가 둔화되거나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이외에 소비지출, 자산 등 다양한 자원의 포화점 탐지를 시도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있어 돈이 행복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또한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자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생애주기와 세대별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연령대에 따른 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본다. 각 연령대별로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행복에 대한 포화점을 탐색해 봄으로써, 소비자 특성에 따른 돈과 행복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행복에 있어 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자 한다. 아울러 다

양한 성격의 경제적 자원이 종합적으로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돈'이라는 개념 안에 혼재된 다양한 경제적 자원이 종합적으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소득 이외에 다양한 차원에서 돈과 행복의 관계를 조망함으로써, 돈이 소비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다각화하고 풍성하게 하고자 한다. 행복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우리나라 소비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 탐구는 미흡하였다.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국가적·거시적 차원에서 소득 증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고,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분석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 이러한 요인들은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개인 및 가계의 돈과 관련된 영역을 다루는 개인재무(personal finance)에서 가계 자원관리의 최종 결과로서 행복이 아닌 재무적 만족감을 다루어 온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재무 관리나 사회정책의 최종 변수로 행복의 개념이 보다 다양하고 정교해지기를 바라며, 행복에 있어서 돈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바란다.

또한 소득 뿐 아니라 자산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주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개별 소비자의 입장에서 모호했던 돈과 행복을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소득, 자산, 소비지출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인의 행복 증진에 더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인지, 이들 변수들이 행복 증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실용적인 도움과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행복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행복의 정의

행복의 사전적 정의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또는 '주관적으로 만족한 심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박종현, 2016). 행복의 감정을 느끼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 사회관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신체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하고, 소속 집단의 가치 준거기준,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의해서도 달라지는 등 개인차가 크다(윤강재·김계연, 2010).

이 같은 복합적인 개념적 특성과 측정의 어려움은 행복이 과학적 연구 대상이 되는데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그동안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경제적 '안녕'(wellbeing)이나 '복지(welfare)가 널리 통용되어 온 반면, 행복이라는 용어는 주로 철학이나 심리학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개인이 주관적 삶의 질이 효용을 측정하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행복의 개념이 경제·사회적 영역으로 학문적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행복에 대한 논의는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에 대한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행복을 주관적인 만족이나 쾌락으로 볼 것인지(hedonism: 쾌락중심 세계관), 개인이 가진 가치나 역량의 추구로 볼 것인지(eudaimonism: 자기실현적 세계관)의 두 가지 입장이 맞서서 병존해 왔다(Deci & Ryan, 2001). 이 두 가지 시각이 현대 사회과학 분야에까지 이어지면서 행복 연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행복의 개념은 쾌락주의(hedonism)에 근간을 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유데모니즘(eudaimonism)에 근간을 둔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1)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은 그리스 철학의 쾌락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쾌락주의는 행복은 쾌락으로부터 기인하며, 따라서 좋은 삶이란 육체적·정신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얻는 삶이라고 본다. 이 주장에 따르면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복이라 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 쾌락을 핵심 개념으로 보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개념적으로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Diener, 1984).

주관적 안녕감은 <표 2-1>과 같이 행복을 정서적 요인, 삶의 만족감, 다양한 영역에 대한 부문별 만족감 등 3가지로 구분한다(Diener, 1999).

<표 2-1> 주관적 안녕감의 구성요소

정서적 요인		인지적 요인	부문별 평가
긍정적	부정적		
즐거움	슬픔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자기
만족감	우울감	과거 삶에 대한 만족도	가족
행복감	불안감	미래 삶에 대한 낙관도	건강
자존감	분노감	삶의 변화 필요성	직업
애정감	질투감	자신의 삶에 대한	여가
고양감	부담감	중요한 타인의 견해	재정
환희감	죄책감/수치감		소속집단

출처: 권석만(2010)

정서적 요인은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말하며, 행복감, 즐거움, 환희감과 같은 긍정 정서를 자주 강하게 경험하는 동시에 우울감, 슬픔, 질투감과 같은 부정 정서를 덜 경험할수록 주관적 웰빙의 수준이 높다고 본다. 인지적 평가는 개인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삶의 상태를 평가하는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을 의미하며 삶의 만족도라고 지칭된다. 부문별 만족감은 가족, 건강, 직업, 여가, 재정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권석만, 2010).

(2)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행복을 단순히 쾌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얻어지는 성장과 발전, 그리고 이로 인한 심리적 만족감을 의미한다(Ryff, 1995; Ryff & Singer, 2000). 이 개념은 행복이 쾌락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데모니즘(Eudamonism) 철학에서 비롯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에 바탕을 둔 행복은 인간을 쾌락의 노예로 만드는 세속적이고 저차원적 행복이라고 비판하면서, 행복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yan & Deci, 2001). 즉 행복을 단순히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경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추구, 개인적 성장 등과 같이 반드시 긍정적인 정서가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험을 통한 잠재력 실현 추구로 보는 것이다(Ryff & Keyes 1995; Ryff & Singer 2000; 김미애 2016 재인용). Ryff(1989, 1995)는 여러 심리학자들(Maslow, Rogers, Jung, Allport, Erikson 등)의 주장을 통합하여 심리적 안녕감의 요소를 환경에 대한 통제력,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율성, 개인적 성장, 인생의 목적, 자기수용 등의 6가지로 제시하였다. 각 요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표 2-2>와 같다.

90년대 들어 Seligman(Seligman, 2002; (positive psychology) 분야가 확립되면서 심리학에서 유데모니즘적 시각에서 행복을 보는 경향에 뚜렷해졌다. Seligman(2002)은 행복의 조건을 즐거운 삶(pleasant life). 적극적인 삶(engaged life),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으로 규정하였다. 즐거운 삶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다. 적극적인 삶은 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여 자신의 성격적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기실현을 이루어나가는 삶이다. 의미 있는 삶은 사람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부여하는 것이다. 삶의 의미는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위하여 공헌하고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데 가족, 직장, 지역사회, 국가 또는 신을 위해 봉사하고 공헌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낄 수 있을 때 가능하다(김미애, 2016).

<표 2-2>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구성요소

구성 요인	세부 설명
환경에 대한 통제력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처리하는 능력과 이에 대한 통제감. 자신의 환경적 조건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함. 자신의 가치나 욕구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고 창출해 냄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타인과 따뜻하고 신뢰 있는 관계 형성.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지님. 공감적이고 애정어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인간관계의 상호교환적 속성을 잘 이해함.
자율성	독립적이며 독자적인 결정능력. 자신을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능력. 내면적 기준에 의해 행동을 결정함. 외부적 기준보다 자신의 개인적 기준에 의해 자신을 평가함.
개인적 성장	자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자신이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이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임.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함.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과 방향감을 지님. 현재와 과거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낌.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신념체계를 지니고 있음. 삶에 대한 일관성 있는 목적과 목표를 지님.
자기수용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모두 포함한 자신의 다양한 특성을 인정하고 수용함. 과거의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느낌.

출처: 권석만(2010)

(3) 소결

행복을 정의하는 두 가지 개념, 즉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면 행복의 개념은 다음의 <표 2-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2-3> 행복의 개념구성

구분	감정적 요인		인지적 요인	심리적 요인
하위 요인	정서적 행복 (affect)		삶의 만족도 (life evaluation)	자기실현 (eudaimonia)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삶의 의미 및 목적에 대한 가치 평가
요소	즐거움 만족감 행복감 자존감 애정감 고양감 환희감	슬픔 우울감 불안감 분노감 질투감 부담감 죄책감	과거·현재·미래 삶에 대한 만족도 영역별 만족도	환경의 통제 타인과의 긍정적 인간관계 자율성 개인적 성장 인생의 목적 자기수용
구분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행복에는 개인의 감정,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감정적 요인과 자신의 전반적인 삶과 특정 부문에 대해 평가하는 인지적 요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의미하는 심리적 요인이 포함된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행복의 기원과 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 쾌락주의적 세계관과 자기실현적 세계관적 입장이 맞서오기는 했지만, 현대에 와서 행복은 위 세 가지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OECD도 행복을 정의하는 데 있어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OECD(2013) 행복을 정

의하는데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하위 개념으로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 감정(affect), 유다모니아(good psychological functioning: 긍정적인 심리적 작용)의 세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OECD가 정의한 행복은 다음과 같다: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행하는 모든 다양한 평가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보이는 감정적 반응을 포함하는 좋은 정신 상태 (Good mental states, including all of the various evaluations, positive and negative, that people make of their lives and the affective reactions of people to their experiences)”(한글 번역은 김미곤 외 2017 인용).

2. 행복의 측정

(1) 행복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그동안 행복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이다. 행복은 주관적 감정의 영역이다 보니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에 대한 측정이다 보니 타당도(validity)와 신뢰도(reliability)를 우려하는 지적들도 있었다.

그러나 행복이 경제·사회적 영역으로 학문적 범위를 넓혀가면서,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삶의 만족에 관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전반적인 질에 관한 최상의 판단자는 당사자 자신이므로, 효용이나 안녕감에 관한 당사자들의 견해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이 측정될 수 있다고 본다(박종현, 2016).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과 좋은 삶에 관한 고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삶에 대한 최상의 판단자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므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질문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5).

이러한 접근범에 기반하여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에 근거한 척도들을 통해 행복을 측적하고자 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결과들이 축적됨에 따라 비교적 신뢰할만한 견실한 지표로 인정을 받고 있다. 신뢰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데, 행복의 측정에 대해 사용하는 말, 질문의 순서, 조사원이 누구인지와 같은 상황 요인들이 응답자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조사를 하고 나서 일정 시간 내에 다시 재조사(test-retest)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행복에 대한 측정이 대체

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OECD, 2013).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즉 행복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OECD(2013)는 지난 수십년 간의 연구결과를 통해 행복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결과들이 축적되어 왔으며, 이는 행복에 대한 측정이 타당성을 입증함을 시사한다고 평가하였다. 여러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이 웃고, 자살률이 낮으며, 뇌파나 심박동수가 부정적 기분을 설명하며, 서로 다른 척도로 측정된 행복이 상관관계가 높은 등 타당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어 왔다(Frey 2002).

본 절에서는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종합한 행복의 세 가지 개념인 감정적 요인, 인지적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행복에 대한 측정 방식들을 살펴보았다.

(2) 감정적 요인

당사자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직접 물어봄으로써 행복을 측정하는 대표적 예가 앞 절에서 소개한 주관적 안녕 개념이다. 주관적 안녕감은 행복을 인지적 요인과 감정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행복 측정을 시도해 왔다. 이 가운데 감정적 요인은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이루어진다. 질문지를 통해 감정적 요인을 측정하는 대표적 방법으로 PANAS(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 Watson, Clark & Tellegen, 1988), ITAS(Intensity and Time Affect Scale; Diener, Smith & Fujita, 1995), SPANE(Scale of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 Diener et al, 2009) 등이 있다. 서은국·구재선(2011)은 감정적 요인을 측정하는 서양의 척도들이 높은 각성 수준의 서양적 정서 어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한 지표 개발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단충형 주관적 웰빙 척도에서

긍정정서는 ‘즐거운’, ‘행복한’, ‘편안한’으로 구성되고, 부정정서는 ‘부정적인’, ‘짜증나는’, ‘무기력한’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법을 활용한 감정적 요인의 주요 측정 지표들은 <표 2-4>와 같다.

<표 2-4> 감정적 요인의 주요 측정 지표

구 분	영역	지 표
PANAS Watson et al. (1995)	긍 정 정서	열성적인, 흥분된, 강한, 흥미진진한, 자랑스러운, 원기왕성한, 활기찬
	부 정 정서	겁에 질린, 두려운, 적대적인, 신경질적인, 과민한, 조바심나는, 괴로운, 마음이 상한, 죄책감 드는, 부끄러운
COMOSWB 서은국·구재선 (2011)	긍 정 정서	즐거운, 행복한, 편안한
	부 정 정서	부정적인, 짜증나는, 무기력한

감정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질문지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경험에 기초한 표본 추출법(Experience sampling method, Csikzentmihalyi & Hunter, 2003)은 대표성 있는 개인들을 뽑아 무선호출기나 노트북을 주고 임의의 시점에 긍정적 감성이나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질문들에 즉각적으로 답하도록 요구하여, 개인들의 실제 경험에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Kahneman et al.,(2004) 등이 시도한 일상재구성법(Day reconstruction method)은 한 사람이 어느 날의 경험을 서술한 자료를 그 다음날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수집하는 것. 응답자들에게 일련의 체계적인 질문지를 채우도록 하여 그 전날을 재구성하게 하고, 사건들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평가하게 하였다. Kahneman & Krueger(2004)는 U-지표(U-index)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U는 ‘불쾌’를 나타내며, 어떤 사람이 하루 중에 불쾌

한 상태로 지낸 시간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같은 방법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감정적인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의가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대규모 연구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Frey 2008).

(3) 인지적 요인

인지적 요인은 감정적 요인과 함께 주관적 안녕감에 속하는 행복 개념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행복을 측정에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 척도는 SWLS(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으로, 조사대상자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를 직접 묻는 방식으로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 서은국·구재선(2011)은 SWLS를 비롯한 기존의 주관적 안녕감의 척도가 행복한 삶의 중요 구성요소로 꼽히는 대인관계, 소속집단 등에 대한 만족을 구분하여 측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 같은 부문별 만족도를 추가한 행복 척도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인지적 요인으로 행복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식은 캔트릴 사다리(Cantril, 1965) 기법을 이용해 전반적인 삶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복사다리'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 GWP)이 전세계 140여개 나라를 대상으로 행복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UN의 지속발전 해법 네트워크(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에서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도 주관적 행복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 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사다리를 포함해 행복의 인지적 요인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들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인지적 요인의 주요 측정 지표

구 분	지 표
SWLS Diener et al. (1985)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COMOSWB 서은국·구재선 (2011)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나는 내 삶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만족한다.
행복사다리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 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SWLS는 조명한·차경호(1998) 驛 재인용

인지적 요인은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행복 측정 방식이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전반적 평가는 지속적인 영역으로, 행복을 대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보았기 때문이다(Veenhoven 2004). 또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됨에 따라 비교적 신뢰할만한 견실한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3)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은 심리적 안녕감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심리적 안녕감은 행복을 단순한 만족감보다 행복을 개인이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는 성장과 발전 과정, 이로 인한 심리적 만족감으로 보고 있기에, 주관적 안녕감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심리적 안녕감의 측정 도구로는 PWBS(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 Ryff, 1989)가 주로 사용되었다. PWBS는 6개의 하위 요인을 포함하는 총 54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6개 하위요인은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환경에 대한 통제력,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율성, 개인적 성장, 인생의 목적, 자기수용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문항 구성은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Ryff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

구분	문항내용
환경에 대 한 통제력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힘겹다.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 내가 해야하는 일들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나는 일반적으로 개인문제나 돈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 나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해야 할 모든 일을 제 때에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 생활을 만족스럽게 꾸려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내 가정과 생활방식을 내 맘에 들도록 꾸려 올 수 있었다.
대인 관계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은 많지 않다.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가까운 친구가 별로 없어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고 신뢰깊은 관계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 남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내 친구들은 믿을 수 있고, 그들도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친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자율성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한다. 친구와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나의 결정을 쉽게 바꾸는 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다. 나는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편이다. 내 의견이 비록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경우에도, 나는 내 의견이 옳다고 확신한다. 내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해 재 자신을 평가하지, 남들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다.

인생의 목적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인생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과거에는 나 자신이 혼자 목표를 세우곤 했으나 돌이켜보면 그것이 시간 낭비였던 것 같다. 가끔 매일 하는 일들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미래의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즐긴다. 내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해서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개인적 성장	이제껏 살아온 삶의 방식을 뒤늦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서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내 인생을 크게 개선하거나 바꾸겠다는 생각은 오래 전에 버렸다. 나 자신과 인생살이에 자극을 줄 만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생활방식을 바꿔야 할 새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현재의 내 활동반경(생활영역)을 넓힐 생각이 없다.
자기수용	살아 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같다.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과거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일이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면에서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 실망을 느낀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좋았던 때도 있었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 내 자신을 친구나 친지들과 비교할 때면 내 자신에 대해 흐뭇하게 느껴진다.

출처: Ryff(1989), 김명소·김혜원·차경호(2001) 재인용

(4) 소결

행복은 인간의 주관적 감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감정적 요인, 인지적 요인,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행복은 측정 방식과 개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행복을 설명하는 감정적 요인, 인지적 요인, 심리적 요인은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었다(Diener, Helliwell & Kahneman, 2010). Kahneman & Kruger(2006)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인지적 요인)와 정서적 행복(감정적 요인)은 0.38~0.62 사이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기실현 등으로 측정한 심리적 요인도 다른 두 개념과도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larke & Senik(2011)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와 자기실현은 0.25~0.29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Diener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삶에 대한 평가 간에 0.62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Keyer et al.(2002)는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심리적 안녕 개념에 기초한 행복지수를 주관적 안녕 개념에 기초한 삶의 만족도 지수와 비교하여 둘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행복의 두 가지 개념 중에서는 자기실현을 의미하는 심리적 안녕감보다 주로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를 묻는 주관적 안녕감을 변수로 사용한 경우가 많다(OECD, 2013). 또한 주관적 안녕감의 두 가지 요인 가운데에서는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삶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는 지속적인 영역으로 행복을 대표적으로 측정할 수 잇는 지표로 보기 때문이다(Veenhoven, 2004). 본 연구에서도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보여주는 요인으로 인지적 요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행복사다리'를 행복을 대표하는 변수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 2절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돈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심리학의 이론적 논의

(1) 욕구충족이론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인간은 누구나 결핍되어 충족되기 바라는 욕구(needs)를 지니고 있으며, 이 욕구가 충족될 때(needs-gratification) 행복감이 상승한다고 보는 것이다.

욕구는 인간을 움직이는 심리적 동인으로, 유기체가 내부적으로 결핍이나 과잉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게 되고, 결핍이나 과잉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만족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다(장항채, 2017).

욕구를 어떻게 정의하고 발생 동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인간의 욕구를 체계화한 대표적 이론이 Maslow(1943)의 욕구위계론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은 공통된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 욕구는 계층적이며 일반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는 욕구일수록 강도와 우선순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Maslow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① 생리적 욕구, ② 안전의 욕구, ③ 사회적 욕구, ④ 자기존중 욕구 ⑤ 자기실현 욕구 순으로 서열체계를 갖고 있으며,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의 욕구로 발전된다고 보았다.

Murray(1938)는 인간행동에 기본이 되는 욕구를 12가지 장기발생적(생리학적) 욕구와 28가지 심리발생적(비 생리적)욕구로 구분하였다. 장기발생적 욕구는 일차적 욕구로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보편적인

생물학적 욕구를 나타낸다. 심리발생적 욕구는 이차적 욕구로서 장기발생적 욕구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다. 즉,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려는 욕구, 타인을 인정하고 또한 인정받으려는 욕구 등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와 같은 욕구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행동변수라고 보았다.

Maslow의 욕구이론을 발전시킨 Alderfer(1969)의 ERG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①생존 욕구, ②관계 욕구, ③성장 욕구 등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생존욕구는 Maslow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에 비교되고, 관계욕구는 Maslow의 사회적 욕구와 자기존중 욕구와 관련되고, 성장욕구는 Maslow의 자아실현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 낮은 수준의 욕구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클수록 상위욕구를 충족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높은 수준의 욕구가 덜 만족될수록 하위 욕구를 충족하려는 욕구가 커진다(장항채, 2017).

McClelland(1961)는 인간에 동기부여할 수 있는 3가지 욕구로 ①성취욕구, ②관계 욕구, ③권력 욕구를 제시하며, 인간의 모든 욕구는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며 욕구들의 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며, 그 결과 개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달라지고 그 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도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김민정, 2007 재인용). Maslow가 모든 사람의 욕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며 하위욕구부터 계층을 이루어 발생한다고 본 것과 달리, McClelland는 욕구는 일정한 계층으로 순서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인간의 욕구는 다차원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크게는 생물학적이며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러한 필요의 차원을 넘어선 보다 고차원적인 인간의 희망, 바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민정, 2007).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바람은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근본적인 동인이 되며, 이러한 욕구

의 충족을 통해 만족감과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욕구충족이론에 따르자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질수록 행복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돈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며, 따라서 돈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욕구이론에 따라 돈(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 대표적인 학자가 Veenhoven(1991)이다. Veenhoven(1991)은 인간의 욕구는 음식, 안전, 인지적 통제, 사회적 연대 등 사람이 기능하기 위해 생리적·심리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내생적으로 타고난 것이며, 본능적이며, 무의식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소득의 증가는 그 영향이 체감적이긴 하지만 주변환경 조건을 개선하고, 국민의 행복 증가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욕구충족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의 조건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돈(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여러 실증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소득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 현상들이 발견되었다(Easterlin, 2001 등). 후술할 열망수준이론 등에서는 인간이 자신이 지닌 기준이나 타인과 비교하는 습성과 상황에 대한 적응으로 행복수준이 객관적 환경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Veenhoven(1991)은 욕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거나 개인의 적응수준에 따라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타고난 본성, 생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Maslow의 욕구체계의 입장에서 볼 때 하위의 욕구일수록 소득이 많으면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상위의 욕구로 갈수록 소득과 욕구 충족과의 연관성이 엷어진다(이현송, 2001). Veenhoven(1991)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돈과 행복 간에는 비례적 관계보다는 그 영향이 체감하는 곡선적 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의 증가가 인간 욕구의 충족에 기여해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고수 중이다.

(2) 열망수준이론

욕구이론에 따르면 욕구를 충족시키는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질수록 행복이 증가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소득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행복감이 비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예컨대 객관적인 재무상황이 뒷받침되지 못해도 주관적으로 소득이 적정하다고 느끼기도 하고(Streib & Schneider 1971), 연간소득이 최저인 사람들이 고소득자만큼 만족을 표할 때도 있고 최고 소득군에 있으면서 소득만족감은 최저인 경우가 나타난 것이다(Burchardt 2005; Easterlin 2001; Layard 2005).

이러한 현상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들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판단을 하기보다 자신의 환경, 과거,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것을 발견해 내는 성향에 주목한다. 이들은 행복이 1) 개인이 주관적으로 설정한 기준과 자신의 현 상태와의 비교에 의해 결정되며, 2) 기준이 충족되면 그 상태에 익숙해져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적응(adaptation)이 일어나고, 3) 개인이 비교로 삼는 기준은 자의적인 것으로, 패션, 유행 등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좋은 삶의 기준에 맞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Veenhoven, 1991).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비교 대상을 찾으며, 개인이 비교 대상으로 삼는 기준에는 타인, 자신의 과거, 다가올 혹은 바라는 미래, 여러 가지 기준 등이 있다.

열망수준이론(aspiration level theory)은 이처럼 행복에 있어 비교와 이를 통한 차이에 대한 인식과 같은 인지적 요인을 강조한다. 열망수준이론은 개인이 지닌 열망(aspiration)을 얼마나 성취(achievement)할 수 있는지로 행복을 설명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것이 Campbell et al.(1976)이 제안한 만족감 모델이다. Campbell 등이 제안한 만족감에 관한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만족감은 개인의 열망과 그 열망이 성취된 정도의 차

이에 대한 인식에 의해 결정되며, 열망과 성취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과거나 타인과의 비교 통해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면서 형성된다.

Campbell et al.의 모델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비교 기준으로 열망(aspir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열망은 개인이 성취하기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욕구 이상의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Campbell(1998)은 인간의 욕구(wants)[1]를 필수품(necessity)의 의미가 아니라,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즐거움과 쾌락, 사랑 등을 경험하기를 희망하는 상태이며, 자연발생적이기보다는 마케팅 전략 등과 같은 외부의 요소들로부터 자극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Easterlin(2001)은 이 열망의 개념을 이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막 성인이 된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슷한 물질적 열망(material aspiration)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물질적 열망을 더 많이 충족할수 있으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하는데 물질적 열망이 동일하다면 효용함수에 따라 한 개인의 효용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이에 맞춰 물질적 열망 수준도 함께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득 증가만큼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 즉 어떤 욕망이 충족되면 그러한 상태에 금방 익숙

1) 앞장의 욕구이론에서 사용한 욕구는 'needs'로 표현되며, Campbell이 사용한 'wants'와 대비된다. 일반적으로 'wants'를 원하는 것, 욕구로 번역할 때, 'needs'는 '필요' '요구' 등 내면적이며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김기옥·김민정(2008)은 wants와 needs 모두 인간이 원하고 결핍되었을 때 보충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needs는 개인의 내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 wants는 개인과 사회에서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Campbell을 비롯하여 'wants'를 사용한 연구자들은 소비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이 사회의 영향 등으로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욕구이론을 지지하는 Veenhoven(1991)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욕구가 유전적으로 체화되어 내생적이며,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의미에서 need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해져서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문진영, 2012 재인용).

한편 Michalos(1979)는 Campbell 등(1976)이 제안한 모델에 대해, 건강, 재무적 안정, 가정생활, 주거, 일자리, 여가시간, 교육, 치안, 주변환경, 사교능력, 자존감 등 12개 부문의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행복감을 대상으로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Campbell의 모델은 전반적인 삶과 12개 부문의 영역별 만족도에서 모두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Michalos(1985)는 만족은 현재 자신의 상황과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과 비교를 통해 인식하는 차이에 의해 형성된다는 Multiple Discrepencies Theory(MDT)를 제안하였다. Michalos는 개인이 비교 기준으로 삼는 대상은 1) 자신이 원하는 것, 2) 다른 사람이 가진 것, 3) 과거 자신의 전성기 시절, 4) 3년전 자신이 기대했던 것, 5) 5년 후 자신이 기대하는 것, 6) 자신이 가질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7)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등 7가지로 구분하였다. Michalos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1980, 1982, 1983), 여러 가지 비교 대상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현재 상황의 비교가 만족감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 돈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경제학의 이론적 논의

(1) 소비자 선택이론

경제학에서는 소비를 통해 발생하는 물질적 만족감을 행복으로 간주하고 이를 효용(utilit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은 그리스 철학의 쾌락주의(hedonism)를 기반으로 한 공리주의[2]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효용(utility)은 공리주의의 행복 개념과 동일시되어 왔으며, '효용 극대화'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한 벤담(Benhtam)의 공리주의의적 규범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구교준 외, 2015).

소비자선택이론은 소비자를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할 때 이들은 자신의 총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소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얻는 총효용은 재화의 소비량에 비례하며 소비량(C)이 증가함에 따라 총효용(U)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용가능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소비해야 하는 재화와 용역의 수는 다양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특정 묶음의 재화와 용역을 선택하여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 같은 가정 하에, 소비자의 선택은 각 재화마다 화폐 1단위당 얻게 되는 효용의 변화량, 즉 한계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총효용이 증가하지만, 상품이나 서비스 1단위 소비함으로서 얻는 한계효용은 점차 줄어드는 체감의 형태를 띤다. 따라서 제한된 소득으로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비자의 선택은

2)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19세기 이래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윤리적 사상이다. 인간 행위의 윤리적 기초를 개인의 이익과 쾌락의 추구에 두고, 무엇이 이익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며,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https://ko.wikipedia.org).

화폐 1단위당 재화마다 얻게 되는 한계효용이 동일해지는 지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한계효용의 개념은 후술하게 될 행복에 대한 포화점을 설명할 때 다시 언급된다.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재화 1단위당 얻게 되는 한계효용은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띤다. 어느 소비량 수준이 되면 한계효용이 '0'이 되고, 이 때 총효용이 극대화된다. 이후 한계효용은 부(-)의 값이 되고 총효용이 감소한다.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한계효용이 '0'에 이르러, 소비량 증가에 따른 효용의 증가가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효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지점을 포화점으로 본다.

(2) 다기간 선택이론

소비자 선택이론에서는 분석 주기 동안 가계가 주어진 예산, 즉 소득으로 구입가능한 상품 묶음을 조합함으로써, 소득을 전부 사용할 경우 효용이 최대화된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는 당기의 소득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주택, 자동차 등 당기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지출을 위해 저축을 하기도 하고,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얻기도 한다. 다기간 소비자 선택이론은 이처럼 소비자가 단일 기간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 걸쳐 자원을 배분하여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가정한다.

다기간 소비자 선택이론은 소비와 저축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이론으로, 소비자 혹은 가계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는 시점에 대한 선호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다기간 선택이론에 속하는 생애주기가설(Ando & Modigliani, 1963)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생애에 걸쳐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사람은 일생동안 소비의 흐름은 대체로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소득의 흐름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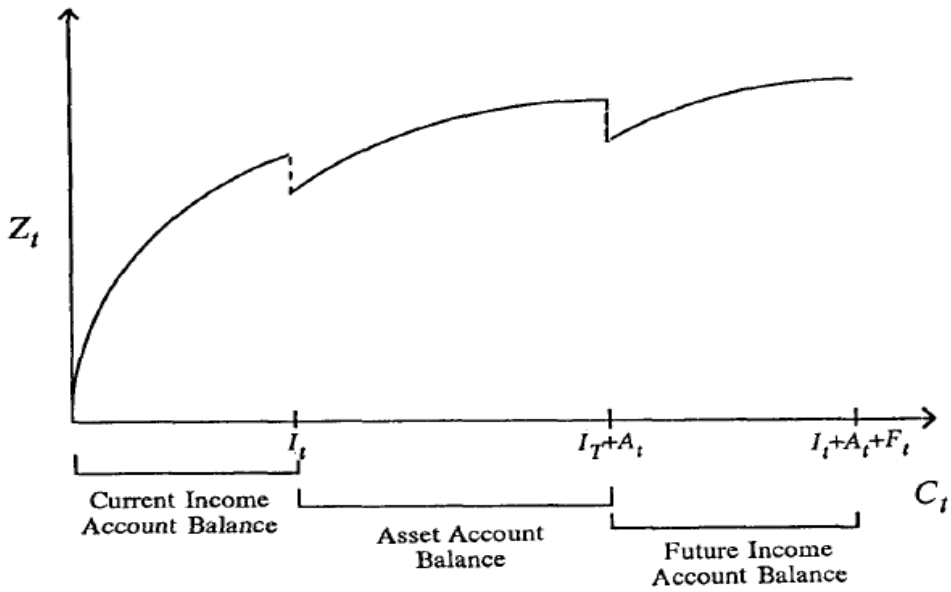
차 상승하여 장년기 또는 은퇴직전 절정을 이루다가 다시 하락하는 포물선을 나타낸다(그림 2-5 참조). 소비자는 생애소비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를 평활화하고자 하며, 이는 기간간 자원배분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즉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소비는 현재소득 뿐 아니라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자산, 미래의 기대소득의 영향을 받으며, 기간간 자원배분에 따라 부채 및 저축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Shefrin & Thaler(1988)는 소비자가 소비에 사용하는 자산을 ① 현재소득, ② 현재자산 ③ 미래소득의 3가지 심리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의 한계소비성향이 다르다고 보는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생애소득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없으며, 차선책으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단순한 법칙에 따른 선택(rules of thumb)을 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생애주기가설에 행동학적 특성인 절제(self-control), 심리계정(mental accounting), 틀짜기(framing)를 포함시켜 모델을 보다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소비자 내부에서는 현재 소비하고자 하는 유혹과 이를 미루는 의지력 사이에 내적 갈등이 발생한다. 부의 사용에 대한 유혹은 현재소득>자산소득>미래소득 순으로 크며,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로 효용을 설명한다.

<그림 2-1>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의 소득계정에 따른 효용



출처: Shefrin & Thaler(1988) p. 617

이에 따르면 소비에 대한 유혹은 현재소득 계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며,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의지력 사용에 관련된 비용이 줄어들면서 총효용(Zt)이 증가하지만 단조증가의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그 증가율이 감소하는 형태를 띤다. 현재소득 계정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추가적인 소비를 위하여 두 번째 자산 계정을 사용하는데 앞선 현재소득 계정에서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소비가 증가할수록 한계 총효용이 체감하는 형태로 총효용이 증가한다. 현재소득 계정에서 자산계정으로 이동할 때 총효용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추가적인 계정소득 사용에 대한 패널티(새로운 계정소득을 사용하기위한 입장료)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Shefrin & Thaler의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에 의한 가계의 소비함수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과 같다. 이때 각 심리계정의 한계소비성향의 크기는 현재소득계정(I) 〉 현재자산계정(A) 〉 미래소득계정(F)이며, 심리비용의 크기는 미래소득계정(F) 〉 현재자산계정(A) 〉 현재소득계정(I)이다.

Shefrin & Thaler는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의 핵심적인 특성은 기존 생애주기 모델에서 가정한 각 소득계정의 대체가능성(fungibility)을 완화하고, 부(富)를 수령하고 축적되는 형태에 따라 한계 소비성향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개념의 도입한 것이다. 기존의 생애주기모델에서는 각 심리계정 간에 소비에 대한 한계성향에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 반면, 행동학적 생애주기모델에서는 소비에 대한 한계 성향이 계정마다 다르다는 프레임을 선택한 것이다. Shefrin & Thaler는 가계의 부를 3가지 계정으로 구분한 것은 매우 단순한 형태로, 현실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하위항목으로 확장될 수 있고 가계의 성향에 따라 동일한 소득형태가 다른 심리계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최현자 외, 2008). 생애주기가설과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에 따르자면 소비와 이에 따른 효용은 경제적 자원의 크기 뿐 아니라 유입되는 자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다른 종류의 경제적 자원이 개인이 처한 상황(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상대소득가설

그동안 돈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경제학의 효용이론이나 심리학의 욕구이론에 기초하여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면 행복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정 하에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Easterlin(1974, 1995, 2001)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한 국가의 국민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경우,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오르게 되면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행복이 증가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의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증가 수준을 보이는 것이다.

소득과 행복 간의 이러한 역설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개인의 성향에 주목하고, 행복의 결정요소로서 절대소득이 아닌 상대소득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Clark et al., 2008; Clark & Oswald, 1998; Frank, 2005; Stutzer, 2004). 이들은 행복이 개인의 절대적 소득수준 뿐만 아니라 그가 관계하고 있는 집단 내의 다른 사람의 상대적 소비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Duesenberry(1949)의 상대소득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상대소득가설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계층(peer group)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는 사회적 의존관계에 있는 타인의 소비행태와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는 상호의존성을 지닌다고 제안한다.

예컨대 두 명의 근로자가 같은 직장에서 유사한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고 할 때, 두 명 모두 임금이 인상돼도 한 쪽의 임금 인상폭이 다른 쪽보다 크다면, 임금 인상 폭이 적은 사람은 그전보다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득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Clark & Oswald(1996)가 영국 근로자들의 소득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발견한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만족도는 동료의 소득 증가율과 반대로 움직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소득가설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을 평가하는 준거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여러 연구들은 연령(McBride, 2001), 거주지역(Blachflower & Oswald, 2004; Luttmer, 2005; Ferrer-i-Carbonell, 2005 이소라・홍기석, 2012; 임보영・마강래 2015; 류지아 2016 등), 교육수준(이소라・홍기석, 2012; 강성진, 2010), 직업(Clark and Oswald, 1996; 박종선·황덕순 2015 등) 등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여 개인의 행복이 준거집단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준거 집단을 정의하는 방식의 차이, 국가별 평균소득 수준의 차이, 모델 분석 방식의 차이 등으로 상대소득이 개인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마다 상이하다(Brown·Gray·Roberts, 2015).

여러 연구결과들을 보면 상대소득의 증가를 상대적 박탈감으로 느낀다면 대체로 부적 영향이 나타나고, 상대소득을 향후 자신의 소득변화로 인식하게 되면 정적 영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Ferrer-i-Carbonell(2005)는 상대소득을 개인소득과 소속된 집단 평균 소득과의 차이로 정의한 연구에서 자신의 소득이 집단 평균소득보다 낮은 경우 차이가 커질수록 부적 영향이 있는 반면 집단 평균소득보다 높은 경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소득이 마을(village) 평균소득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별하고 분석한 연구(Knight, Song, and Gunatilaka, 2009)에서도 가계소득이 마을 평균소득보다 높을 경우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반면 가계소득이 마을 평균소득보다 낮을 경우 삶의 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 Senik(2004)의 연구에서는 상대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는 상대소득의 변화를 향후 자신의 소득변화에 대한 신호로 인식하는 신호효과로 해석하였다(박종선·황덕순 2015 재인용).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를 보면, 박종선·황덕순(2015)은 준거집단을 연령대와 직종코드의 결합으로 설정하였는데, 가계소득이 준거집단 평균 소득보다 많은 집단은 차이가 커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이 준거집단 평균 소득보다 적은 집단은 차이가 커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거주지역의 평균 소득을 준거집단 평균소득으로 측정한 류지아(2016)의 연구에서는 지역의 평균 수준별로 개인의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지역의 평균 소득이 낮은 수준일 때, 개인의 가구소득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나, 지역의 평균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개인의 가구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형태를 보여, 이웃의 소득 수준이 개인의 행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특히 평균 소득이 700만원인 고소득 지역에서는 지역소득이 기울기가 음의 값을 보여, 높은 준거소득이 개인의 행복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은(2016)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성별·교육연수·연령·직종·거주지역을 준거집단으로 사용하였는데, 공통적으로 절대소득은 효용을 높이고, 비교집단의 소득은 자신의 효용을 감소시켰다.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도 공통된 효과를 가지는데, 남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타 그 계수와 유의미함이 크게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효용과 행복에 있어, 자신의 소득과 상대적 소득이 가지는 의미는 여성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편 Kyrk(1953)는 Resource Deficit Hypothesis를 통해 소비자들은 개인의 경험과 목표에 근거해 생활 수준 기대치를 형성하며, 일단 이 기대치가 형성되면 소비자는 이 기준을 유지 혹은 넘어서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Kyrk와 Dusenberry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적정성을 인식하는 준거점이다. Dusenberry 모델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을 공동체의

규범(norm)과 비교한다. 반면 Kyrk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사회적 비교와는 어느 정도 독립적이게 주관적 기준을 설정한다. 소비자가 기준을 세울 때 외부 준거점을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그 기준이 각 가정이나 개인마다 다르며, 가정의 습관과 관습이 이 기준을 설정할 때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Constantinides(1990) 등은 과거의 소비 행태가 일종의 습관처럼 형성되어 그 이상의 소비를 할 경우에만 효용이 발생한다는 내적습관형성 이론(internal habit formation)을 주장하였다. Kyrk(1953)와 Constantinides(1990)은 소비자의 비교를 위한 준거집단이 타인과 같은 외부 요인 뿐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같이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3. 포화점에 관한 논의

행복과 돈에 관한 이론들을 종합하면 개인의 욕구를 개인이나 가계가 보유한 경제적 자원이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느냐로 귀결될 수 있다. 심리학의 욕구이론과 경제학의 소비자선택이론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원이 증가할수록 행복이나 효용이 증가한다는 입장을 대표한다. 반면 열망수준이론이나 상대소득이론은 개인의 행복에 상대적 비교를 강조하면서 절대적 자원의 증가보다 상대적 비교에 의한 만족감이 행복감을 더 좌우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표 2-7> 돈과 행복에 관한 이론적 배경

구분	행복의 절대성	행복의 상대성
심리학	-욕구이론	-열망수준이론
경제학	-소비자선택이론	-상대소득이론

이 같은 돈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행복에 대한 포화점 관련 논쟁으로 이어진다. 과학에서 포화점(saturation point)은 최대 수용량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화학에서 물질이 녹아있는 용액이 더 이상 그 물질을 녹일 수 없고, 더 넣을 경우 침전되는 점을 말하며, 이 최대 농도일 때의 점을 포화점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 포화점(satiation point)은 재화의 소비량 증가에 따른 효용의 증가가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지점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양의 재화를 소비할 때 그 재화의 소비량을 한 단위씩 변화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총효용의 변화분을 한계효용(MU)이라고 한다. 한계효용은 총효용의 변화분(dU)을 그 재화의 소비량의 변화분(dQ)으로 나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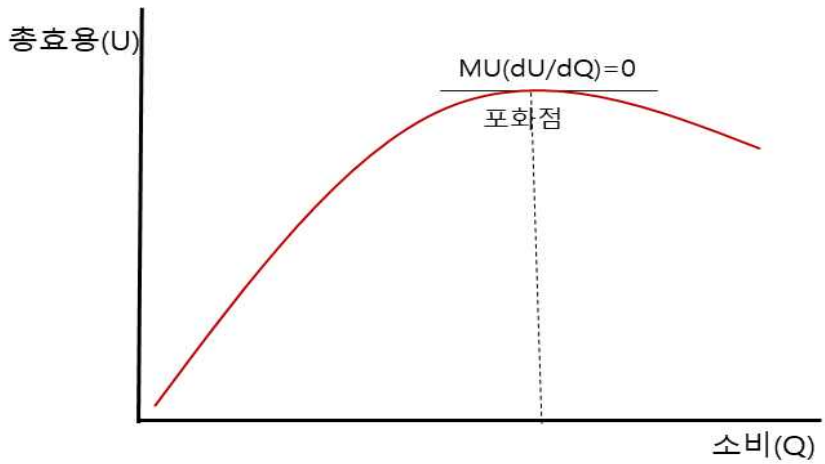
값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MUx = dU/dQ$$

어떤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총효용(MUx)은 증가한다. 그러나 추가단위가 가져오는 효용의 증가분인 한계효용(dU/dQ)는 점차 감소한다. 어느 소비량 수준이 되면 한계효용이 '0'이 된다. 이때 총효용은 극대가 되고, 그 이상의 소비량 증가에서는 한계효용이 부의 값이 되고, 총효용도 감소한다.

만일 소비량의 변화 dQ가 무한히 작은 수치에 접근하면 총효용의 변화분 dU도 무한히 작은 수치가 된다. 즉 총효용 함수를 소비량(Q)으로 1차 미분하면 한계효용이 된다. 한계효용은 총효용의 미분값이므로, 아래 <그림 2-2>처럼 총효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한계효용이 영(0)이 되는 소비량에서 총효용은 최대가 되고, 이때 총효용 곡선의 기울기는 수평, 즉 영(0)이 된다.

<그림 2-2> 포화점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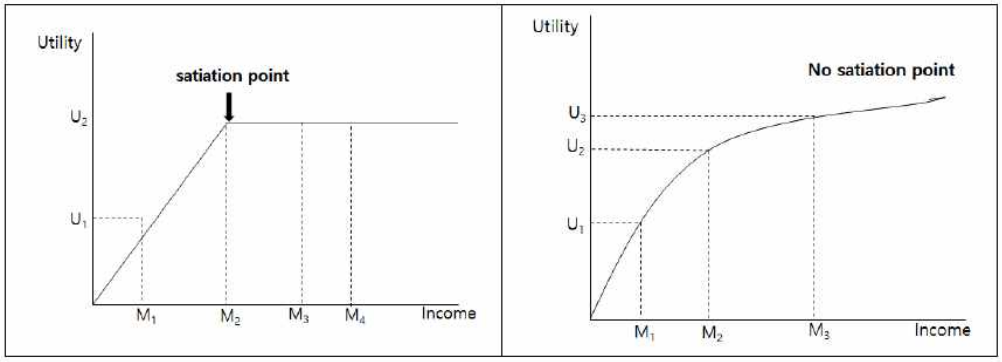
후술하게 될 소득의 포화점 논쟁에서 소득이 행복에 주는 영향이 '0'이 되는 포화점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게 된다. Easterlin(1974 등)으로 대표되는 포화점 존재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일정 소득 이상의 구간부터는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 평탄곡선(flat of curve)[3]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Veenhoven(1991)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지나면서 행복을 증가시키는 한계효용이 체감하기는 하지만, 행복의 증가가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고 주장한다.

포화점 유무에 관한 양측의 논의는 다음 <그림 2-3>과 같이 도표화 될 수 있다. 포화점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지나면 효용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체되는 평탄 곡선이 나타난다고 본다. 반면 포화점이 없다고 보는 쪽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기울기가 급격히 변하는 변곡점(inflection point)[4]을 지나면서 소득이 주는 한계효용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소득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입장이다.

3) 평탄 곡선(flat of the curve)'은 주로 보건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의료보장에 대한 투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 지나면 기대수명과 같은 보건의료 지표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평탄곡선으로 접어드는 소득의 수준을 여기에서 포화점(satiation point)이라고 할 수 있다(문진영, 2012 재인용)

4) 미적분학에서곡선이 오목에서 볼록으로 변하는 지점이나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곡률이 사라지지만 부호를 변경하지 않는 점은 기복점(起伏點, undulation point)이라고도 한다.

<그림 2-3> 소득의 포화점 논쟁에 관한 양측의 입장



출처: 조혜진(2017, p.8)

포화점 논쟁을 둘러싸고 연구자들은 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한 다양한 이론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포화점의 존재를 지지하는 Easterlin(2001)의 경우 열망수준이론에서 제시하는 열망(aspiration)의 개념을 이용하여, 소득이 증가하면서 물질적 열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득 증가만큼 효용(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반면 욕구이론의 대표적인 지지자인 Veenhoven(1991)은 개인의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개인에게 현존하는 욕구와 이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원인 소득이 증가하면 미미하더라도 행복의 증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소득의 포화점 관련 논의는 후술하게 될 경제적 자원 변수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행복의 포화점을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더 이상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지점으로 정의한다. 다양한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포화점 탐색을 통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인지,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절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자원 변수

앞 절에서 설명한 이론들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변수들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선택이론의 근간이 되는 효용이론에 따르면 효용(U)은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C)함으로써 증가한다.

또한 기간간 자원 배분을 설명하는 다기간 선택이론에 따르면 가계 및 소비자의 소비지출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S)=f(Y,\ A;\ TP)$$

C: 소비지출
S: 저축
Y: 당기 소득
A: 자산
TP: 시간 선호

왼쪽의 C(S)는 가계의 저축 혹은 소비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나타낸다. 소비나 저축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 결정은 오른편의 소득(Y)과 자산(A)이라는 경제적 자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제적 자원의 선택은 소비자의 시간 선호에 따라 달라진다.

종합하면 행복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통한 효용을 통해 발생하며, 이 같은 소비에 대한 결정은 소득과 자산, 그리고 소비자의 시간 선호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복에 영향을 주는 돈 즉 경제적 자원은 소비지출, 소득, 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 자산, 소비지출 등 각 경제적 자원은 성격도 다르고 충족시키는 욕구도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과 소비지출은 월 혹은 주 단위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의 자원 관리 조직 속에 흐르는 유량(flow) 개념의 자원으로, 소비지출은 욕구 충족의 결과물로 볼 수 있으며 소득은 소비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가계의 기본적인 경제적 자원이다. 자산은 욕구를 충족을 위해 사용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소득과 동일하지만, 충족시키는 욕구의 성격에 있어 소득과 차이가 있다. 유량 개념의 소득이 매주, 매월 단위의 필수적인 지출을 우선적으로 충족시킨다면, 자산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축적된 저량 개념의 자원으로,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상급학교 진학, 은퇴자금 마련과 같이 장기간의 자금 축적이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자원은 충족시키는 욕구와 각 자원이 지니는 성격이 다른 만큼, 행복에 주는 영향도 다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경제적 자원을 소득, 소비지출, 자산으로 구분하고, 각 경제적 자원의 특징과 행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1. 소득

소득은 가계생활상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자원으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돈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소득은 효용을 발생시키는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조사들이 소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취득이 용이하고,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들은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으며 사회에서 더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소득이 많으면 재무만족도가 높고, 재무적 스트레스가 더 적으며(Joo & Grable, 2004 등), 고소득자가 평균적으로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Blachflower & Oswald, 2004; Easterlin, 1995, 2001; Di Tella & MacCulloch, 2006 등 2001).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있어 주목할 만한 연구는 앞서 밝힌 행복의 포화점과 관련된 논쟁이다. 포화점 논쟁을 둘러싼 소득과 행복에 대한 연구는 크게 ① 국가 간 비교, ② 국가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 ③ 국가 내 동일 시점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비교 연구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고소득 국가가 저소득 국가보다, 같은 국가 안에서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행복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 연구결과도 그러하다(Frey & Stutzer, 2002 등). 그러나 Easterlin(1974, 2001 등)은 일정 소득 이상의 구간부터는 국간 간의 행복의 차이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 되는 평탄곡선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소득의 증가는 쾌락 적응, 열망의 상승 전환, 사회적 비교 과정을 통해 행복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하며, 개인은 소유한 상품의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야 할 상품의 규범을 고려하여 물질적 행복을 평가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서 소득 증가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Easterlin, 1974; 정보람, 2017 재인용). Inglehart(1997), Layard(2003), Kenny(1999) 등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제시한 포화점 이하의 국가에서는 소득이 행복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포화점 이상이 되면 소득보다 삶의 양식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가 행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한 국가 내에서도 장기적인 소득의 증가가 일정 수준에 이르러서는 행복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미국, 영국, 벨기에,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지난 몇십년 간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행복수준은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Easterlin, 1974; Di Tella & MacCulloch, 2006; Blanchflower & Oswald, 2004; Diener & Oishi, 2000; Myers, 2000; Kenny, 1999).

반면 Veenhoven(1991), Hagerty & Veenhoven(2003), Stevenson & Wolfers(2008) 등 연구자들은 행복에 포화점이 있다는 주장에 반박하였다. 이들은 국가 내 장기적 소득의 증가는 다양한 조건들의 개선으로 행복을 증가시키며, 고소득 국가에서도 그 정도의 크기가 개발도상 국가들에 비해서는 작더라도 여전히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무시할 수 없는 필요조건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Veenhoven(1991)은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개인의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개인에게 현존하는 욕구와 이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결정된다는 것이다. 욕구(needs)는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거나 개인의 적응수준에

따라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래적(生來的)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재화와 용역에 의해 충족될 수 있는 욕구(needs)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진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결핍되어 있는 어떤 욕구가 충족될 때 비로소 행복감이 상승한다는 것이다(문진영, 2012 재인용).

또한 Easterlin 연구의 측정도구 방법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Veenhoven(2006)은 반쯤 차 있는 물컵처럼 Easterlin과 자신의 견해 차이는 같은 사실을 놓고 다르게 해석하는 차이라며, 행복이라는 변수의 변동 폭이 너무 작은데다(예컨대 소득 변수는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으나 행복은 최고 점수의 한계가 있음) 그마저 변동(fluctuation)이 존재한다며 HLY (Happy-Life-Years) 지수를 제안하였다. HLY는 행복을 '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산출하였다.

HLY= life expectancy at birth x (0-1)happ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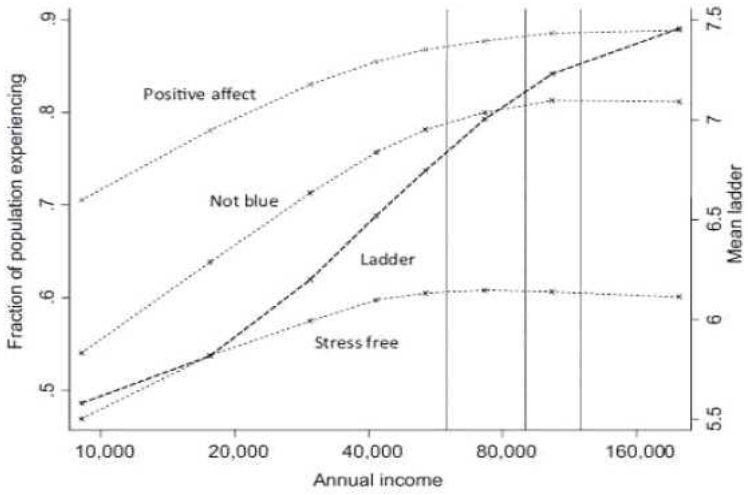
기대여명(life expectancy at birth)은 World Database Happiness(2003)에서 제공하는 지표로 국가별로 삶을 얼마나 영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기에 0~10 점 척도로 답변한 개인의 행복 수준 보고를 0~1점 척도로 변환하여 HLY를 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측정한 결과 1973~2004년까지 미국의 HLY는 5.2년, 유럽의 HLY는 6.3년 상승하여 경제성장에 따라 행복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Stevenson & Wolfers(2008)는 Easterlin의 연구들은 행복과 GDP 사이의 관계를 단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까지 축적된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간, 국가내, 시계열 등 다양한 연구 결과, 행복은 1인당 국민소득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만족점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Easterlin et al. (2011)은 Stevenson & Wolfers(2008)의 주장에 다시 반박을 제기하며 포화점에 관한 양측의 논쟁은 상대측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지적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그 논의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행복의 포화점에 관한 논쟁은 국가간 및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동일한 지역 내 주어진 시점에서 개인 단위의 소득과 행복의 포화점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Kahneman & Deaton(2010)은 Gallup-Healthway Well-Being Index를 활용하여 미국인들의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소득계층을 8개로 구분하여 가계소득에 따른 긍정정서(positive affect), 부정정서(blue), 스트레스(stress), 캔트릴의 사다리를 이용한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ladder)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2-8>처럼 행복을 설명하는 4가지 요인들 모두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정서, 부정정서, 스트레스의 경우 소득 상위 2그룹의 경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ladder)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2-4> 소득 증가에 따른 행복 4요소의 변화



출처: Kahneman & Deaton(2010) p.16,491

Jebb et al.(2018)은 Gallup World Poll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세계, 그리고 지역별로 행복의 포화점을 모색하였다. Jebb et al.은 스플라인 회귀라는 구간별 회귀분석을 통해 소득 증가에도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포착하여 포화점을 탐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전세계를 기준으로 '삶에 대한 평가'의 경우 포화점이 9만5천달러, 감정적 영역의 경우 긍정적 감정은 6만달러, 부정적 감정은 7만5천달러에서 포화점이 형성된다고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도 행복의 포화점 모색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자료의 원천에 따라 결과는 다소 상이하다. Diener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주관적 웰빙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정적 웰빙(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차이인 감정적 밸런스)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지만, 일정 지점(연소득 약 $20,000 정도)부터는 단위가 증가할수록 행복의 증가분은 감소형태를 띄고 있다.

김충선(2015)은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15단계로 구분하여 행복의 포화점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이 낮은 단계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라 행복이 증대하나, '월 '300~350만원 미만'에서 '월 450~500만원 미만'까지에서 소득의 증가는 행복감을 거의 증가시키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서 행복감이 증가하지만 증가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택·홍석동·마강래(2015)는 2012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연간 가구소득 8,800만원 이상이 되면 소득의 증가에도 삶의 만족감이 증가하지 않는 포화점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홍석동(2016)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전국 및 지역별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소득의 포화점은 9천7백만원, 수도권 1억2백만원, 비수도권 8천9백만원으로 추정되어 지역별로 소득의 포화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지아(2016)는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토대로 7분위로 구분한 소득계층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계층별 행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소득3분위(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부터는 계층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소득3분위 계층이 최상위층(900만 원 이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람(2017)은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단계 소득 계층별로 행복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소득 4분위(500~700만원미만)부터는 상위 소득계층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시점에서 개인단위 소득과 행복의 포화점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2-8>과 같다.

<표 2-8> 개인 단위 소득과 행복의 포화점에 관한 선행연구

출처	분석자료	행복 측정 (척도)	소득구분	분석 방법	포화점 존재 유무
Kahneman & Deaton (2010)	Gallup-Healthway Well-Being Index (미국)	캔트릴 사다리 (삶의 만족도) 감정적 웰빙	8개 소득계층 로그소득	회귀분석	정서적 행복 7만5천달러 삶의 만족도(x)
Jebb et al. (2018)	Gallup World Poll (전세계)	캔트릴사다리 (삶의 만족도) 감정적 웰빙		스플라인 회귀분석	삶의 만족도 9만5천달러 감정적 웰빙 7만5천달러
Diener et al (2012)	Gallup World Poll	감정적 웰빙 삶의 만족도			2만달러
김충선 (2015)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행복(1-10)	가구월소득 15개 소득계층	다중회귀	월500만원
홍석동 (2016)	한국노동패널	삶의 만족도 (1-5)	균등화된 가구연소득 (가구소득/가구원수)	회귀분석	9천7백만원
류지아 (2016)	한국종합사회조사	얼마나 행복하십니까(1-7)	가구월소득 7개 소득계층	분산분석 OLS회귀분석	포화점 없음
정보람 (2017)	국민여가활동조사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1-10)	가구월소득 6개 계층	분산분석, 회귀분석, 순서형 로짓	월500만원

2. 자산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서 지적되는 한 가지 한계점은 소득 이외의 다른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기간 소비자 선택이론에 따르면 소비자가 단일 기간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 걸쳐 자원을 배분하여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즉 돈과 관련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현재소비와 현재소득 뿐 아니라,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자산, 미래의 기대소득의 영향을 받는다.

자산은 가계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고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이다. 소득이 노동을 통해 얻어진 보상으로 유동적인 특성을 갖는 반면, 자산은 미래의 특정한 목적이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여 오랜 기간 축적되어 비유동성이 강한 특성을 갖는다(Spilerman, 2000; 장항채 2018 재인용). 가족생활주기 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만으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경제자원으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곽민주·이희숙, 2014).

Tatarkiewicz(1966)는 행복은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포함하며 본질적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retrospective)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전망(prospective)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행복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구성 요소간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행복이 이처럼 현재 상태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Tatarkiewicz, 1966), 인간의 욕구는 현재 소비를 통해 희열을 얻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도 포함된다. 실직·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계의 경제적

압박감을 줄이고 경제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주택, 자동차, 여행 등 당기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 목표를 위해 투자 및 저축을 해 나가는 것도, 당장에 소비하지 않지만 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자신의 꿈, 미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소득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학업 등 인적투자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행복에 기여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2015)은 재무적 웰빙(Financial Wellbeing)을 <표 2-9>와 같은 다음의 4가지 요소로 개념화하였다. 재무적 웰빙(finacial wellbeing)은 개인재무(personal finance)와 행복을 의미하는 웰빙(wellbeing)이 결합된 개념으로, 개인의 돈과 관련된 재무적 사항들이 행복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개념이다.

<표 2-9> 재무적 웰빙의 4가지 요소

	현재(Present)	미래(Future)
안정 (Security)	매일, 매월의 재무 관리 및 통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여력
선택의 자유 (Freedom of Choice)	삶을 즐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재무적 자유	재무적 목표 실현

출처: CFPB(2015), p.19

CFPB에 따르면 재무적 웰빙은 현재와 미래라는 강력한 시간적 틀(time frame)을 지니고 있으며, '안정감'과 '선택의 자유'라는 두 가지로 욕구를 충족하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일, 매월의 재무를 관리하고 통제력을 지닌다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중에 납부해야할 세금, 공과금, 요금 등을 제때 납부하고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돈이 모자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는 것은, 친구, 가족, 지인, 저축, 다양한 종류의 보험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실직, 집수리,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처하고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재무적 목표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주택 구매, 학자금 대출 상환, 은퇴자금 저축 등 개인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상이한 재무적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삶을 즐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재무적 자유가 있다는 것란 인간의 기초적인 '요구(need)'를 채우는 것을 넘어, 때로 기분에 따라 돈을 쓸 때도 있고, 저녁식사를 하러가거나 휴가를 갈 수 있는 등 개인이 '원하는 것(want)'을 감당할 재정적인 여유를 의미한다.

CFPB에 따르면 재무적 자유와 관련된 요소가 인터뷰를 통해 강력하게 피력되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예컨대 재무적 자유란 친구, 가족, 지역사회에 베풀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학교로 돌아가거나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한 직장을 떠날 능력, 휴가나 멋진 식사를 할 수 있는 능력,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능력 등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앞장에서 밝힌 욕구의 관점에서 볼 때, 필수적인 지출보다 상위에 있는 사회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지출과 이를 가능하게 할 여유자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할 때 돈과 관련된 행복은 현재의 소비욕구에 대한 충족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재정적 안정감과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재정적 자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기의 소득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여윳돈을 남기고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등 다기간에 걸친 자원 배분과 이를 위한 자원 관리 행위가 실제적인 행복 실현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Sherraden(1991)은 자산의 효과를 다음의 9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산은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의 감소나 직업상실, 이혼 등을 겪게 될 때 감소된 소득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여 가구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McKernan & Sherraden, 2008). 둘째, 소득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충족시키기만 하는데 자산은 개인으로 하여금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한다. 사람들은 현재 안정되었을 때 미래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현재에 연연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자산은 인적 자본과 다른 유형의 자산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사람들은 자산에 대한 투자, 관리, 의사결정, 정보수집 등의 과정을 통해 재무적인 지식을 얻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소득과 자산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자산은 소득활동을 잠시 중단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수 있어 기술 및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자산은 위험을 각오할 기반은 제공한다.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감안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섯째, 자산을 지니게 되면 생산적인 일을 찾아서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존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Han & Hong, 2013). 또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나타내는 효능감과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제력, 친화력, 적극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Yadama & Sherraden, 1996).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킨다. 일곱째, 자산은 경제적 복지 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높인

다. 여덟째,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 과정에 참여할 더 많은 동기부여와 자원을 가지고 있어 정치 참여를 증가시킨다. 아홉째, 미래 방향설정과 관련해 자산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후세대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이 같은 논의들을 종합하면 자산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실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자산수준이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동배 등(2009)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산유형별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자가주택소유, 사업체소유, 기타주택소유, 예·적금보유, 저축성보험보유,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보유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 반면, 기타자산(직접적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승용차, 트럽, 선박, 항공기, 농기계, 콘도 및 골프 등 각종 회원권, 귀금속, 그림 등 소장예술품 등) 보유는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적립적펀드, 주식투자자금, 곗돈 보유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장항채(2018)도 60대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산유형별로 삶의 만족도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임미화(2017)는 자산소득 가운데 부동산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은퇴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부동산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은퇴가구와 경제활동 가구의 가족관계, 사회적관계, 여가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시온(2018)은 청년 가구주를 대상으로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연(2020)의 연구에서도 자산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식적인 사회활동 참여에

도 매개변수로 영향을 줌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 & Kim(2014)은 20~40세, 41~50세, 50세 이상의 3집단으로 구분하여 자산과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최연소 집단에서는 금융자산을 통한 자산축적이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노년기 집단으로 갈수록 실물자산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산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이보영(2016)의 연구에서도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기혼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연령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는데, 금융자산과 기혼 여성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상호 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부동산자산의 경우, 40~59세 사이의 기혼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39세, 6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과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표2-10> 참조) 소득뿐 아니라 자산도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산과 행복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산이 행복을 어디까지 증진시킬 수 있는지, 소득처럼 자산도 일정 수준에 이르면 행복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는 듯하다.

<표 2-10> 자산과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

출처	종속변수	하위요인 및 영향	연구방법
김동배・박은영・김성웅(2008)	삶의 만족도	자가주택, 사업체, 기타주택, 예적금, 저축성보험, 공적연금, 개인연금(+) 기타자산(-)	국민노후보장패널 (55세 이상)
김성아・김미곤(2016)	삶의 만족도	균등화 총생활비(+) 균등화 경상소득(+) 균등화 가처분소득(+) 균등화 총자산(+)	한국복지패널 OLS, Pooled OLS, 고정효과모형
이보영(2016)	생활만족도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한국복지패널 (기혼여성)
임미화(2017)	우울감 자존감 생활만족도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한국복지패널 (55세 이상) 로짓분석
정해식・김성아(2018)	삶의 만족도 어제 느낀 행복	균등화 가처분소득(+) 균등화 순자산(+)	보사연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OLS, 고정효과모형
장항채(2018)	삶의 만족도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	국민노후보장패널 (50세 이상)
강시온(2018)	생활만족도	순자산(+)	한국복지패널 (청년가구주)
원도연(2020)	삶의 만족도	균등화 가구순자산(+)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LoSA)

3. 소비지출

그동안 돈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욕구 충족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이 아니라 개인과 가구의 특성과 선호가 반영된 소비지출을 통해 충족되는 만족감을 행복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소비지출이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유한 자원을 배분하여 재화를 소모하는 일로 정의된다(최홍철, 2019).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며, 소비지출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계가 보유한 자원을 여러 항목에 적절히 배분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때 소득이라는 예산제약 이외에 소비자나 가계의 가치관이나 소비성향이 소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자원배분 행동도 달라지게 된다. 즉 소비지출에는 가계의 필요와 선호가 반영되어 나타나며, 따라서 동일한 소득을 지니더라도 소비자와 가계의 선호에 따라 소비하는 양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서봉균(2010)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개인과 가구의 선호와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소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의 절대적인 수준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계층에서는 개개별로 차별화된 소비지출을 반영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소득의 수준은 경제적 만족감이나 효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저소득층에서는 높은 반면, 고소득 계층에서는 낮게 나타난다(Argyle, 2001)고 지적한다. 같은 맥락에서 Easterlin(1974)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서는 소득보다 삶의 양식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가 행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지출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주는지에 따라 여러 속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유형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소유를 얻기 위한 물질소비보다는 경험을 얻기 위한 의도의 경험소비가 행복을 더 유도하며(Van Boven & Gilovich, 2003; Kumar, Killingworth & Gilovich, 2014 등), 타인을 위한 친사회적 지출(Dunn, Akin & Norton, 2008)이 자신을 위한 지출보다 더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민기(2018)는 일상소비와 비일상소비에서 물질소비와 경험소비의 행복감 차이를 실험하였는데, 일상소비와 비일상소비의 소비행복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경험소비는 물질소비보다 높은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일상소비의 경우 경험소비가 물질소비에 비해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상소비의 경우 물질소비와 경험소비의 소비행복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성영신 외(2013)는 소비활동을 일상 소비, 놀이여가활동, 재테크활동, 수집활동, 타인의식 소비, 의례활동, 외모가꾸기, 윤리소비, 친환경소비 등 9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소비활동 유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인 소비활동은 삶의 만족감과 긍정적 감정과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삶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도 정(+)의 관계가 나타나 소비가 삶의 행복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유형별로 보았을 때, 놀이여가활동, 외모가꾸기 등 경험적 소비가 삶의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컸으며, 재테크활동이나 일상소비활동은 소비행복은 높여주지만 다시 삶의 행복을 높여주지는 못하였다. 타인의식소비, 의례활동, 친환경소비 등은 삶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 소비지출 항목들에 자원을 배분하는 형태를 소비양식 혹은 소비패턴으로 분류하여 행복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김시월·조향숙

(2015)은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바탕으로 50대이상 중고령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소비패턴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각 소비지출 비목을 연간 소비지출로 나눈 비목별 소비구성비를 기준으로 중고령 1인가구의 소비패턴을 식비중심형, 다양한 활동형, 주거비 중심형, 보건의료비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분석결과 60대 이하의 경우 다양한 활동형>식비중심형>주거비중심형 순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70대의 경우 식비중심형>다양한 활동형>보건의료,주거중심형 순으로 나타났다. 80대 이상은 다양한 활동형>보건의료비중심형>주거비중심형>식비중심형 순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박서영(2016)은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를 은퇴집단과 비은퇴집단으로 구분하여 소비패턴과 우울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비은퇴 집단의 경우 사회생활중심형보다 기초생활중심형, 여가생활중심형의 우울수준이 높았다고, 은퇴 집단의 경우 교육비중심형보다 기초생활중심형의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소비항목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소비자는 한정된 예산 하에서 여러 항목에 소비를 배분해야 하므로, 특정 비목에 대한 소비를 늘리면 다른 비목의 소비가 줄어야 한다. 경제학의 가정대로라면 합리적인 소비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 결정을 내리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총효용의 감소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소비항목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이다. 교육비와 주거비는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서, 소득이나 가격 변화에 따라 쉽게 증가나 감소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유경원(2010)의 연구에서는 교육비와 저축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교육비 부담의 확대가 여타 가계 지출의 감소와 함께 저축의 감소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었다. 교육비가 가계의 행복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미래를 대비한 저축 감소로 이어지

면서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봉균(2010)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월세, 주택대출 이자, 지대 등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수록 가구의 경제적 만족감이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문화소비에 관한 지출은 행복과 정(+)의 관계에 있는 지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소득과 문화소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보람(2017)의 연구에서는 월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가시간, 문화활동, 전시 및 공연관람 같은 문화소비 경험이 행복에 정(+)의 효과를 지니는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 이하 소득 집단의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이 증가되는데, 여가지출, 문화유적지 방문 경험은 부(-)의 조절효과를 나타내어, 소득에 따른 행복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표 2-11 참조>) 특정 소비비목, 소비유형 혹은 소비양식과 행복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비지출의 절대적 금액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비지출이 행복에 어느 정도까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자산과 함께 소비지출과 행복의 관계를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포화점 탐지를 통해 소비지출이 행복을 어느 정도까지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소비자가 경험하는 돈의 형태에 따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표 2-11> 소비지출과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

출처	종속변수	하위요인 및 영향	연구방법
Dunn, Akin & Norton, 2008)	행복감	친사회적 지출(타인을 위한 선물, 기부) 비중(+)	실험, 설문조사
Van Boven & Gilovich, 2003;	행복감(9점척도)	물질소비<경험소비 (과거소비)	실험, 설문조사
Kumar, Killingworth & Gilovich, 2014	감정적 행복 (기대, 흥분) (4점척도)	물질소비< 경험소비 (미래소비)	실험, 설문조사
전미영・김난도 (2011)	소비자행복(7점척도)	재화소비, 경험소비 (통계적 차이 없음)	설문조사
천민기(2018)	소비행복	비일상소비: 경험소비>물질소비 일상소비: 경험소비, 물질소비(차이없음)	설문조사
성영신 외(2013)	소비행복 삶의 행복	경험적소비활동 (+) 물질적 소비활동 (- or 효과없음) 윤리적 소비활동(+)	설문조사
김시월・조향숙 (2015)	삶의 만족도 (5점 리커트)	60대: 다양한 활동형>식비중심형>주거비중심형 70대 식비중심형>다양한 활동형>조건의료중심형	국민노후보장패널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
서봉균(2010)	경제적 만족감(5점척도)	주거비(월세, 주택대출이자, 기재)지출(-)	한국복지패널 로짓분석
노법래(2017)	삶의 만족도 (5점 척도)	소득대비 기부수준(+)	한국복지패널 교차효과지연

			패널모형
박서영(2016)	우울감(100점)	비은퇴집단: 사회생활중심형 <기초생활중심형 은퇴집단: 교육비중심형>기초생활중심형	국민노후보장패널 잠재프로파일분석, 다중회귀분석
정보람(2017)	행복도(10점)	문화소비경험, 문화소비지출(+)	국민여가활동조사 순서형로짓

4. 소결

본 연구에서는 '돈'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경제적 자원으로 정의하고 소득, 자산, 소비지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경제적 자원으로서 돈에는 유량(flow) 개념의 소득, 소비지출 뿐 아니라 저량(stock) 개념의 자산이 포함되며, 이러한 경제적 자원이 충족시키는 욕구도 자원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소비지출은 재화와 서비스 구입을 통해 충족시키는 욕구적 측면으로, 현재의 욕구 충족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소비지출 될 수도 있고 미래의 재무적 안정감과 자유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소비를 미루는 저축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 돈을 배분할 것인가는 소득과 자산이라는 경제적 자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소득이 주로 현재의 소비지출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원의 역할을 한다면, 자산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 가계의 재무적 성장을 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돈은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자원의 성격에 따라 충족시키는 욕구도 상이함을 알 수 있다. Shefrin & Thaler(1988)의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에 의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경제적 자원에 대해 심리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어떠한 심리계정에 속한지에 따라 소비자가 경험하는 효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소득, 소비지출, 자산은 상이한 심리계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득이 '버는 돈'이라면 소비지출은 '쓰는 돈'이 되고 자산은 '모으는 돈'으로 심리 계정 상에서도 상이한 계정에 속하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각 경제적 자원이 주는 효용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경제적 자원이 행복과 대체로 정(+)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상이한 성격의 돈이 소비자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에 돈과 행복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한 돈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주로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집중돼 있다. 소비지출, 자산 등 각각의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들도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으로 이러한 돈의 요인들이 개인 차원의 행복에 어떻게,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고찰은 부족하였으며, 이러한 자원이 종합적으로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도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돈 즉, 소득, 소비지출, 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인지, 소비자 특성에 따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4절 연령대가 경제적 자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은 각 경제적 자원이 주는 효용이 자원의 특성 뿐 아니라 소비자의 특성에 의해 달라진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 특성으로 연령대에 주목하였다. 연령대는 특정 연령에 상응하는 사건을 경험하는 '연령효과(생애주기 효과)'를 지님과 동시에, 동시 출생 집단으로 특성 시대 같은 연령으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시대 효과'와 '코호트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행복에서 사회적 비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연령대는 중요한 준거집단이 될 수 있다.

먼저 생애주기는 소비자나 가계의 경제적 자원과 재무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Ando & Modigliani, 1963). 개인의 입장에서 유년기, 청년기에는 소득이 없거나 적고, 장년기에는 소득활동이 왕성하고, 은퇴 후 노년기에는 소득이 없거나 장년기에 비해 소득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청년기에는 미래 기대소득을 근거로 한 차입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소득 활동이 왕성한 장년기에는 은퇴를 대비한 저축, 자산 축적이 이루어진다.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자산 관리에도 생애주기 개념을 도입한 재무적 생애주기(financial life cycle) 개념이 발전하였다. 생애주기별 자산관리는 자산형성기, 자산증식기, 자산보존기로 나뉜다(김태용 외, 2016). 자산형성기는 자산형성을 위해 자산 축적이 요구되는 시기로 일반적으로 초기 신혼기와 사회진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산증식기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일정 수준의 자산을 형성해 놓은 상태로, 결혼하고 자녀가 있으며 사회에 진출해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자산보존기는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생애주기는 연령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가구주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Murphy & Staples, 1979), 많은 연구들이 연령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생애주기를 구분하고 있다(정희수·권혁일 2004; 박천규 외, 2009, 김주원·정의철 2009 등).

박천규 외(2009)는 연령에 따라 생애주기를 다음 <표 2-13>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 2-12> 가구생애주기의 구분 기준 및 근거

구분기준	구분 근거 및 특성
20-30대	• 사회 진출, 결혼, 출산, 소득 증가, 내집 마련
40대	• 내집 마련, 교육비 증가, 소득 증가, 주택구입 융자액 증가, 저축 증가
50대	• 주택 교체, 퇴직, 자녀출가, 교육비 부담 감소
60대 이상	• 소득 감소, 가족 축소

출처: 박천규 외(2009), 김민철 외(2016)

이에 따르면 20-30대는 주로 결혼, 출산 등에 따른 가족형성기에 해당하며, 40대는 소득, 저축, 교육비 등이 증가하는 자녀교육기, 50대는 주택 교체, 자녀 출가가 시작되는 가족 축소기, 60대 이상은 은퇴의 시기로 소득, 주거면적이 감소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결혼 및 출산의 경우 이전보다 연령이 높아지고 무자녀 가정, 비혼 등 연령대별 가족생애주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다만 <표 2-12>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았고[5], 이에 본 연구에서도 연령대를 20-30대, 40대, 50

5) 통계청(2017)에 따르면 혼인코호트(동일한 시기에 결혼한 집단) 별로 초혼 연령이 '70

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애주기는 소비자의 자원 배분 선택과 경제적 자원을 통해 얻는 효용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Shefrin & Thaler, 1988). 개인 혹은 가구가 처한 생애주기 상의 과정에 따라 가계의 욕구와 성향이 다르고, 이것이 기간간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여러 연구들은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상황 및 의사결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천현진·이연숙(2007)은 도시 근로자 가계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및 소비지출 구조를 분석하였는데,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모든 세부 항목별 소득액 및 세부 비목의 소비지출액이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소득은 자녀 성인기 가장 높았으며, 비경상소득 제외한 모든 세부항목별 소득액이 가족 생활주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중고등 교육기, 자녀 성인기 높았고, 대부분 지출비목이 자녀 성인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비목별 소득구성비를 보면, 형성기에는 교통통신비, 외식비, 교양오락비, 비폭 및 신발비 비중이 높았고, 노년기에는 기타소비지출,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광열·수도비, 주거비 구성비가 높았다. 이는 형성기에는 대체로 선택재의 지출 비중이, 노년기에는 필수재의 지출 비중이 높음을 나타낸다. 또한 자녀 중·고등 교육기에는 교육비 지출 비중이, 자녀 출산 및 양육기에는 가구집기, 가사용품,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자녀 중·고등 교육기에는 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자녀 출산 및 양육기에는 뵤육서비스와 기타 가사서비스,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었다.

서인주·정지영·한연순(2012)은 가구생애주기별 소비성향, 주거스타일을

~'74년 21.9세, '00~'04년 26.8세, '10~'15년 29.4세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결혼 연령과 이에 따른 출산 연령에 늦어지고 있으나, <표 2-12>가 현재까지 우리나라 소비자의 평균적인 상황을 설명하는데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았다.

분석하였는데, 과시소비를 보이는 독립기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 소비를 하는 경향을 보였고, 생애주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월세, 전세, 자가 순으로 점유형태가 변화하였다. 주택규모 면에서 가구주의 나이가 들수록 고등교육기까지 규모가 확장되다가 노년기에 규모가 줄어들었다.

최홍철(2014)은 가구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6개의 생애주기 단계로 분류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가계의 소비양식이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일인가구 및 무자녀가구의 경우 식료품, 주거수도광열, 보건 등과 같은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목에 대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의류신발, 교통, 통신, 오락문화, 음식숙박과 같이 여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목들은 은퇴기로 갈수록 지출 비중이 감소하였다. 유자녀부부가구의 경우 자녀가 대부분 학령기인 중년기에 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일찍 자녀를 독립시킨 중년기 유자녀부부가구는 교육비 부담이 급감하는데다가 여전히 이전 단계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어서 주류 및 담배, 의류신발, 교통, 통신, 음식숙박 등과 같이 생계에 비필수적인 비목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생애주기가 거주 주택을 비롯한 자산 보유 형태와 자산 관련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박천규 외(2009)는 연령대에 따라 생애주기를 구분하였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가 점유율이 높아지며, 주택 면적은 50대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60대 이상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넓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가족 구성원이 줄더라도 현재거주하는 넓은 주택 소유를 계속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송혁준·김영일(2013)의 연구에서도 부동산 자산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

라 증가하여 50-60대에 정점을 기록한 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의 규모는 30대에 가장 높고 이후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부채의 경우에는 40-50대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이후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순금융자산(금융자산-부채)은 40-50대에 저점을 형성한 후 연령의 증가에 따라 다시 상승하는 U자형의 패턴을 보였다.

서원석(2018)은 차가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가구생애주기별로 주거면적과 주택수요면적을 비교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차가가구에선 형성기와 확장기의 면적차이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며 수축기와 소멸기에 이르러 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가가구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생애주기와 경제적 자원 및 의사결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2-13>과 같다.

<표 2-13> 생애주기와 경제적 자원 관련 선행연구

출처	생애주기 구분	설명 변수	조사자료
천현진·이연숙(2007)	형성기, 자녀출산 양육기, 자녀초등교육기, 자녀중등교육기, 자녀성인기, 노년기	도시 근로자 소득, 소비지출 구조	통계청 가계조사
서인주·정지영·한연순(2012)	독립기, 형성기, 자녀출산 양육기, 자녀초등교육기, 자녀중등교육기, 자녀성인기 및 노년기	소비성향, 주거스타일	설문조사
최홍철(2014)	가구유형(일인, 무자녀부부, 유자녀부부, 유자녀한부모) x 생애주기(장년, 중년, 은퇴)	소비양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박천규 외(2009)	연령대(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주택수요	주택수요 및 주거실태 조사
송혁준·김영일(2013)	연령대	소비, 자산	한국노동패널
서원석(2018)	형성기, 확장기, 수축기, 소멸기	주거면적, 주택수요면적	주택수요 및 주거실태 조사

연령대는 또한 동시대에 태어나 특정 시대,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공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이기도 하다. 여러 연구들은 혹은 세대에 따라 생애 경험,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소비가치 및 소비 행태 등이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김우성·허은정, 2007,; 황금진, 2014; 권두영, 2016 등)

국내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와 그 자녀 세대라 할 수 있는 에코 세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베이비붐세대는 한국전쟁 종식 후 사회적 안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시작한 196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며, 에코세대는 그 자녀 세대로 1979년부터 199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통계청, 2012). 이 두 세대는 성장배경과 그에 따른 경제적 특성에서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황금진, 2014; 권두영, 2016), 베이비붐 세대는 성장 과정에서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다가, 청년기에 급격하게 진전된 산업화, 민주화의 발전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은 세대이다. 또한 왕성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던 30-40대에 1997년 IMF 외환위기 발생으로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의 최대 피해자가 된 세대이기도 하다(황금진, 2014). 에코세대는 부모와 1~2명의 형제자매마나 있는 핵가족화된 가정환경에서 사회화되어 합리적이고 평등주의적 성역할 태도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난다(조윤주, 2002).

여러 연구들은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가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소비가치 및 행태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하나·최혜경(2010)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는 미국과 달리 지식 추구와 사색적 라이프스타일보다 성공을 위한 지위지향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신 외(2004)의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가족지향, 여권주의(feminism), 자유지향, 탈권위주의와 생활주의 가치관을 보였으며, 소비생활에 저가상품 선호, 기능성과 실용성 중시 등의 특성을 보였다.

김우성·허은정(2007)은 베이붐세대와, 에코세대에 해당하는 Y세대 소비자의 소비관련 가치관을 비교한 결과 베이비붐세대가 에코세대보다 더 강한 가족중심적 가치를 보인 반면 다양성 허용가치는 베이비붐세대가 약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자아 존중 가치,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성취감, 자아실현, 삶에서의 즐거움과 즐김, 흥분과 짜릿함 가치는 에코세대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다.

황금진(2014은 에코세대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성장하며, 한국 사회의 소비 패턴은 에코세대에 의해 필수적 소비에서 문화적 소비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들은 자신만을 위한 소비생활과 문화를 즐기고, IT 기기에 익숙하며, 자신이 특별하게 선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임미리, 2013).

세대 간 주거 선호, 주거에 대한 가치관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2)에 따르면 에코세대는 내 집 소유도 좋지만 쾌적하다면 전·월세도 괜찬다는 '거주 중심의 주거관'을 보였다. 임기현(2013)은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의 주거 선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두 세대 모두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았고, 현재 점유 형태에 있어서는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 각각 자가와 전세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세대 특성만이 아니라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양가족 수가 늘고, 주택 소유 성향이 강한 한국인의 특성상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가 주택에 대한 선호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임지영(2015)은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효과와 세대에 따른 시대효과는 개념적으로는 식별하기 쉽지만, 경험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두 효과를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연령대에 따른 생애주기 효과, 세대 효과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연령대에 따라 소득, 자산, 소비 등 재무

상황과 재무 관련 의사 결정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연령대가 돈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주목한다. 이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결과 해석에 있어 연령대가 지닐 수 있는 생애주기 및 세대 관련 효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연령대는 소비자가 비교 기준으로 삼는 주요한 준거 집단이 될 수 있다. 행복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상대소득가설(Dusenberry, 1949), 열망수준이론(Campbell et al., 1976) 등은 행복에 있어 사회적 비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연령대는 이웃, 친구, 동료 등 지인으로, 동시대를 살아온 코호트 집단으로서 주요한 준거집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행복 연구에 있어 연령이나 연령대는 자신의 소득, 소비수준, 전반적인 상황을 비교하는 준거기준(reference) 혹은 규범(norm)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행복에 있어 상대소득의 영향을 분석한 McBride(2001)의 연구에서는 동일 연령 집단의 평균 소득과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Ferrer-i-Carbonell(2005)은 교육수준, 연령, 지역을 혼합한 준거그룹의 평균소득이 주관적 행복감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선·황덕순(2015)은 연령대와 직종코드를 결합한 준거집단의 평균소득이 우리나라 소비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2-14> 세대에 따른 가치관, 재무행동 관련 선행연구

출처	베이비붐 세대	에코세대
김우성·허은정(2007)	-가족중심적 가치 높음	-다양성 허용 가치 높음 자아존중 가치, 타인과 원만한 관계, 성취감, 자아실현, 삶에서의 즐거움과 즐김, 흥분과 짜릿함 가치 높음.
김하나·최혜경 (2010)	미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성공을 위한 지위지향성 라이프스타일 강함	
김영신 외 (2004)	-가치관: 가족지향, 여권주의, 자유지향, 탈권위주의, 생활주의 -소비생활: 저가상품선호, 기능성 및 실용성 중시	
임미리 (2013)		-자신만을 위한 소비생활, 문화, 가격보다 개인 선호 중시
한정애 (2013)		-개인주의, 양성평등 의식 확산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2)		-거주 중심 주거관
임기현 (2013)		-전세 비중 상대적으로 높음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절 연구 문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돈과 행복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돈은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자원의 성격이 다르고, 소비자의 심리 계정 상에서 달리 인식될 수 있다. 돈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욕구충족의 결과물인 소비지출로 볼 수도 있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원인 소득, 자산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자원의 성격으로 볼 때 소득과 소비지출은 월 혹은 주 단위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의 자원 관리 조직 속에 흐르는 유량의 개념이며, 자산은 비축된 경제적 자원으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되는 저량의 개념이다. 또한 자산의 경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산이 충족시키는 소비자의 욕구 또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이 같은 경제적 자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성격의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자원을 소득, 자산(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 소비지출로 구분하고 각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둘째, 경제적 자원이 주는 효용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연령대를 생애주기를 대리하는 변수로 보고, 연령대에 따른 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정(+)적이나 그 영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행복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포화점 논쟁과 맞닿아 있다.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

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행복에 대한 포화점 논쟁은 경제적 자원의 증가에 따라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자원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행복이 증가하는지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소득, 자산, 소비지출의 행복에 대한 포화점 탐지를 시도해 봄으로써, 돈과 행복 간의 전반적 관계 뿐 아니라 경제적 자원의 증가에 따른 행복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소득과 행복의 관계는 어떠하며 포화점이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1-2. 자산과 행복의 관계는 어떠하며 포화점이 존재하는가?

- 연구문제 1-2-1. 금융자산과 행복의 관계는 어떠하며 포화점이 존재하는가?
- 연구문제 1-2-2. 실물자산과 행복의 관계는 어떠하며 포화점이 존재하는가?
- 연구문제 1-2-3. 순자산과 행복의 관계는 어떠하며 포화점이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1-3. 소비지출과 행복의 관계는 어떠하며 포화점이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연령대에 따른 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1. 연령대에 따라 소득과 행복의 관계는 어떠하며 포화점이 존재하는가?
- 연구문제 2-2. 연령대에 따라 자산과 행복의 관계는 어떠하며 포화점이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3-1. 연령대에 따라 금융자산과 행복의 관계는 어떠하며 포화점이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3-2. 연령대에 따라 실물자산과 행복의 관계는 어떠하며 포화점이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3-3. 연령대에 따라 순자산과 행복의 관계는 어떠하며 포화점이 존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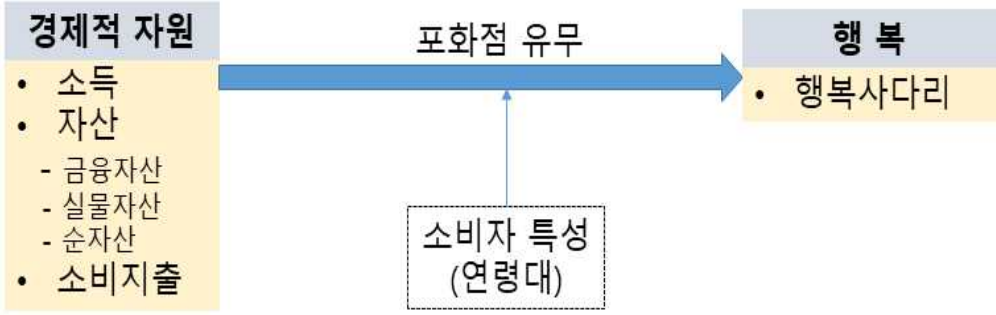
연구문제 2-2. 연령대에 따라 소비지출과 행복의 관계는 어떠하며 포화점이 존재하는가?

[연구문제3]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1. 소득, 자산, 소비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하며,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2. 연령대에 따라 소득, 자산, 소비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하며,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는 무엇인가?

<그림 3-1> 연구모형



제 2절 연구 방법 및 연구대상자의 특성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한국복지패널은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 패널 조사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료패널 조사 다음으로 규모가 큰 조사이다. 2006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 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학교의 복지패널을 통합하여 구축되었으며, 지역적으로 제주도를 포함하고 있어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조사라 할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90% 자료로부터 517개 조사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가구의 소득 및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등을 조사하고, 층화이중추출법을 이용하여 최종 패널 가구를 선정하였다. 표본 규모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표본의 특성 측면에서도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로 전국 지역별 가구 분표와 거의 유사하게 설계하였다.

이 자료는 11점 척도의 계단식 삶에 대한 평가 문항(행복사다리)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경제적 자원 변수들에 대해 경상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 소비지출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 자원 변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사다리' 문항이 포함된 2017년 12차 자료부터 2019년 14차 자료까지를 주된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019년 자료의 경우 조사 기준시점은 2018년이며, 조사 항목 중 유량(flow)의 경우 2018년 1~12월(1년), 저량(stock)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가구단위 조사와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총 6,331가구, 12,145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

복지패널의 연도별 자료는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한국복지패널 자료

조사시점	원표본 가구수	원표본 유지율	총표본 가구수
12차(2016)	4,398	62.19%	6,581
13차(2017)	4,266	60.32%	6,474
14차(2018)	4,124	58.31%	6,331

2. 변수의 구성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측정하는 문항을 행복을 설명하는 변수로 선택하였다. '삶의 사다리' 혹은 '행복사다리'로 명명되는 이 항목은, 캔트릴의 사다리 방식을 이용해 11점 척도로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한 문항이다.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밑(0: 삶에 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에서 꼭대기(10: 삶에 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이 같은 측정 방식은 조사대상자에게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를 묻는다는 점에서 행복의 인지적 영역에 대한 측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행복을 주제로 한 사회과학 연구들은 삶에 대한 평가,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인지적 영역에 대한 측정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다. '행복사다리'의 경우 갤럽월드폴(GWP)이 전세계 150여개국을 대상으로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UN의 행복보고서에서 주관적 웰빙 측정 지표로 포함되고 있으며, 여러 행복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Ng & Diener, 2014, Veenhoven 2004 등).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독립변수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경제적 자원으로, 소득, 소비지출, 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으로 구성하였다.

① 소득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가구의 경상소득 변수를 활용한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연단위로 측정되었다. 소득을 변수로 한 일부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개인별 소득의 효과를 통일하기 위해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루트값으로 나눠주는 균등화된 가구소득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상소득 이외의 다른 경제적 자원들도 변수로 활용하고, 기존 연구결과들과 비교 활용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제시한 경상소득 자체를 분석단위로 한다.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경상소득의 경우 고용주·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은 연간 순소득을 연간 총매출에서 연간 총비용을 빼준 값으로 계산하여 음의 값(-)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행복과의 관계 분석이나, 향후 추가적인 분석에서 해석 상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② 소비지출

한국복지패널에 포함된 생활비 측정 항목 가운데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하고 모두 더한 금액이다. 생활비는 월단위로 측정되었으며,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경조비, 종교관련, 비영리단체 이전지출)이 포함된다.

③ 금융자산

본 연구에서는 자산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분리하여 살펴본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은 저량(stock) 개념의 경제적 자원이라는 점에서 동질성을 지니고 있지만, 소비자의 심리 계정과 자산이 주는 효용 입장에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 실물자산에 비해 유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Shefrin & Thaler(1988)의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에 따른다면 금융자산이 실물자산보다 사용 유혹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채권·펀드, 계, 기타(사채 등)을 더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④ 실물자산

실물자산을 변수로 다루는 여러 선행연구들은 거주주택 및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기타자산(농기계, 농축산물,자동차,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운송 및 생계수단차량,귀금속, 골동품,상품권 등)의 금액을 모두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실물자산을 부동산 자산으로 한정하여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거주주택과 소유 부동산(주택, 주택외 건물, 토지),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사용한다.

⑤ 순자산

자산을 금융자산, 실물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 이외에, 소비자가 보유한 순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순자산은 금융자산, 실물자산과, 기타자산(농기계, 농축산물,자동차,운동클럽 등의 회원권,운송 및 생계수단차량, ,귀금속, 골동품,상품권 등)을 모두 합한 금액에 부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순자산의 경우 음(-)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회귀분석을 위해 변수를 로그 변환 혹은 제곱근 변환할 경우 0과 음수 항목들은 제외되었다.

(3) 통제변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개인차원의 인구사회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관계가 가구주의 연령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대의 구분은 박천규 외(2009), 김민철 외(2016)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가구주 연령에 따라 20-30대(39세 이하), 40대(40-49세). 50대(50-59세),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성별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Hayo & Siefert, 2003)와 여성의 행복수준이 남성보다 다소 높다는 연구결과(Easterlin, 2001)가 상존한다. 결혼상태는 대체로 기혼자가 그렇지 않은 상태보다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주를 이룬다(강성진, 2010; Hagerty, 2000; Oship & Kobayasi 2011 등).

경제활동상태 '일(work)'의 유무는 행복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rey & Stutzer, 2002). Clark & Oswald(1994)는 실업이 행복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이혼이나 친지의 죽음과 같은 개인적 상

실과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즉 일을 통해 얻는 심리적 만족감이 소득 이외에도 일을 통한 성취감이나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암시해 준다(구교준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종사상 직위를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교육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뚜렷하지 않으며, 정규교육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Furnham & Cheng, 2000 등). 본 연구에서는 최종학교 경험이 고등학교 미만과 그 이상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밖에도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건강상태, 종교유무, 기부여부,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거주지역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종교는 개인의 영적, 정서적 안녕을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류지아, 2016). 조승헌(2006)의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 유무를 이분 변수로 구성하여 모형에 추가하였다.

건강도 행복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로 꼽히는데,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Haller and Hadler, 2006, 류지아 2016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측정된 주관적 건강수준에 관한 항목을 사용한다. 원 자료에서는 '아주 건강하다' 1점~'건강이 아주 안좋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상기 기술한 변수들 이외에도 주거유형을 행복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자가 보유에 대한 선호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고,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이러한 성향이 심해지고 있다. 유을용·계선자(2008)의 연구에서는 주택소유가 주관적 복지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주택소유 여부가 소비자의 재무적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신효연, 2013). 이에 주택보유 여부는 국민의 삶의 질, 개인의 행복 차원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복지패널에서는 주택소유 여부를 묻는 문항이 존재하지 않아 주거유형을 주택소유 여부의 대리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주거유형은 자가 거주자, 전세, 월세·기타 거주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경제적 자원 변수에서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가구원수를 통제변수에 추가하였다. 2017~2019년 통합 자료를 사용할 경우 시간의 변화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신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연도를 시간더미 변수로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구분		측정방법
종속변수	행복 사다리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세요. 맨 꼭대기(10)는 삶에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는 귀하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조사 당일 현재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독립변수	소득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의 합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곗돈, 기타
	실물자산	주거 및 주거 외 부동산(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 전월세 보증금
	순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그리고 기타자산(농기계, 농축산물,자동차,운동클럽 등의 회원권,운송 및 생계수단차량, ,귀금속, 골동품,상품권)을 합한 것에서 부채를 제외한 값
통제변수	연령대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성별	1 남성 0 여성
	교육수준	0 전문대졸 이상 1 고졸이하
	결혼상태	1 기혼 0 미혼 및 기타
	종교유무	0 종교 없음 1 종교있음
	주관적 건강수준	5점 척도(역코딩) 1 아주 건강하다..... 5 건강이 아주 안좋다
	취업여부	1 임금근로자(참조변수), 2 자영업자, 3기타
	주거형태	1 자가(참조변수), 2 전세, 3월세·기타
	가구원수	연속변수
	시간더미	2017(참조변수), 2018, 2019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득, 자산, 소비지출과 행복의 관계 및 포화점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OLS 분석, 비선형 회귀분석,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방식 등을 사용하였다. 경제적 자원과 행복 변수의 전반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를 통합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포화점 도출을 위해서는 각 연도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령대별 경제적 자원 변수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 회귀계수에 대한 Chow-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방식과 사용 자료는 <표 3-4>와 같다.

<표 3-3>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방식과 사용 자료

연구문제	분석방식	사용 자료
1.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관계 및 포화점 도출	합동 OLS 회귀분석, 비선형회귀분석	2017-2019 통합자료 및 연도별 자료(2017-2019)
2.연령대별 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관계	two-way ANOVA, 합동 OLS, chow 검정	2017-2019 통합자료 및 연도별 자료(2017-2019)
3.경제적 자원의 행복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합동 OLS 회귀분석	2017-2019 통합자료

이밖에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측정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각 회귀모형은 분산팽창요인을 점검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였다.

(1) 합동 OLS 회귀분석

행복과 경제적 자원의 전반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취합한 자료에 대해 합동 OLS 회귀분석(pooled OLS)을 실시한다. OLS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오차가 적게 하는, 즉 잔차의 제곱합이 가장 적은 값을 갖는 회귀선으로 나타내어 변수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분석 기법이다(민인식, 최필선, 2009). 행복 변수는 미시계량적인 함수로 'Hit=α+βXit+εit'와 같이 모형화될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종속변수를 불연속적으로 보고, 프로빗이나 로짓을 이용하여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도 한다(서봉균, 2010, 정보람 2017). 그러나 Ferrer-i-Carbonell & Frijters(2004)는 경험적으로 볼 때 많은 경우 OLS 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로 근사값을 얻을 수 있고 추정한 계수들을 해석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Frey, 2008 재인용).

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전반적인 관계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자료는 2017~2019년간 데이터를 통합한 패널자료를 사용한다. 패널자료는 특정 개체에 대해 관측 시점이 여러 개인 시계열 데이터와 특정 시점에 관측되는 개체가 여러 개인 횡단면 데이터의 특성을 하나로 합쳐 놓은 자료이다. 패널자료 분석에는 보편적인 OLS 회귀분석(합동 OLS) 이외에 패널 자료의 특징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시점에 따른 개체의 변화를 파악하는 패널 분석보다 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전반적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후 <연구문제 3>에서 경제적 자원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을 위해 β 회귀계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편적 방식의 합동 OLS 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2의 경우 합동 OLS 이외에 패널 구조를 고려한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등 패널 분석을 함께 실시해 보았으며, 각 변수들의 유의성 판단에 있어 유사한 결과가 도출돼, 합동 OLS를 통해 결과를 제시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비선형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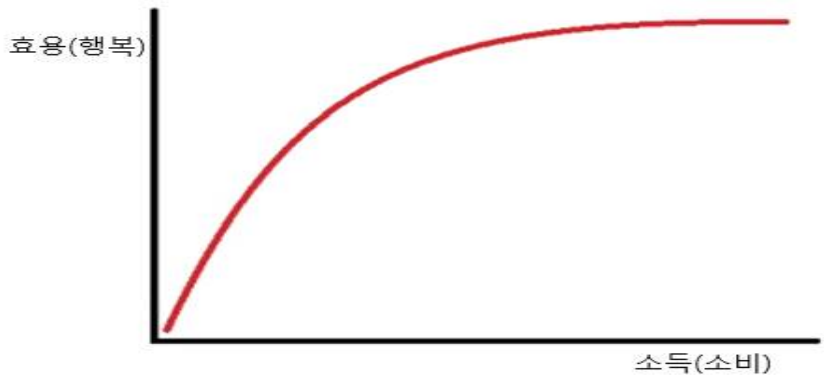
경제적 자원에 대한 행복의 포화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의 2차항을 함수에 추가하는 비선형회귀식을 구현하고, 편미분을 통해 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파악하였다.

경제적 자원에 대한 행복의 포화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석 방식을 사용한다. 첫째, 경제적 자원을 크기에 따라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 평균적인 행복값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는 방식이다. 소득의 포화점 탐지를 시도하거나(Kahneman & Deaton, 2010; 류지아, 2016; 정보람, 2017 등), 소득이 아니더라도 설명변수의 급격한 변화의 지점(변곡점) 탐색을 시도한 연구들(나운봉·손영석, 2006, 채은석·성영애, 2000 등)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기법을 통해 집단을 나누고 집단별 평균 차이를 판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방식은, 경제적 자원 변수와 행복 변수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구현하는 다차항 회귀방정식 모형을 세우고, 경제적 자원의 증가에 따른 행복의 증가분이 0이 되는 지점을 구하는 것이다(홍석동, 2016, 조혜진, 2017, Jebb et al, 2018.). 효용이론에 따르면 단위당 소득 혹은 소비가 주는 한계효용은 체감 형태를 띠며, 이에 따라 소득 혹은 소비의 증가에 따라 행복의 증가는 <그림 3-2>과 같은 곡선 형태를 띨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의 차수를 높인 다차항을 추가하여

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비선형적 관계를 구현하고,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즉 자원의 증가에 따른 행복의 증가분이 0이 되는 지점을 구하는 방식이다.

<그림 3-2> 소득(소비)와 행복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의 포화점 탐지를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두가지 방식을 모두 시도해 보았다. 실제 분석 결과, 구간을 구분하여 차이를 판별하는 방식은 어떻게 구간을 구분하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포화점은 경제적 자원의 증가에 따라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을 찾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는 경제적 자원 수준이 높은 집단의 행복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런데 분위를 구분할 경우 이 같은 고소득, 고자산 계층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행복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각 경제적 자원을 백분위를 기준으로 20분위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분위는 조사 대상자들의 경제적 자원의 최고값까지 포함하므로 그 범주가 매우 넓게 나타났다. 특히 자산의 경우 최고 구간에 포함되는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났다[6]. 따라서 최고 분위까지 행복 수준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면 포화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최고 구간의 범주가 넓고 그 안에 포화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연령대별로 포화점을 도출하고 비교·분석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분위별 분석을 통해 연령대별 차이를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 분위를 세분화하여 나눌 경우, 연령대별로 분위별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상자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경우가 나타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다차항 회귀방정식을 세우고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포화점으로 찾는 두 번째방식은 구체적인 포화 지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는 데에서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 방식은 한계효용이 0이 되는 지점을 포화점으로 탐지하기 때문에 이때 총효용, 즉 행복은 극대값이 되고 이후 행복은 극대 지점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행복이 최고점에 이르는 지점을 탐지하므로 구간별 차이를 판별하는 방식에 비해 도출된 결과값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게 된다.

두 가지 방식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실제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시사점 도출에 있어서 구간별 분석은 본래의 포화점의 도출 목적을 구현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식, 즉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한계효용이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방식으로 포화점을 모색하였다.

그런데 이 방식을 통해 포화점 탐색을 시도한 선행 연구들은 변수의 처리와 분석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행복에 대한 소득 포화점을 탐색한 홍석동(2016)의 경우 소득 변수를 로그화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소득의 제곱항을 추가하는 2차 함수 모형을 설정하였다. 전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포화점을 탐색한 Jebb et

6) 상하위 1%의 outlier를 제거한 이후에도 201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20분위로 구분하면 금융자산의 최고 분위는 2억2,080~10억9035만원, 실물자산 10억4000만원~78억원, 순자산은 10억7,977~75억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al.(2018)의 경우 소득을 로그변환한 뒤, 3차 이상의 다차항 모형을 구현하는 3차 스플라인 회귀 방정식을 구현하고 포화점을 탐지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같은 경제적 변수를 회귀방정식에 사용할 경우 변수의 정규성을 확보하고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변수를 로그 변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경제적 자원 변수를 로그 변환하여 독립 변수의 제곱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2차 방정식을 구현한 결과, 경제적 자원의 증가에 따라 행복의 증가분이 감소하는 한계체감적인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행복과 경제적 자원의 관계가 그만큼 직선 형태에 가까움을 시사할 수도 있으나, 경제적 자원 변수를 로그 변환하면서 변수간의 비선형적 관계가 선형적으로 변하는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소득에 대한 행복의 포화점 탐색을 시도한 홍석동(2016), 조혜진(2017)의 연구에서는 소득 변수를 로그화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행복 변수와의 비선형적 관계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Jebb et al.(2018)은 소득 변수를 로그 변환하는 대신 독립변수의 구간을 구분하고 기저함수를 두는 방식으로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을 구현하는 스플라인 3차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스플라인 회귀분석(Spline regression)은 독립변수의 전체 구간을 몇 개의 구간으로 쪼개어 각각의 구간에서 모형을 보간법(interpolation[7])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회귀분석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변수간의 비선형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기존 변수의 차수를 높이는 다차항(X^2, X^3...)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한다. 그런데 차수를 지나치게 높이면 관측치가 멀리 떨어진 곳의 함수 추정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치 않는 모양의 회귀함수 모양이 나타날 수 있

7) 보간법(interpolation): 나와 있는 데이터 값들을 이용하여 데이터 점들 사이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중간값을 추정하는 방법.

다. 이러한 연유로 일반적으로 3, 4차 이상의 모형은 잘 쓰지 않는다(이재용, 2015). 3차 스플라인 회귀분석(cubic spline regression)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X, X^2, X^3만을 가지고 있는 삼차 다항식에서 각 knot마다 부드럽게 연결되기 위해 2차 미분(d-1차 미분)이 가능하도록 기저함수(truncated power basis function)를 추가하는 분석방식이며 스플라인 회귀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8].

스플라인 3차 회귀분석은 3차 이상의 다차 방정식에 비해 안정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함수의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외측 범위, 즉 x가 매우 작거나 매우 큰 값을 취할 때 분산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분석에서 스플라인 3차 회귀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를 포화점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편미분을 통해 포화점을 도출하고자 할 경우 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게 되고, 이는 결국 행복의 극대점을 찾게 되는 방식이다. 3차 스플라인 분석 방식의 경우 여러 번의 변곡점을 허용하는 형태로,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소수의 고자산, 고소득자들의 데이터에 의해 결과값이 결정되면서 포화점이 매우 높게 나오거나,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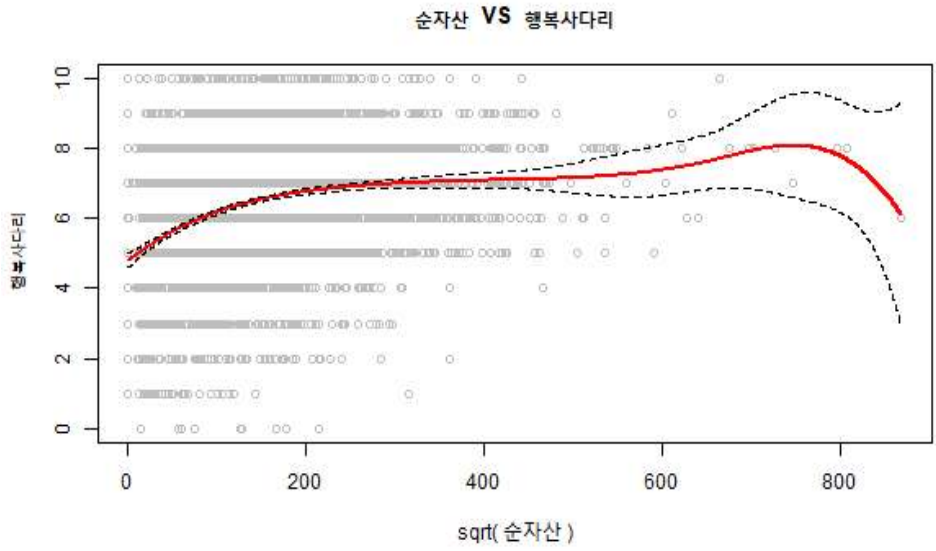
아래 도표는 통계프로그램 R에서 제공하는 bs 스플라인 방식을 통해 순자산과 행복사다리의 관계를 도표화한 것이다. 가운데 붉은 선이 회귀그래프이며, 굵은 선을 감싼 점선 사이의 영역이 95% 수준의 신뢰구간이다. 포화점은 그래프 상 극대값지점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때 소수의 고자산 소비자들에 의해 상당히 높은 값(제곱근 745 지점)에서 해가 도

8) 스플라인 회귀분석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참고하였다.

https://godongyoung.github.io/%EB%A8%B8%EC%8B%A0%EB%9F%AC%EB%8B%9D/2018/02/14/ISL-Moving-Beyond-Linearity_ch7.html
http://www.stat.cmu.edu/~ryantibs/advmethods/notes/smoothspline.pdf
https://www.hds.utc.fr/~tdenoeux/dokuwiki/_media/en/splines.pdf
이재용(2015) 비선형회귀분석모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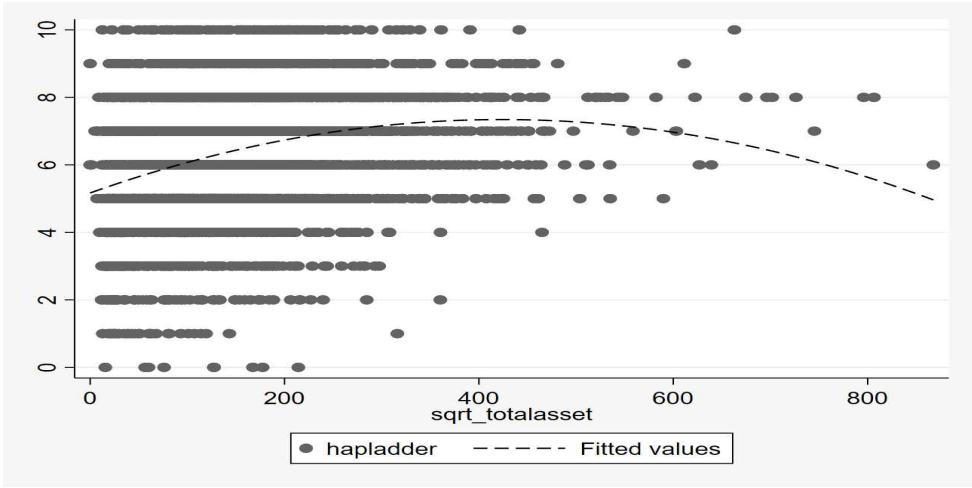
출된다. 그런데 도표 상에서 나타나듯, 그래프의 기울기가 꺾이는 극대 지점은 표본수가 작아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림 3-3> 순자산과 행복의 관계 (스플라인 3차 회귀분석)



독립변수의 제곱항(X^2)을 추가한 2차 방정식을 구현할 경우 1회의 극대점을 허용하며, 스플라인 회귀분석 그래프의 95% 신뢰수준 아래 점선에 가까운 모형을 구현하게 된다. 실제 동일한 두 변수의 관계를 2차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3-3>과 같다. 이때 포화점은 제곱근 기준 424 지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3-4> 순자산과 행복의 관계 (2차항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2차 방정식을 통해 도출되는 값을 포화점으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구현한 식은 다음과 같다.

$$Y=\beta_0+\beta_1 X_i+\beta_2 X_i^{2+}\Sigma\beta_j Z_j+\varepsilon_i$$

Y: 행복사다리

Xi: 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 소비지출

Zj: 연령대,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수준, 종사상 직위, 주거형태, 가구원수, 시간더미

εi: 잔차항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경우, 상하위 0.1%에 해당하는 이상치를 제거하고, 하위 5%를 절단하는 전처리 후 소득, 소비지출 데이터에 대해 분포의 정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의 경우

변수의 편차가 커서 변수 변환 조치가 필요했으며, 이에 로그 변환 이외에 변수를 변환하는 방법인 제곱근화를 통해 정규성을 확보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9].

9) 회귀분석에서 변수가 정규적 혹은 대칭적으로 분포되지 않았을 때, 대칭적인 분포를 갖도록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 변수의 정규분포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로그 변환, 제곱근 변환을 많이 사용한다(이성용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로그 변환시 종속변수에 미치는 한계체감적 영향이 잘 드러나지 않아, 자산의 경우 제곱근 변환을 이용하였다.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017~2019 자료를 통합한 자료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적 특성은 <표 3-4>와 같다. 가구주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결측치와 이상치를 제외한 분석대상은 총 13,398명이다. 이 중 20-30대 1,560명(11.6%), 40대 2,487명(18.6%), 50대 2,586명(19.3%), 60대 이상 6,765명(50.5%)으로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기준으로 남성 가구주가 73.6%, 여성 가구주가 26.4%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가 93.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졸 이하 집단은 6.7%로 조사되었다. 결혼상태는 기혼 65.1%, 미혼 및 기타 34.9%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집단 47.1%, 없는 집단 52.95%, 종사상 직위는 임금근로자 46.1%, 자영업 22.4%, 일용직 및 기타 31.5%를 차지하였다. 주거형태별로 보면 자가 거주자 68.3%, 전세 12.4%, 월세 및 기타 19.4%로 나타났다.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이 11.9%, 없는 사람이 88.1%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5점만점에 평균 3.22 수준으로 나타났고, 가족관계 만족도는 7점 만점에 4.32, 주거환경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78로 나타났으며, 가구원수는 평균 2.40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3-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N	비고	단위
연령대	20-30대	1,560	11.64	%
	40대	2,487	18.56	%
	50대	2,586	19.30	%
	60대 이상	6,765	50.49	%
성별	1 남성	9,859	73.59	%
	0 여성	3,539	26.41	%
학력	1 전문대졸 이상	12,502	93.31	%
	0 고졸이하	896	6.69	%
결혼상태	1 기혼	8,722	65.10	%
	0 미혼 및 기타	4,676	34.90	%
종교유무	1 있음	6,311	47.10	%
	0 없음	7,087	52.90	%
종사상 직위	1 임금근로자	6,171	46.06	%
	2 자영업	3,006	22.44	%
	3 기타	4,221	31.50	%
주거형태	1 자가	9,154	68.32	%
	2 전세	1,658	12.37	%
	3 월세 및 기타	2,586	19.30	%
기부경험	1 있음	1,598	11.93	%
	0 없음	11,800	88.07	%
지역	서울	9385	14.58	%
	광역시·시	40559	63.01	%
	균·도농복합	14425	22.41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주관적 건강수준	3.30	1.003	1	5
가족관계	4.32	1.582	0	7
주거환경	2.78	0.565	0	4
가구원수	2.40	1.282	1	9

(2) 연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경제적 자원 변수, 즉 소득, 소비지출, 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 등은 다음 <표 3-5>와 같다. 소득은 연단위로 측정되었으며 평균 4,839만원으로 나타났고, 소비지출은 월단위로 측정되어 평균 29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금융자산은 평균 5,712만원, 실물자산은 평균 2억8,214만원, 순자산은 3억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3-5>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소득(연간/만원)	4,839.66	4,076.10
소비지출(월간/만원)	290.59	199.97
금융자산(만원)	5,712.13	10,152.51
실물자산(만원)	28,214.02	41,372.98
순자산(만원)	30,004.94	37,520.25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가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의 경제적 자원 분포를 대표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자료와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2019) 자료 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두 자료의 평균, 중위값과 각 경제적 변수를 백분위 비율에 따라 20분위로 나누고, 분위별 경계값을 표시한 값은 <표 3-6>과 같다.

비교 결과 소득, 금융자산의 경우 가계금융조사의 평균 및 중위값이 복지패널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 소비지출(복지패널 자료는 월단위로 가계금융조사와 비교를 위하여 연단위로 환산)은 한국복지패널이 가계금융조사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실물자산의 경우 평균값과 중위수 모두

두 조사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20분위의 경계 값은 조사 대상자의 가운데 최고 값을 의미하는데, 가계금융조사가 복지패널 보다 높게 나타나며 특히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경우 두 자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를 보면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고소득/고자산 계층이 가계금융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편입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 분위의 경계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위의 경우 두 자료가 대체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복지패널 자료가 대한민국 소비자의 경제적 변수들을 대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6> 한국복지패널(A)과 가계금융복지조사(B)의 분위별 경계값

(단위: 만원)

분위	소득		소비지출		금융자산		실물자산	
	A	B	A	B	A	B	A	B
1	812	702	768	525	50	34	500	100
2	1,024	958	957	686	150	100	1,401	500
3	1,253	1,253	1,150	860	250	220	2,800	1,540
4	1,486	1,581	1,344	1,030	380	416	4,501	3,000
5	1,768	1,947	1,560	1,200	500	700	6,500	5,000
6	2,062	2,347	1,797	1,377	720	1,072	8,301	7,091
7	2,392	2,768	2,052	1,550	1,000	1,500	10,449	9,622
8	2,801	3,172	2,288	1,738	1,300	2,010	13,050	12,000
9	3,277	3,642	2,583	1,922	1,650	2,550	15,500	15,000
10	3,781	4,114	2,928	2,114	2,104	3,200	18,228	17,600
11	4,423	4,598	3,324	2,316	2,858	3,951	20,801	20,500
12	4,939	5,096	3,648	2,523	3,300	4,770	24,255	24,000
13	5,521	5,964	4,022	2,770	4,101	5,688	27,408	27,800
14	6,123	6,374	4,440	3,043	5,200	6,760	31,765	32,500
15	6,860	7,181	4,812	3,354	6,330	8,126	37,501	38,800
16	7,612	8,147	5,304	3,680	8,060	9,960	45,501	47,000
17	8,592	9,390	5,996	4,100	10,520	12,425	57,000	58,387
18	9,951	11,103	6,768	4,726	14,388	17,056	74,111	76,800
19	12,158	14,271	7,956	5,770	23,031	26,900	109,860	118,325
20	170,204	251,794	20,496	28,750	194,180	973,380	781,500	1,340,000
평균	4,814	5,413	3,432	2,493	5,751	7,543	31,917	33,286
중위값	3,640	4,114	2,784	2,114	2,104	3,200	18,228	17,600

(3) 연구대상자의 행복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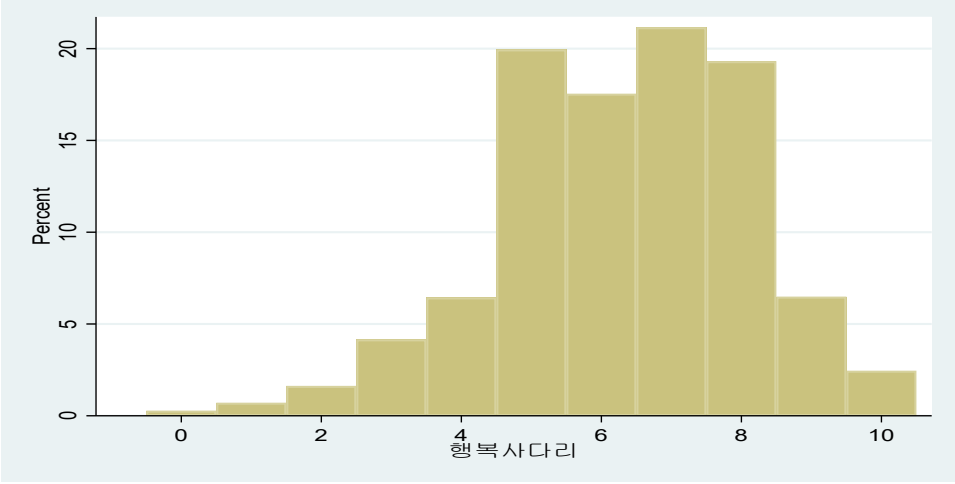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행복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3-7>과 같다.

<표 3-7> 조사대상자의 행복 수준

행복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행복사다리 (11점)	6.10	1.83	0	10

행복사다리로 측정한 연구대상자의 행복수준을 보았을 때 평균 6.10(11점 척도)로 중간점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행복수준별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림 3-4>와 같다.

<그림 3-5> 행복수준의 분포



5. 변수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측정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8>과 같다. 설명변수인 행복사다리와 독립변수인 소득, 소비지출, 금융자산, 순자산 간에는 .307～.392 사이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국가들(.28～.52)과 미국(.40 미만)의 소득과 소득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Gawirowska, 2015)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측정변수 가운데 소득과 소비지출(상관관계 .885), 순자산과 실물자산(.923), 순자산과 금융자산(.686)을 제외하고는 상관계수가 0.6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비지출과 소득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동일한 유량 개념의 자원으로 소비지출이 소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순환적 자원의 개념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순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합한 금액에 부채를 제한 금액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순자산을 구성하는 하위변수이기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순자산과 실물자산은 상관관계가 0.9이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의 자산 구성이 실물자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경제적 자원변수를 별도로 행복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며, 경제적 자원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에서는 소득과 소비지출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순자산도 금융자산, 실물자산과 분리하여 사용하므로, 분석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변수의 분산팽창요인(VIF)은 1.04～3.36을 나타내어 다중공선성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8>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X1	X2	X3	X4	X5	X6	X7	X8
X1	1.00							
X2	.392	1.00						
X3	.362	.885	1.00					
X4	.337	.558	.505	1.00				
X5	.307	.460	.444	.525	1.00			
X6	.334	.490	.462	.686	.923	1.00		
X7	.354	.471	.444	.272	.184	.203	1.00	
X8	.365	.388	.404	.315	.444	.437	.127	1.00
X9	.108	.142	.134	.099	.122	.122	.122	.089

X1: 행복사다리 X2: 소득(로그값) X3: 소비지출(로그값) X4:금융자산(로그값) X5: 실물자산(로그값) X6: 순자산(로그값) X7: 주관적 건강상태 X8: 가족관계 만족 X9:주거환경 만족

제 4 장 연구결과

제 1절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연구문제는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 자산(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 소비지출 등 각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 경제적 자원마다 행복에 대한 포화점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변수의 전반적인 관계 분석은 2017~2019년 통합 자료에 대해 합동 OLS 분석을 실시하였고, 포화점 탐지는 각 연도별 자료에 대해 독립변수의 2차항을 추가한 비선형회귀분석(2차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1>은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각 경제적 자원마다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소득이 늘면서 행복이 증가하는 정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소득이 증가하면서 행복의 증가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포화점의 존재 유무로 파악하고 그 지점이 어디가 될지 모색하고자 하였다.

(1) 소득과 행복의 관계 분석

첫 번째 가설인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7~2019년 통합 자료에 대해 합동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1>와 같다.

<표 4-1> 소득과 행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행복사다리		<모형 1>	<모형 2>
소득(로그값)		.822***	.497***
연령 30대=1	40대		-.398***
	50대		-.811***
	60대		-.777***
주관적 건강			.372***
성별 (남성=1)			.014
혼인상태 (기혼=1)			-.370***
종교유무 (있음=1)			.165***
임금 근로=1	자영업		-.066*
	무직		-.180***
교육수준 (대졸=1)			.145***
주거형태 (자가=1)	전세		-.128***
	월세기타		-.254***
기부여부 (기부유=1)			.445***
가구원수			-.368***
가족관계			.461***
주거환경			.104***
연도 2016=1	2017		.171***
	2018		.106***
서울=1	광역시·시		-.004
	군·도농복합		.090*
상수		-.454	-.095
R^2		0.158	0.2844
Adjusted R^2		0.158	0.2825
F값		2,513.99***	303.94***

먼저 통제변수들을 추가하지 않고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형 1>), 소득은 행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822, p<.000) 모형에 대한 설명력(R^2)은 0.158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소득이 행복 변수의 차이를 15.8% 정도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2>는 행복에 영향을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이 행복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분석결과 소득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인 행복사다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B=.497, p<.000), 절대적인 소득의 양이 증가할수록 행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수준은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자신의 건강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할수록 행복수준이 높아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가 대체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행복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혼인 상태는 기혼자가 기타 집단에 비해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경제활동 상태, 거주형태, 종교유무, 기부여부는 행복 변수에 대해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와 무직자에 비해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거주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자가거주자가 전세 및 월세·기타 거주자에 비해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높고, 기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관계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행복 수준에 대체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관계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대졸 집단이 기타 집단에 비해 행복 수준이 높았다. 가구

원수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행복수준이 낮아졌다. 연도더미는 2016년을 참조변수로 하였는데, 대체로 양의 값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복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다른 경제적 자원 변수들에서 대한 통제 변수 분석 결과도 이와 유사하여 생략하기로 한다.

(2) 행복에 대한 소득의 포화점 탐색

<연구문제 1-1>의 두 번째 가설은 소득에 대한 행복의 포화점 유무를 탐지하는 것이다. 포화점 탐색을 위해서는 각 연도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포화점은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인데, 패널자료의 경우 연도더미를 추가한다 해도 도출된 값이 어느 시점의 포화점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며, 해당 연도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2019년 자료의 경우 소득의 행복에 대한 포화점은 1억4,320만원(연소득 기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7, 2018년도 자료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연도별 비교를 위해 도출된 포화점 값을 2020년 화폐가치로 변환하여 해당 연도 평균 소득 대비 비율과 함께 표기하였다.

<표 4-2> 소득에 대한 연도별 포화점 탐지 결과 (연소득 기준)

연도	소득 포화점 (만원)	2020년 화폐가치[10] (만원)	평균 대비 (배)
2019	14,320	14,391	3.20
2018	18,816	18,910	4.29
2017	17,610	18,032	4.17

10) 2020년을 기준으로 비교연도의 화폐가치 변화율을 의미함. 통계청 소비자물가 사이트

분석결과 2017~2019년까지 각 연도별 자료에 대해 소득에 대한 행복의 포화점이 도출되었으며, 그 비율은 해당연도 평균 소득의 3.2~4.2배로 나타났다. 2019년은 다른 연도에 비해 포화점이 다소 낮게 도출되었는데, 조사연도가 길지 않아 이것이 추세적인 것인지 해당 연도의 일시적인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에 대한 행복의 포화점 유무를 파악하고자 했던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면, 홍석동(2016)의 경우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균등화 소득에 대한 포화점을 도출하였는데, 소득의 행복에 대한 포화점이 9천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경우 1998~2012년 자료를 통합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 다소 무리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고 도출된 포화점을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억9,400만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11]. 본 연구의 2017년 포화점 도출결과(1억7,610만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긴 하나, 상당히 유사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두 결과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1억 후반에서 2억원 사이가 포화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포화점 모색을 시도한 다른 연구들의 경우(김충선, 2015; 류지아, 2016; 정보람, 2017) 구간별 차이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포화점을 탐지하고자 시도하였다. 정보람(2017)의 연구에서는 월소득 500만원을 포화점의 기점으로 보았고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6천만원 정도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분석 대상 자료가 상이한 영향도 있겠지만, 분석방식의 차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간을 구분하여 포화점을 파악할 경우, 최고

참조 http://kostat.go.kr/incomeNcpi/cpi/cpi_ep/2/index.action?bmode=pay)

11) 홍석동(2016)의 연구에서 가구균등화소득은 소득/$\sqrt{\text{가구원수}}$ 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를 위하여 가구균등화소득을 변수로 하여 도출된 포화점 결과에 $\sqrt{\text{가구원수}}$(4인 가구의 경우 x2)로 대략적인 값을 추산하였다.

소득 구간 대비 유의하지 않은 구간을 찾는 방식이기 때문에, 행복의 극대 지점을 찾는 방식에 비해 낮은 금액대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류지아(2017)의 연구에서서는 주요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득 3분위(월소득 300~450만원)부터 계층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의 분석에서는 최상위층(900만원 이상)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포화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소득의 경우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포화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수준은 해당연도 평균 소득의 3.2~4.2배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 금융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2>는 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행복에 대한 포화점 존재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산과 행복의 관계는 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2-1>은 금융자산이 행복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금융자산은 실물자산보다 유동성이 높으며, 소비자 입장에서 재무적 충격 흡수를 위한 비상자금, 여유자금의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가계의 적정 재무비율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자산 가운데 금융자산의 비중 등에 대한 준거지침을 제시하기도 한다(양세정 외, 2013 등). 이 같은 성격을 지닌 금융자산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앞 절의 소득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한다. 첫째, 금융자산이 늘면서 행복이 증가하는 정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검증하고, 둘째, 금융자산의 행복에 대한 포화점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 그 지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1) 금융자산과 행복의 관계 분석

먼저 합동 OLS 회귀분석을 통해 금융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 금융자산과 행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행복사다리		<모형 1>	<모형 2>
금융자산(로그값)		.343***	.157***
연령 30대=1	40대		-.428***
	50대		-.824***
	60대		-.965***
주관적 건강			.370***
성별 (남성=1)			.052
혼인상태 (기혼=1)			-.372***
종교유무 (있음=1)			.197***
임금 근로=1	자영업		-.110**
	무직		-.295***
교육수준 (대졸=1)			.200***
주거형태 (자가=1)	전세		-.140***
	월세기타		-.386***
기부여부 (기부유=1)			.472***
가구원수			-.245***
가족관계			.449***
주거환경			.104***
거주지 (서울=1)	광역시·시		-.021
	군·도농복합		.003
연도 (2016=1)	2017		.186***
	2018		.115***
상수		3.711	2.647
R^2		0.121	0.305
Adjusted R^2		0.121	0.304
F값		1,800.89***	325.71***

통제변수들을 추가하지 않고 금융자산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면(<모형 1>), 금융자산은 행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343, p<.000) 모형에 대한 설명력(R^2)은 0.121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금융자산이 행복 변수의 차이를 12.1% 정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형 2>는 행복에 영향을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금융자산이 행복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금융자산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인 행복사다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B=.157, p<.000), 절대적인 금융자산의 양이 증가할수록 행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금융자산의 행복에 대한 포화점 탐색

다음으로 금융자산의 행복에 대한 포화점을 유무와 그 지점을 탐지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금융자산의 연도별 포화점 탐지 결과

연도	금융자산 포화점 (만원)	2020년 화폐가치 (만원)	평균대비 (배)
2019	45,513	45,740	8.48
2018	88,055	88,847	16.83
2017	53,705	54,993	11.43

분석 결과 2019년의 경우 금융자산의 포화점은 약 4억 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2017, 2018년은 5억3천만원, 8억8천만원으로 2019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탐지되었다. 연도별로 금액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금융자산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행복에 대한 포화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

으며, 이로써 <연구문제 1-2-1>의 두 번째 가설은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자산의 포화점 금액은 해당연도 금융자산 평균의 8.4~16.8배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의 평균은 5,352만원, 중위값은 2,000만원 수준이다. 4억5천만원은 상위 1~2%에 속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금액이다. 즉 금융자산에 포화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상위 1~2%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산의 증가에 따라 행복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 실물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2-2>는 실물자산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앞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실물자산이 늘면서 행복이 증가하는 정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 첫 번째 가설이며, 실물자산의 행복에 대한 포화점의 존재 유무로 파악하고 그 지점이 어디가 될지 모색하는 것이 두 번째 연구가설이다.

(1) 실물자산과 행복의 관계 분석

첫 번째 연구가설인 실물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합동 OLS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통제변수들을 추가하지 않고 실물자산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면(<모형 1>), 실물자산은 행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355, p<.000) 모형에 대한 설명력(R^2)은 0.107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실물자산이 행복 변수의 차이를 10.7% 정도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 절의 분석결과들과 비교할 때, 소득(15.8%), 금융자산(12.1%)에 비해 행복에 대한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 2>는 행복에 영향을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물자산이 행복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실물자산은 종속변수인 행복사다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절대적인 소득의 양이 증가할수록 행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151, p<.000).

<표 4-5> 실물자산과 행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행복사다리		<모형 1>	<모형 2>
실물자산 (로그값)		.355***	.151***
연령 30대=1	40대		-.409***
	50대		-.779***
	60대		-.935***
주관적 건강			.388***
성별 (남성=1)			.128**
혼인상태 (기혼=1)			-.354***
종교유무 (있음=1)			.153***
임금 근로=1	자영업		-.186***
	무직		-.327***
교육수준 (대졸=1)			.247***
주거형태 (자가=1)	전세		-.065
	월세기타		-.021
기부여부 (기부유=1)			.500***
가구원수			-.248***
가족관계			.438***
주거환경			.077**
서울=1	광역시·시		.015
	군·도농복합		.047
연도 2016=1	2017		.194***
	2018		.136***
상수		2.937	2.449
R^2		0.107	0.2990
Adjusted R^2		0.107	0.2981
F값		1605.73***	328.44***

한편 실물자산의 경우 통제변수 가운데 주거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실물자산은 부동산 자산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부동산 자산의 영향력을 통제할 경우 주거형태에 따른 행복 수준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실물자산의 행복에 대한 포화점 탐색

다음으로 주요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물자산의 포화점을 탐지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분석결과 실물자산의 행복에 대한 포화점은 2018, 2019년의 경우 약 30억원에 이르고, 2017년은 그보다 높은 약 42원으로 도출되었다. 해당연도 평균 대비 비율로는 약 10.1~16.1에 해당한다.

<표 4-6> 실물자산의 포화점 탐지 결과

(단위: 만원, 배율)

연도	실물자산 포화점 (만원)	2020년 화폐가치 (만원)	평균 대비 (배)
2019	299,028	300,523	10.15
2018	289,511	292,116	10.39
2017	422,668	432,812	16.17

실물자산의 포화점이 도출되었으므로, 포화점의 존재에 대한 가설이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물자산도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포화점 금액이 해당연도 평균의 10~16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백분위 기준으로 상위 1%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즉 실물자산의 포화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수준은 일반 소비자들이 도달하기 쉽지 않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영역에서 실물자산의 증가에 따라 행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순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2-3>는 순자산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순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기타자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제한 금액으로 현 시점에서 소비자가 보유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

순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두 가지 가설을 통해 살펴본다. 순자산이 늘면서 행복이 증가하는 정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 첫 번째 가설이며, 순자산에 대한 행복의 포화점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 그 지점을 모색하는 것이 두 번째 연구가설이다.

(1) 순자산과 행복의 관계 분석

첫 번째 가설인 순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합동 OLS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통제변수들을 추가하지 않고 순자산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면(<모형 1>), 실물자산은 행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410, p<.000) 모형에 대한 설명력(R^2)은 0.116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순자산이 행복 변수의 차이를 11.6% 정도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경제적 자원과 비교하면, 소득(15.8%)보다는 행복에 대한 설명력이 다소 낮으며, 금융자산(12.1%)과 실물자산(10.7%)의 중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모형 2>는 행복에 영향을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순자산이 행복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순자산은 종속변수인 행복사다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절대적인 소득의 양이 증가할수록 행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230, p<.000).

<표 4-7> 순자산과 행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행복사다리		<모형 1>	<모형 2>
순자산(로그값)		.410***	.230***
연령 30대=1	40대		-.389***
	50대		-.729***
	60대		-.912***
주관적 건강			.376***
성별 (남성=1)			.101*
혼인상태 (기혼=1)			-.355***
종교유무 (있음=1)			.139***
임금근로=1	자영업		-.254***
	무직		-.325***
교육수준 (대졸=1)			.275***
주거형태 (자가=1)	전세		-.015
	월세기타		.101*
기부여부 (기부유=1)			.465***
가구원수			-.247***
가족관계			.435***
주거환경			.079**
서울=1	광역시·시		.083*
	군·도농복합		.095
연도 2016=1	2017		.177***
	2018		.122***
상수		2.350	1.642
R^2		0.116	0.314
Adjusted R^2		0.116	0.313
F값		1720.25***	283.12***

(2) 순자산의 행복에 대한 포화점 탐색

두 번째 연구가설은 순자산의 포화점 유무를 파악하고 그 지점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 앞 절과 동일한 방식으로 순자산의 포화점을 도출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 순자산의 포화점 탐지 결과

연도	순자산 포화점 (만원)	2020년 화폐가치 환산(만원)	평균 대비
2019	270,468	271,810	8.49
2018	221,225	223,216	5.52
2017	279,599	286,309	9.86

순자산은, 금융자산, 실물자산에 비해 연도별 포화점 탐지 금액이 비교적 일관되며, 그 규모는 약 22억~27억원에 이르고 있다. 해당연도 순자산 평균 대비로는 5.5~9.8배 수준이다.

자산은 현재의 욕구 충족보다 미래를 위한 대비, 투자 성격이 강하다. 행복이 과거,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Ttarkiewicz(1966)는 현재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포화점 분석에 있어서 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 모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도출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산이 많을수록 행복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돈과 행복의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의 욕구 충족을 위해 돈을 쓰는 것 뿐 아니라, 재무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자유(financial freedom), 미래를 위한 투자 등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5. 소비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3>은 소비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소비지출은 소득과 함께 유량 개념의 자원이지만, 소득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의 성격이라면, 소비지출은 욕구 충족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소비자의 심리 계정 상으로 보자면, 소득이 '버는 돈'이라면 소비는 '쓰는 돈'에 해당한다.

이 같은 성격을 지닌 소비지출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앞 절에서와 같이 두 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소비지출이 늘면서 행복이 증가하는 정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연구가설이며, 소비지출의 행복에 대한 포화점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 그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 연구가설이다.

(1) 소비지출과 행복의 관계 분석

첫 번째 가설인 소비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합동 OLS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통제변수들을 추가하지 않고 소비지출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면(<모형 1>), 소비지출은 행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892, p<.000) 모형에 대한 설명력(R^2)은 0.131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소비지출이 행복 변수의 차이를 13.1% 정도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같은 유량 개념의 자원이 소득(15.8%)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모형 2>는 행복에 영향을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비지출이 행복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소비지출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인 행복사다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양의 값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나(B=.497, p<.000), 절대적인 소비지출의 양이 증가할수록 행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소비지출과 행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행복사다리		<모형 1>	<모형 2>
소비지출 (로그값)		.892***	.497***
연령 30대=1	40대		-.396***
	50대		-.800***
	60대		-.784***
주관적 건강			.389***
성별 (남성=1)			.037
혼인상태 (기혼=1)			-.367***
종교유무 (있음=1)			.163***
임금 근로=1	자영업		-.092**
	무직		-.269***
교육수준 (대졸=1)			.142***
주거형태 (자가=1)	전세		-.140***
	월세기타		-.386***
기부여부 (기부유=1)			.475***
가구원수			-.374***
가족관계			.463***
주거환경			.114***
서울=1	광역시·시		-.018
	군·도농복합		.073
연도 2016=1	2017		.172***
	2018		.111***
상수		1.403	1.134
R^2		0.131	0.3067
Adjusted R^2		0.131	0.3060
F값		2,034.66***	396.32***

(2) 소비지출의 행복에 대한 포화점 탐색

두 번째 가설은 소비지출의 포화점 존재를 파악하고, 그 지점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 소비지출의 행복에 대한 포화점을 탐지한 결과는 <표 4-10>과 같다.

<표 4-10> 소비지출의 연도별 포화점 탐지 결과(월단위)

연도	소비지출 포화점 (만원)	2020년 화폐가치 변환 (만원)	평균대비 (배)
2019	952	960	3.52
2018	986	994	3.70
2017	866	886	3.35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소득은 연단위, 소비지출은 월단위로 측정되었다. 201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소비지출의 포화점은 월 952만원으로 탐지되었다. 2017, 2018년도에도 포화점이 도출되었으며, 해당 연도 평균 소비지출 대비 비율로는 3.3~3.7배로 나타났다. 앞 절의 소득, 자산에 비해 연도별로 포화점 탐지 금액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지출의 경우 직접적으로 포화점 탐색을 시도한 연구가 없지만, 한국노총이 발표하는 표준생계비와 비교해볼 수 있다. 표준생계비는 노동자 가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로 사회 내에서 물질적 풍요의 절대성과 상대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비용으로 정의된다(이정아 외, 2018). 최저생계비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면, 표준생계비는 일정한 생활조건에 대한 표준적인 소비유형을 가정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있어야 할' 생계비로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

철수, 2009). 표준생계비는 한국노총 조합원 실태조사와 소비자 물가조사에 기반하여 설계되며,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위생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잡비, 재세공과금 등 본 연구에서 정의한 소비지출 항목과 유사하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2019년 표준생계비 수준은 <표 4-11>과 같다.

<표 4-11> 연도별 표준생계비 (단위: 만원, 월단위)

구분	1인	2인	3인	4인
2017	215.83	355.75	445.26	509.91
2018	218.98	361.70	455.15	518.54
2019	225.72	394.61	464.95	583.87

출처: 이정아 외(2018)

연도별 표준생계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인~4인가구의 표준생계비 금액이 월 225만원~583만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포화점 도출 결과와 표준생계비 측정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누리기 위해서 가구원수에 따라 월 200~500만원의 소비지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월 500만원 이상의 소비지출에도 행복 수준은 증가하며, 이후 소비지출의 증가에도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은 월 소비지출 기준으로 900만원대에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포화점 도출 금액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소비지출 증가에도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포화점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지출이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포화점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 2절 연령대에 따른 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관계 분석

본 절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대에 따라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 분석 방식을 통해 살펴본다. 먼저 합동 OLS 회귀분석을 통해 연령대별로 각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Chow 검정을 통해 경제적 자원의 회귀계수가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경제적 자원을 백분위를 기준으로 분위별로 구분하고 연령대와 경제적 자원의 분위에 따른 행복 수준의 변화를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령대에 따라 경제적 자원의 포화 지점을 탐지하고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연령대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2>와 같다. 분석자료는 2017~2019년 취합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4-12> 연령대별 소비자 특성

변수		연령대				F값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행복 변수	행복사다리	6.93a	6.71b	6.15c	5.78d	375.17***
경제적 자원	소득	6,025c	7,365a	6,697b	2,998d	3,389.97***
	소비지출	352c	423a	386b	191d	7,637.21***
	금융자산	4,356b	7,015a	7,766a	4,865b	66.09***
	실물자산	19,973c	30,639b	32,297ab	28,192b	27.15**
	순자산	19,193c	31,296b	36,606a	31,550b	47.60***

연령대별 행복 수준을 보면 20-30대>40대>50대>60대 이상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75.17, p<.000).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행복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김성아·정해식, 2019; 설로마, 2019; 정순둘·성민현, 2012). 주요 선진국에서는 삶의 만족 수준이 40-50세 사이에서 최저점을 보인 후 60세 이상까지 점차 상승하다가 75세 이후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전반적인 U자형이 나타내는데(Frijters & Beatton, 2012), 이와 다소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경제 양극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OCED 국가 중 1위) 및 노인 자살률 등 현재 사회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경제적 자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과 소비지출은 40대>50대>20-30대>60대 이상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0대가 평균적인 소득 및 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연령대라 할 수 있으며, 60대 이상은 경상소득, 소비지출 평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40대=50대>20-30대=60대 순으로 나타났다. 실물자산, 순자산은 50대>40대=60대 이상>20-30대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산축적 수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금융자산에서 실물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에 따라 60세 이상까지 실물자산 축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희, 2018). 본 연구에서 60대의 평균 자산이 50대보다 낮은 것을 60대 이상에 저소득층이 다수 포함된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 연령대별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1>은 연령대별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령대별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앞절에서와 같이 두 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연령대별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 첫 번째 연구가설이며, 연령대별로 소득의 포화점을 탐색하고 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두 번째 연구가설이다.

(1) 연령대별 소득과 행복의 관계 분석

먼저 연령대별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합동 OL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3>과 같다. 분석결과 소득은 모든 연령대에서 행복 변수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소득의 회귀계수에 대해 Chow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14>와 같다.

연령대별 소득의 회귀계수(B)를 B1(20-30대), B2(40대), B3(50대), B4(60대 이상)로 명명하였다. Chow 검정은 각 모형의 회귀계수가 동일하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검정통계량인 F값이 유의수준 0.05이하로 유의한 경우 가설을 기각하여, 두 회귀모형이 회귀계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표 4-13> 연령대별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행복사다리		20-30대 (B1)	40대 (B2)	50대 (B3)	60대 이상 (B4)
소득 (로그값)		.392***	.640***	.481***	.435***
주관적 건강		.250***	.295***	.304***	.403***
성별 (남성=1)		.072	.063	-.004	.012
혼인상태 (기혼=1)		-.213	-.058	-.429***	-.480***
종교유무 (있음=1)		.196**	.242***	.164**	.154***
임금근로=1	자영업	-.268*	-.215**	-.199**	.073
	무직	-.351*	-.166	-.266**	-.080
교육수준 (대졸=1)		0	.899	-.136	.173***
자가=1	전세	-.058	.055	-.337***	-.146*
	월세기타	-.110	-.127	-.649***	-.189***
기부여부 (기부유=1)		.253**	.379***	.427***	.583***
가구원수		-.605***	-.362***	-.219***	-.336***
가족관계		.464***	.416***	.406***	.511***
주거환경		.133	.043	.095	.105***
수도권=1	광역시.시	.177*	.113	.133	-.141**
	군.도농복합	.307*	.282*	.275**	-.082
연도 2016=1	2017	.044	.138*	.130*	.215***
	2018	.097	.101	.142*	.093**
상수		1.891**	-2.022	-.069	-.527*
R^2		0.178	0.296	0.326	0.281
Adj R^2		0.170	0.292	0.322	0.280
F		24.85***	66.88***	84.07***	234.44***

*20-30대 '교육수준' 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로 분석에서 제외됨.

<표 4-14> 연령대별 소득 회귀계수에 대한 Chow 검정 결과

가설	F값	p-value	결과
B1=B2	33.88	.000	기각
B1=B3	32.16	.000	기각
B1=B4	19.79	.000	기각
B2=B3	6.12	.002	기각
B2=B4	8.61	0.003	기각
B3=B4	6.56	.010	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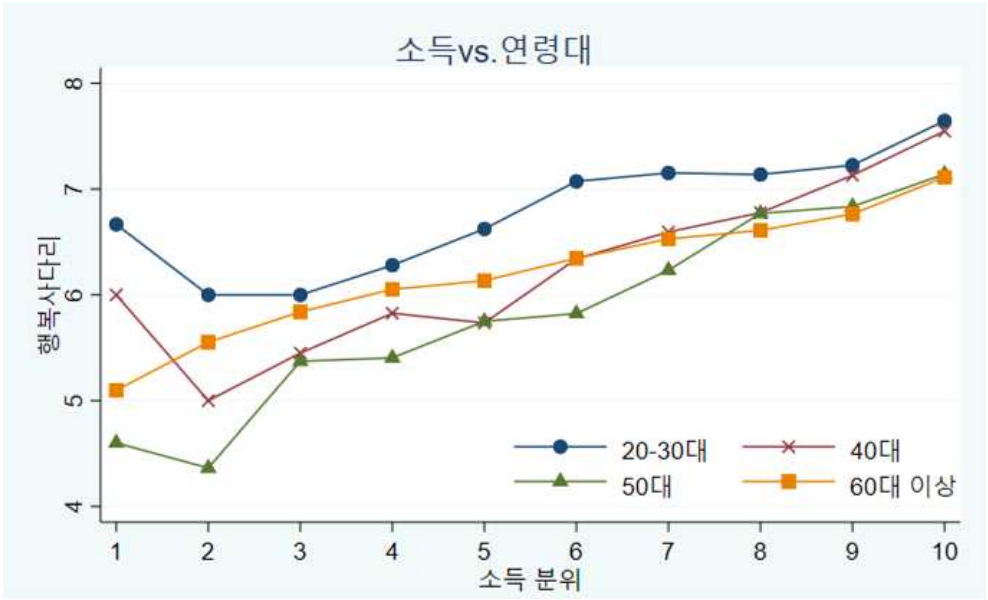
검정 결과 연령대별 소득의 회귀계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각 연령대별로 소득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령대별 회귀계수(B)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40대>50대>60대 이상>20-30대로 나타났다. 40대에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30대 집단에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에 따라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소득을 백분위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고, 연령대와 소득분위가 행복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2019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표 4-15>, <그림 4-1>).

<표 4-15> 연령대와 소득분위에 대한 행복변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구분	SS	df	MS	F	MSE	R^2
model	2,700.978	39	69.255	25.17***	1.658	0.151
소득①	735.231	9	81.692	29.69***		
연령대②	143.946	3	47.982	17.44***		
① x ②	107.221	27	3.971	1.44		
residual	15,110.27	5491	2.757			
total	17,811.249	5,530	3.220			

<그림 4-1> 연령대와 소득의 행복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도표를 보면 20-30대가 모든 소득 분위에서 행복 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연령대별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0대는 6분위부터 60대 이상과 행복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8분위를 지나면서 50대, 60대 이상에 비해 행복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상소득 증가에 따라 행복 수준 상승이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 OLS 회귀분석 에서 40대의 경상소득 회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50대는 저소득 분위에서 60대 이상에 비해 행복 수준이 낮다가 소득 분위가 상승하면서 행복 수준이 60대 이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8분위 이후부터는 60대 이상과 행복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연령대별 소득의 행복에 대한 포화점 탐색

두 번째 가설은 연령대별로 소득의 포화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앞 절에서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화점을 구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령대별로 소득의 포화점을 도출한 결과는 <표 4-16>, <그림 4-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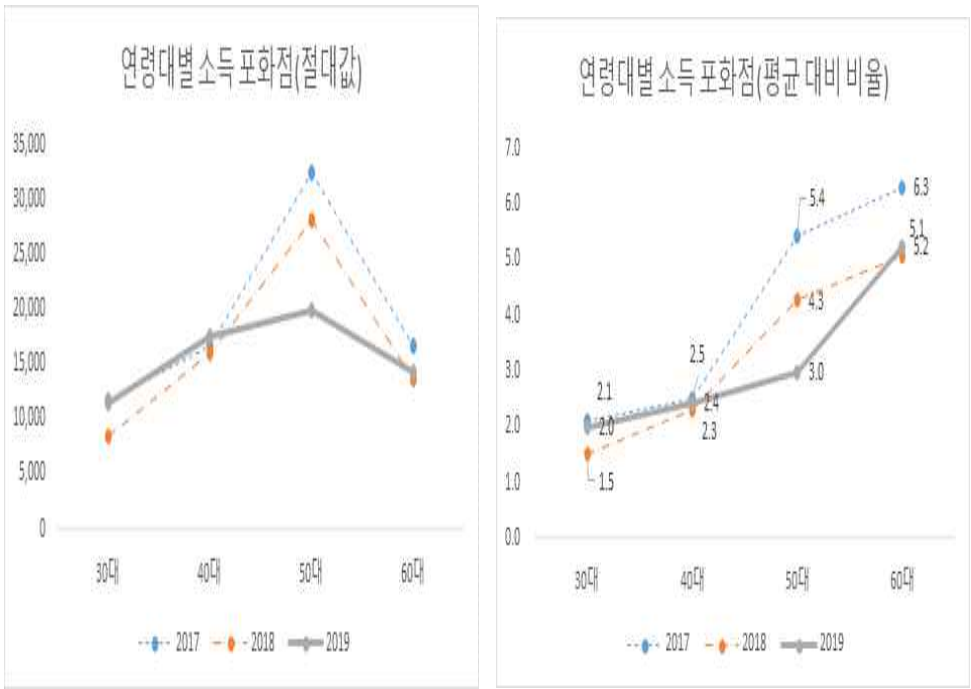
<표 4-16> 연령대별 소득에 대한 행복의 포화점 절대값 및 평균 대비 비율 (연소득 기준)

(단위:만원(배))

행복사다리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9	11,550 (2.0)	17,546 (2.4)	19,860 (3.0)	14,295 (5.2)
2018	8,502 (1.5)	15,971 (2.3)	28,224 (4.3)	13,737 (5.1)
2017	11,748 (2.1)	16,580(2.5)	32,458 (5.4)	16,574 (6.3)

<그림 4-2> 연령대에 따른 행복의 소득 포화점

(단위:만원, 배)



연령대별 포화점을 절대값 금액으로 보면 50대>40대>60대 이상>20-3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분석 대상인 3개 연도에 동일하게 나타났다. 분석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연령대별 소득의 포화점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40대, 50대의 포화점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생애주기 상 소득이 40, 50대에 정점을 이루기 때문으로 보인다. 평균적인 소득은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개인의 생애주기상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소득은 40대 후반, 50대 이후에서 정점을 찍게 된다(통계청, 2020).

반면 20-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포화점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20-30대의 소득 수준이 40, 50대에 비해 낮은 연유도 있겠지만, 도출된 포화점을 연령대별 소득의 평균 대비 비율로 보았을 때에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보면 20-30대는 사회 초년생으로 향후 자신의 진로 개발에 따라 미래 기대소득이 개선될 여지가 크고, 미래기대득을 근거로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한 부담도 다른 연령대보다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녀교육, 노후준비 등 현재 및 미래 대비를 위한 지출 욕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천현진·이연숙, 2007). 즉 욕구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가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과 이를 사용하는데 대한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같은 소득 수준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행복 수준이 높은 이유로 작용한 듯 보인다. 60대 이상은 포화점의 절대값으로 보면 40, 50대보다 낮게 형성되었지만, 평균 소득이 낮기 때문에 포화점의 평균 대비 비율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연령대별 금융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1) 연령대별 금융자산과 행복의 관계 분석

<연구문제 2-2-1>은 연령대별로 금융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구가설인 연령대별로 금융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합동 OL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7>과 같다.

분석 결과 금융자산은 모든 연령대에 행복 변수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금융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금융자산의 회귀계수에 대한 Chow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령대별 금융자산의 회귀계수(B)를 B1(20-30대), B2(40대), B3(50대), B4(60대 이상)로 명명하였다. 검정 결과는 <표 4-17>과 같다.

검정 결과 20-30대의 경우 금융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연령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0대, 50대, 60대 이상은 회귀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20-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금융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4-17> 금융자산에 대한 연령대별 회귀분석 결과

행복사다리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금융자산 (로그값)		.123***	.175***	.146***	.142***
주관적 건강		.228***	.276***	.282***	.402***
성별 (남성=1)		.066	.056	.046	.047
혼인상태 (기혼=1)		-.149	-.003	-.401***	-.543***
종교유무 (있음=1)		.215**	.276***	.138*	.197***
임금근로=1	자영업	-.281**	-.163*	-.223**	.029
	무직	-.492**	-.465***	-.407***	-.177***
교육수준 (대졸=1)		0	.950	.114	.198***
자가=1	전세	-.098	.047	-.334***	-.133**
	월세기타	-.080	-.088	-.531***	-.094**
기부여부 (기부유=1)		.236**	.410***	.476***	.621***
가구원수		-.580***	-.288***	-.135***	-.172***
가족관계		.470***	.435***	.420***	.507***
주거환경		.107	.030	.110	.098**
수도권=1	광역시.시	.193*	.106	.140	-.171***
	군.도농복합	.296*	.166	.253*	-.164**
연도 2016=1	2017	.057	.169**	.158*	.223***
	2018	.122	.120	.141*	.097**
상수		4.341	1.841	2.329	1.567
R^2		0.172	0.262	0.286	0.253
Adj R^2		0.170	0.261	0.284	0.252
F		79.81***	164.03***	188.06***	503.08***

*20-30대 '교육수준' 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로 분석에서 제외됨.

<표 4-18> 연령대별 금융자산 회귀계수에 대한 Chow 검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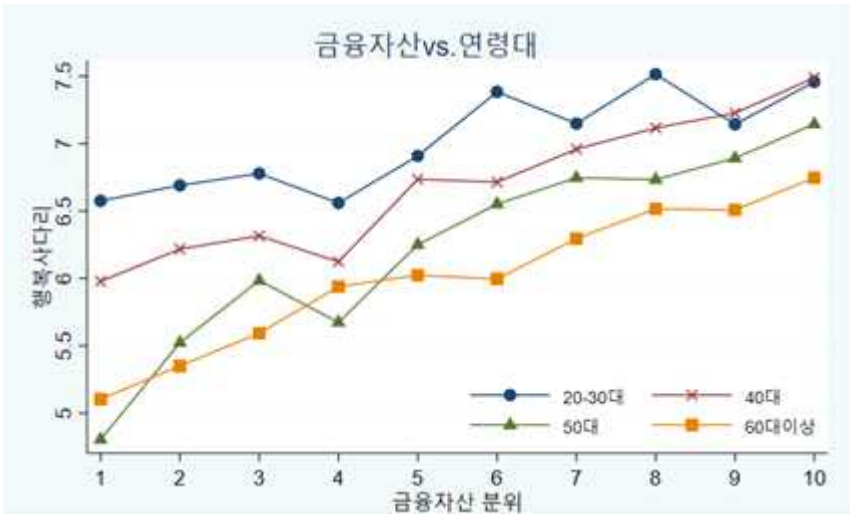
가설	F값	p-value	결과
B1=B2	17.33	.000	기각
B1=B3	17.32	.000	기각
B1=B4	14.14	.000	기각
B2=B3	0.06	0.808	채택
B2=B4	1.71	0.191	채택
B3=B4	1.33	0.248	채택

연령대에 따라 금융자산이 행복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금융자산을 10분위로 구분하고 연령대와 금융자산 분위가 행복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19>, <그림 4-3>과 같다.

<표 4-19> 연령대와 금융자산 분위에 대한 행복변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구분	SS	df	MS	F	MSE	R^2
model	2,540.511	39	65.141	23.42***	1.667	0.142
금융자산①	773.275	9	85.919	30.89***		
연령대②	657.066	3	219.022	78.76***		
① x ②	113.247	27	4.194	1.51*		
residual	15,270.738	5,491	2.789			
total	17,811.249	5,530	3.220			

<그림 4-3> 연령대와 금융자산 분위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결과



도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금융자산 분위가 상승하면서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 절의 소득의 경우 분위가 낮으면 연령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가, 분위가 상승하면서 연령대별 차이가 줄어들었던데 비해, 금융자산의 경우 다른 경제적 자원에 비해 최고 분위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20-30대가 금융자산 분위가 높아지면서 행복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의 경우 전반적으로 20-30대의 행복 수준이 모든 분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분위에 따른 행복 수준의 상승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완만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위가 상승하면서 연령대별 행복 수준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금융자산에서는 20-30대도 분위가 상승하면서 행복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4분위부터 6분위 사이에 행복의 상승폭이 크다.

한편 50대와 60대는 1~4분위의 저자산 분위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행복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소득, 소비지출과 다르게 축적되는 자원의 개념인데, 연령대가 높은데도 최소한의 자산이 축적되지 않은 경우 행복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2) 연령대별 금융자산의 행복에 대한 포화점 탐색

다음으로 연령대별로 금융자산의 포화점을 탐지한 결과는 <표 4-20>, <그림 4-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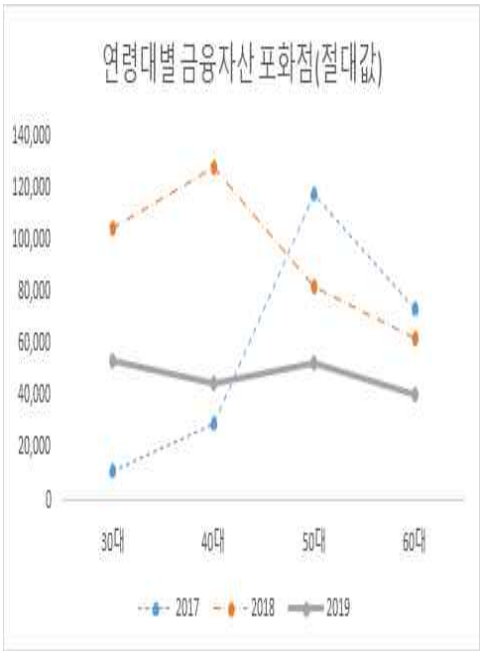
<표 4-20> 연령대별 행복의 금융자산 포화점 절대값과 평균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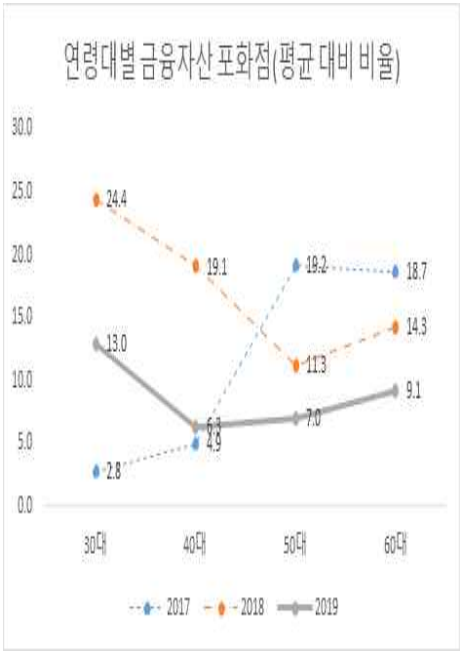
(단위:만원(배))

행복사다리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9	53,621 (13.0)	44,888 (6.3)	53,081 (7.0)	40,554 (9.1)
2018	104,605 (24.4)	128,522 (19.1)	82,212 (11.3)	62,311 (14.3)
2017	11,284 (2.8)	29,709 (4.9)	117,482 (19.2)	73,849 (18.7)

<그림 4-4> 연령대에 따른 행복의 금융자산 포화점

(단위: 만원, 배)





금융자산의 경우 포화점 도출 결과가 소득에 비해 일관성이 떨어진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절대값 기준으로 20-30대와 50대가 가장 높고, 4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연령대별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 2018년에는 40대>30대>50대>60대 순으로 나타나며, 2017년에는 50대>60대 이상>40대>3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에 따른 금액의 편차도 크다. 전반적인 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자산의 경우 연령대별 포화점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앞의 소득과 비교할 때, 20-30대의 포화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18과 2019 자료의 경우 연령대별 평균값 대비 비율로 보았을 때 20-30대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화점이 높다는 것은,

금융자산이 높은 수준까지 행복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20-30대 연령도 금융자산의 증가에 따른 행복 수준의 증가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주택 구매라는 변수가 작용하는 듯 보인다. 우리나라는 자가 보유에 대한 선호가 강하며, 최근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30대, 40대에 주로 주택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임지영, 2015; 박천규, 2008), 30대는 주택 구매를 위해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경향이 강하다(송혁준·김영일, 2012). 특히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20-30대는 '쓰는 돈'보다 주택구매를 위해 '모으는 돈'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소비지출에 대한 포화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3. 연령대별 실물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1) 연령대별 실물자산과 행복의 관계 분석

<연구문제 2-2-2>는 연령대별로 실물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가설인 연령대별로 실물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합동 OL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1>와 같다. 분석결과 실물자산은 모든 연령대에서 행복 수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실물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실물자산의 회귀계수에 대한 Chow 검정을 실시하였다. 앞 절에서와 같이 연령대별 실물자산의 회귀계수(B)를 B1(20-30대), B2(40대), B3(50대), B4(60대 이상)로 명명하고, 각 모형의 회귀계수가 동일하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검정 결과는 <표 4-22>와 같다.

검정 결과 20-30대의 경우 실물자산의 회귀계수가 다른 연령대와 유의한 차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실물자산의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0대와 60대 이상은 회귀계수의 영향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실물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50대>40대=60대 이상>20-30대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1> 실물자산에 대한 연령대별 회귀분석 결과

행복사다리		20-30대 (B1)	40대 (B2)	50대 (B3)	60대 이상 (B4)
실물자산(로그값)		.085*	.136***	.165***	.147***
주관적 건강		.237***	.310***	.300***	.416***
성별 (남성=1)		.115	.143	.039	.147**
혼인상태 (기혼=1)		-.178	.145	-.501***	-.538***
종교유무 (있음=1)		.167*	.287***	.128*	.134***
임금근로 =1	자영업	-.279*	-.241**	-.261***	-.063
	무직	-.660***	-.468***	-.434***	-.194***
교육수준 (대졸=1)		0	0	.256	.222***
자가=1	전세	-.021	.132	-.276**	-.098
	월세기타	.017	.073	-.421***	.097
기부여부 (기부유=1)		.266**	.426***	.470***	.652***
가구원수		-.573***	-.350***	-.141***	-.164***
가족관계		.469***	.440***	.439***	.489***
주거환경		.092	.091	.016	.071*
수도권 =1	광역시.시	.177	.162*	.157*	-.123*
	군.도농복합	.227	.248*	.253*	-.091
연도 2016=1	2017	.070	.194**	.158*	.230***
	2018	.124	.149*	.194**	.104*
상수		4.448	2.360	1.907	1.201
R^2		0.163	0.275	0.317	0.269
Adj R^2		0.156	0.271	0.313	0.268
F		23.82***	71.95***	89.82***	218.26***

*30대, 40대 '교육수준' 변수는 다중공선성(collinearity) 문제로 분석에서 제외됨.

<표 4-22> 연령대별 실물자산 회귀계수에 대한 Chow 검정 결과

가설	F값	p-value	결과
B1=B2	29.12	.000	기각
B1=B3	64.01	.000	기각
B1=B4	42.11	.000	기각
B2=B3	5.87	.015	기각
B2=B4	0.01	.935	채택
B3=B4	9.30	002	기각

보다 구체적으로 연령대에 따라 실물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물자산을 백분위를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고 연령대와 실물자산 분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23>, <그림 4-5>과 같다.

<표 4-23> 연령대와 실물자산 분위에 대한 행복변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구분	SS	df	MS	F	MSE	R^2
model	2366.520	39	60.680	22.45***	1.643	0.154
실물자산①	823.329	9	91.481	33.85***		
연령대②	736.809	3	245.603	90.89***		
① x ②	96.871	27	3.587	1.33		
residual	13,000.976	4,811	2.702			
total	15,367.497	4,850	3.168			

<그림 4-5> 연령대와 실물자산 분위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결과

<그림 4-15>를 보면 20-30대의 경우 1~3분위까지 행복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나, 이후 실물자산 분위 상승에 따른 행복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다. 8분위 이후에서는 행복 수준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다른 연령대는 전반적으로 실물자산의 분위 상승에 따라 행복 수준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금융자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실물자산에서도 자산 분위가 낮은 수준에서 행복 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다. 50, 60대는 생애주기 상으로 볼 때 일정 수준의 자산이 축적되고 자산이 안정기에 들어설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은퇴시기가 임박하면서 근로소득 이외에 대체 소득원을 찾게 되는데, 부동산 자산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많은 중장년 소비자들이 실물 자산 의주로 은퇴 소득을 준비한다(이창선, 201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연령대에 자산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 행복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 연령대별 실물자산의 행복에 대한 포화점 탐색

다음으로 연령대별로 실물자산의 포화점을 도출한 결과는 <표 4-24>, <그림 4-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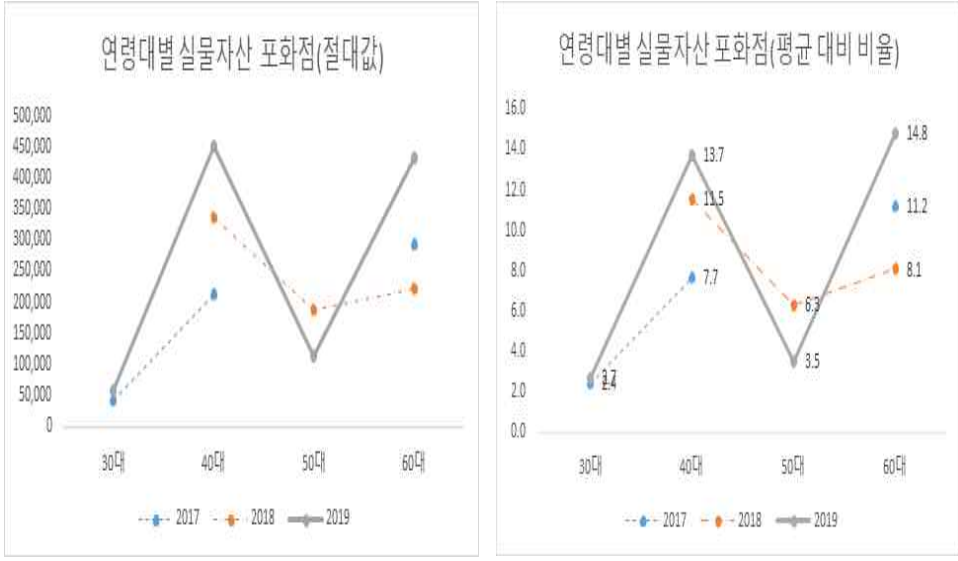
<표 4-24> 연령대별 행복의 실물자산 포화점 절대값과 평균 대비 비율

(단위:만원(배))

행복사다리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9	56,810 (2.7)	450,205 (13.7)	113,041 (3.5)	433,196 (14.8)
2018	없음	335,996 (11.5)	186,395 (6.3)	220,325 (8.1)
2017	42,639 (2.4)	213,181 (7.7)	없음	291,867 (11.2)

<그림 4-6> 연령대별 실물자산 포화점 추이

(단위: 만원, 배)



분석 결과 예외적인 연도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20-30대의 포화점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연도에 따라 포화점의 상대적 크기에 차이가 있었다. 2019년의 경우 40대> 60대 이상>50대>20-30대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은 20-30대는 포화점이 도출되지 않았고 다른 연령대의 경우 2019년과 동일하게 40대>60대 이상>50대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50대의 포화점이 도출되지 않았고 60대 이상>40대>20-30대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는 이원분산분석 결과에서도 3분위부터 7분위까지 행복 수준에 큰 변화가 없으며 8분위에서 정점을 찍고 이후 행복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들 연령대는 실물자산을 비롯한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주는 영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이 포화점이 낮게 형성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자산이 축적되는 자원임을 감안할 때 연령대와 이에 상응하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매입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20-30대는 자산형성의 초기로 본격적으로 실물자산을 구축해 나가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물자산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40대부터는 실물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지고, 포화점의 수준도 60대 이상에 못지않게 높아진다. 이는 40대에 소득 활동이 생애주기 상 정점에 가까워지고 주택 구매와 적극적인 자산 증식에 나서는 시기에 이른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0대는 실물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포화점은 40대와 60대 이상에 비해 대체로 낮게 형성되고 있다. 생애주기 상으로 볼 때 50대는 일정 수준의 자산 형성이 이루어지고 안정되어 가는 시기라 볼 수 있으며, 40대, 60대 이상에 비해 포화점 형성에 큰 차이가 나타날 요인이 보이지는 않는다. 50대만이 경험한 특별한

사건이나 가치관 같은 세대효과가 작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이원분산분석 결과를 참조하면 이들 연령대에서 자산 분위가 높아진다고 행복 수준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60대가 실물자산 분위 상승에 따라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행복 수준의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비해, 50대는 4~6분위 사이의 행복 수준이 다른 분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이처럼 실물자산이 중간 수준인 소비자들의 행복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이후 완만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 포화점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 연령대별 순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1) 연령대별 순자산과 행복의 관계 분석

<연구문제 2-2-3>은 연령대별로 순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가설인 연령대별로 순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합동 OL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5>와 같다. 분석결과 순자산은 모든 연령대에서 행복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순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계수에 대한 Chow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6>과 같다. 연령대별 순자산의 회귀계수(B)를 B1(20-30대), B2(40대), B3(50대), B4(60대 이상)로 명명하였다.

검정 결과 20-30대의 경우 순자산의 회귀계수가 다른 연령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의 회귀계수도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0대와 50대, 40대와 60대의 회귀계수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연령대별 순자산의 영향력은 50대=40대>40대=60대>20-30대 순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4-25> 순자산에 대한 연령대별 회귀분석 결과

행복사다리		20-30대 (B1)	40대 (B2)	50대 (B2)	60대 이상 (B4)
순자산 (로그값)		.161***	.221***	.258***	.214***
주관적 건강		.187**	.314***	.255***	422***
성별 (남성=1)		.080	.018	-.021	.128*
혼인상태 (기혼=1)		-.172	.130	-.456***	-.557***
종교유무 (있음=1)		128	.281***	.124*	.112**
임금근로=1	자영업	-.307**	-.276***	-.348***	-.122*
	무직	-.574**	-.544***	-.504***	-.176***
교육수준 (대졸=1)		0	0	.552	.230***
자가=1	전세	.007	.158*	-.185	-.080
	월세기타	.145	.081	-.253*	.213**
기부여부 (기부유=1)		.286**	.366***	.394***	.634***
가구원수		-.591***	-.317***	-.144***	-.169***
가족관계		.483***	.432***	.414***	500***
주거환경		.141	.082	-.026	.075*
수도권=1	광역시.시	.235	.185*	.279**	-.093
	군.도농복합	.299	.253*	.372**	-.089
연도 2016=1	2017	.023*	.127	.159*	.276***
	2018	.133*	.116	.204*	.086*
상수		3.742	1.682	1.026	.497
R^2		0.166	0.284	0.303	0.296
Adj R^2		0.157	0.279	0.298	0.294
F		17.58***	55.67***	58.68	155.45

*20-30대, 40대 '교육수준' 변수는 다중공선성(collinearity) 문제로 분석에서 제외됨.

<표 4-26> 연령대별 순자산 회귀계수에 대한 Chow 검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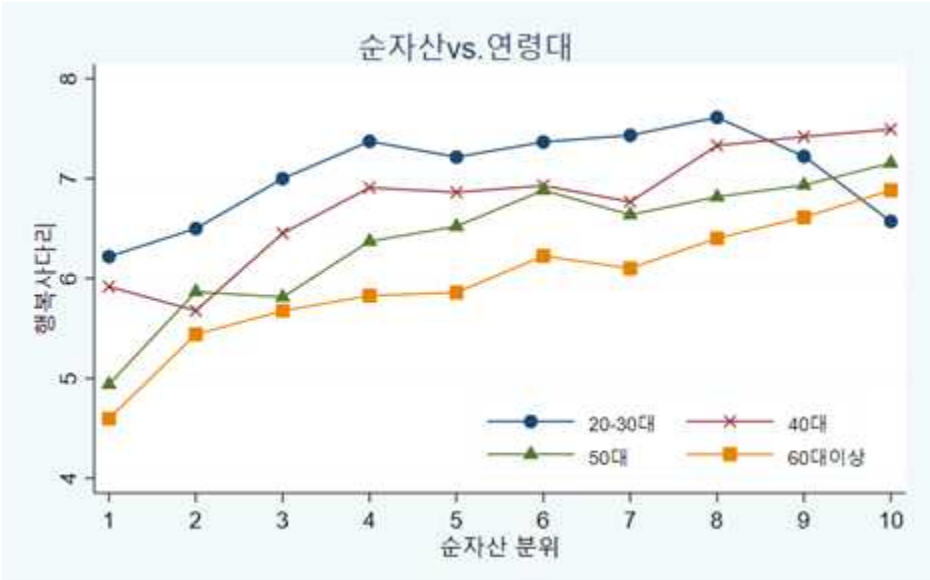
가설	F값	p-value	결과
B1=B2	26.73	.000	기각
B1=B3	42.98	.000	기각
B1=B4	30.85	.000	기각
B2=B3	1.53	.215	채택
B2=B4	.43	.513	채택
B3=B4	5.77	0.016	기각

보다 구체적으로 연령대에 따라 순자산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물자산을 백분위를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고 연령대와 순자산 분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는 <표 4-27>, <그림 4-7>와 같다.

<표 4-27> 연령대와 순자산 분위에 대한 행복변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구분	SS	df	MS	F	MSE	R^2
model	2620.74	39	67.19	25.41***	1.626	0.171
실물자산①	868.727	9	96.52	36.49***		
연령대②	712.322	3	237.44	89.77***		
① x ②	111.322	27	4.123	1.56*		
residual	12,701.519	4,811	2.645			
total	15,322.259	4,850	3.165			

<그림 4-7> 연령대와 순자산 분위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결과



도표를 보면 대체로 순자산이 증가하면서 행복 수준이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20-30대의 경우 8분위에서 행복이 정점에 이르고 이후 행복 수준이 감소하며 최고 분위에서는 다른 연령대보다 행복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대체로 자산 증가에 따라 행복 수준이 증가하는 형태를 띠며, 50대와 60대 이상은 순자산이 매우 낮은 분위에서 행복 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금융자산, 실물자산에 대한 분석에서처럼 50대 이후부터 최소한의 축적된 자산이 없으면 행복이 낮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령대별 순자산의 행복에 대한 포화점 탐색

다음으로 순자산의 포화점을 탐지한 결과는 <표 4-28>, <그림 4-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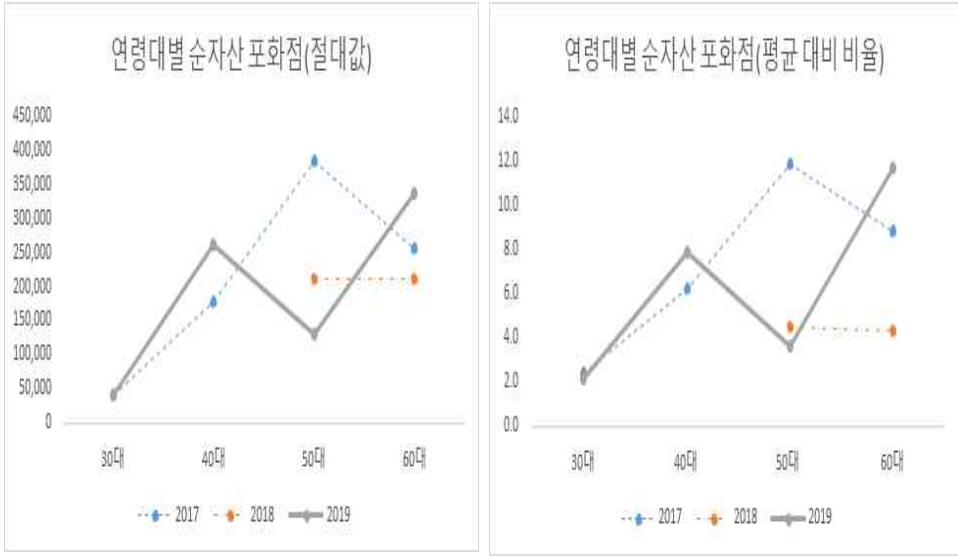
<표 4-28> 연령대별 행복의 순자산 포화점의 절대값과 평균 대비 비율

(단위:만원(배))

행복사다리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9	40,827 (2.1)	259,855 (7.9)	130,068 (3.6)	336,320 (11.6)
2018	없음	없음	210,115 (4.4.)	211,664 (4.3)
2017	42,011 (2.4)	177,774 (6.2)	383,020 (11.9)	256,845 (8.8)

<그림 4-8> 연령대별 순자산 포화점 추이

(단위: 만원, 배)



분석 결과 대체로 20-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포화점이 낮게 도출되고 있다. 20-3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의 경우 연도별로 연령대별 포화점 도출 결과가 상이하다. 2019년 60대 이상>40대>50대>20-3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은 60대 이상과 50대의 포화점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40대의 포화점은 도출되지 않았다. 2017년의 경우 50대>60대이상>40대>20-30대 순으로 나타났다.

실물자산에서처럼 자산은 축적되는 자원의 개념인데, 20-30대는 자산 축적 역량이 아직 다른 연령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낮은 포화점의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거주 유형에 따라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아직까지는 주택 구매 여부가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실물자산과 순자산의 포화점이 낮은 것은 이러한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포화점 도출 결과도 연령대별 차이가 있다. 소득은 50대>40대>60대이상>20-30대 순으로 포화점이 도출되었다. 소비지출은 20-30대의 포화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포화점에 연령대별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실물자산은 20-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났다. 순자산은 60대가 가장 높고, 20-3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5. 연령대별 소비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1) 연령대별 소비지출과 행복의 관계 분석

<연구문제 2-3>은 연령대별로 소비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가설인 연령대별로 소비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합동 OL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7>과 같다. 분석결과 소비지출은 모든 연령대에서 행복 변수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소비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Chow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7>과 같다. 앞 절의 소득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대별 소비지출의 회귀계수(B)를 B1(20-30대), B2(40대), B3(50대), B4(60대 이상)로 명명하였다.

검정 결과 20-30대의 경우 소비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연령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40대, 50대, 60대 이상은 회귀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20-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비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4-29> 연령대별 소비지출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행복사다리		20-30대 (B1)	40대 (B2)	50대 (B3)	60대 이상 (B4)
소비지출 (로그값)		.229*	.592***	.452***	.456***
주관적 건강		.255***	.302***	.319***	.416***
성별 (남성=1)		.089	.138	-.000	.020
혼인상태 (기혼=1)		-.166	-.002	-.389***	-.498***
종교유무 (있음=1)		.215**	.243***	.143*	.151***
임금근로 =1	자영업	-.286**	-.211**	-.189**	.070
	무직	-.589***	-.438***	-.387***	-.138***
교육수준 (대졸=1)		0	.799	-.148	.161***
자가=1	전세	-.072	.075	-.332***	-.145*
	월세기타	-.172*	-.183**	-.689***	-.202***
기부여부 (기부유=1)		.305***	.426***	.456***	.596***
가구원수		-.607***	-.400***	-.229***	-.328***
가족관계		.467***	.419***	.421***	.519***
주거환경		.127	.043	.093	.113***
수도권 =1	광역시.시	.158	.110	.134	-.157**
	군.도농복합	.266	.273*	.292**	-.095
연도 2016=1	2017	.051	.146*	.147*	210***
	2018	.114	.108	.162*	.092*
상수		3.847	.135	1.345	.477
R^2		0.165	0.275	0.313	0.278
Adj R^2		0.159	0.272	0.310	0.277
F		27.72***	72.68***	95.35***	277.50***

*20-30대 '교육수준' 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로 분석에서 제외됨.

<표 4-30> 연령대별 소비지출 회귀계수에 대한 Chow 검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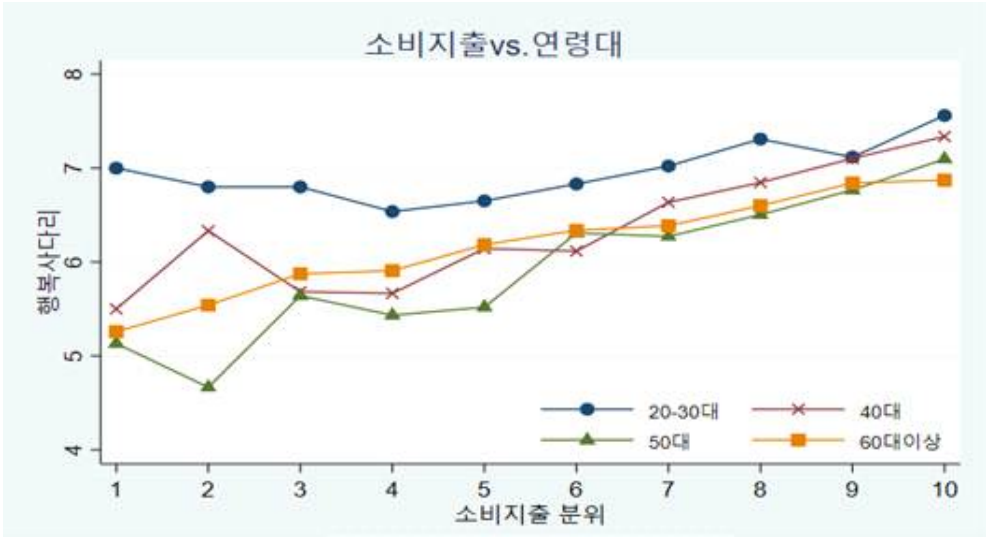
가설	F값	p-value	결과
B1=B2	48.42	.000	기각
B1=B3	54.53	.000	기각
B1=B4	46.40	.000	기각
B2=B3	2.43	.088	채택
B2=B4	0.01	.908	채택
B3=B4	3.31	.060	채택

연령대에 따라 소비지출이 행복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019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지출을 10분위로 구분하고 연령대와 소비지출 분위가 행복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31>, <그림 4-9>과 같다.

<표 4-31> 연령대와 소비지출 분위에 대한 행복변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구분	SS	df	MS	F	MSE	R^2
model	2,259.444	39	57.934	20.46***	1.682	0.126
소비지출①	544.041	9	60.449	21.34***		
연령대②	144.999	3	48.333	17.07***		
① x ②	88.574	27	3.280	1.16		
residual	15,551.804	5,491	2.835			
total	17,811.249	5,530	3.220			

<그림 4-9> 연령대와 소비지출 분위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결과



도표를 보면 모든 소비지출 분위에서 20-30대의 행복 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소비지출 분위가 상승하면서 행복수준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30대의 경우 분위별 행복 수준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다. 앞의 OLS 회귀분석에서 20-30대의 소비지출의 회귀계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과 일맥 상통한 결과이다. 20-3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들은 전반적으로 소비지출 분위가 상승하면서 행복 수준이 상승하는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연령대별 소비지출의 행복에 대한 포화점 탐색

다음으로 연령대별로 소비지출의 포화점을 도출한 결과는 <표 4-32>, <그림 4-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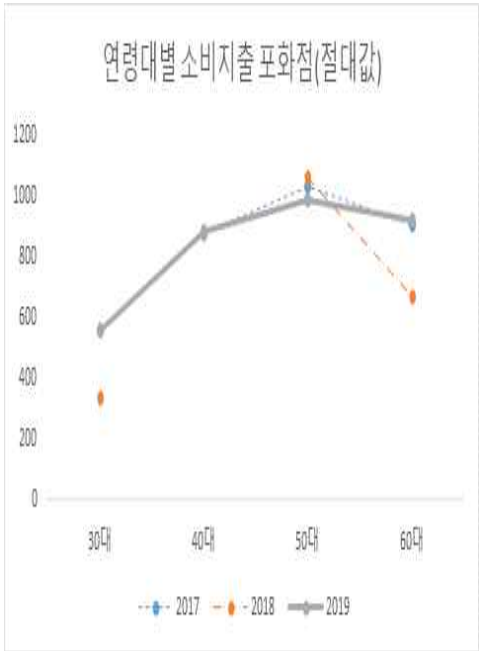
<표 4-32> 연령대별 소비지출의 행복 포화점 절대값과 평균 대비 비율
(월소비지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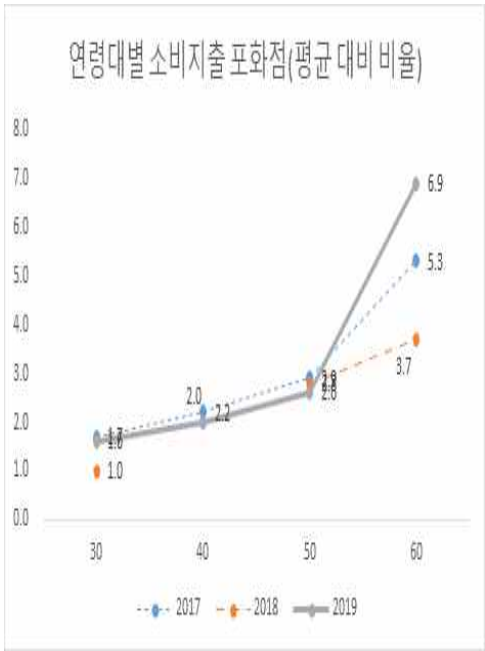
(단위:만원(배))

행복사다리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9	555 (1.6)	882 (2.0)	986 (2.6)	922 (6.9)
2018	335 (1.0)	없음	1,066 (2.8)	672 (3.7)
2017	558 (1.7)	877 (2.2)	1,032 (2.9)	906 (5.3)

<그림 4-10> 연령대에 따른 행복의 소비지출 포화점

(단위: 만원, 배)





절대값 금액으로 보았을 때 연령별 포화점은 대체로 50대가 가장 높고, 20-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포화점 탐지 금액이 눈에 띄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60대 이상은 2019년, 2017년의 경우 40대보다 포화점이 높게 형성되었으나, 2018년의 경우 40대보다 포화점 수준이 낮게 나타나 두 연령대의 포화점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령대별 평균 대비 비율로 보았을 때, 60대 이상>50대>40대>20-3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에서와 같이 60대 이상은 포화점의 절대값은 50대, 40대와 유사한 수준이나 저소득층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아 평균 대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30대는 평균 대비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눈에 띄게 낮다. 40대, 50대의 포화점이 평균의 2배 이상을 넘어서는데 비해, 20-30대의 포화점은 1.0~1.7배로 평균적 소비지출 수준을 고려해도 포화점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별 소비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면 20-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비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낮고 포화점도 낮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젊은 세대들이 자신만의 소비생활과 문화를 즐기고, 충동소비를 많이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임미리, 2013; 황금진, 2015 등)와 다소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제 3절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분석

<연구문제 3>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큰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소득과 소비지출, 순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아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변수의 조합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 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
모형 2.: 소비지출, 금융자산, 실물자산
모형 3: 소득, 순자산
모형 4: 소비지출, 순자산

분석자료는 2017~2019년 자료를 통합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합동 OLS 방식을 사용하여 β계수를 비교하였다. 독립변수인 경제적 자원은 모두 로그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33~36>과 같다.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분석모형들의 설명력을 보면, 개별적인 경제적 자원 변수와 행복의 관계를 파악한 1절과 2절의 모형들에 비해 설명력의 개선이 크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 즉 통제변수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소득, 소비지출, 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의 개별적인 영향을 알아보았던 앞 절의 분석모형들에 비해 여러 경제적 자원이 함께 들어간 회귀 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경제적 자원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영향도 있겠지만, 각각의 경제적 자원 변수들로 보았을 때에는 행복에 주는 영향이 크지만, 결국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모형 1>의 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표 4-33>),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세 가지 변수 모두 행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소득(β=.158)>금융자산(β=.104)>실물자산(β=.045) 순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별로 각 경제적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20-30대와 40대는 경상소득>금융자산 순으로 나타나고, 실물자산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0대는 소득>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나타나고, 60대 이상은 금융자산> 소득>실물자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물자산의 경우 50대 이상부터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나는데, 생애주기상 은퇴기에 가까워지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이 줄어드는 가운데, 부동산 자산을 통한 임대소득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소비지출,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모형 2>에서는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소비지출(β=.128)>금융자산(β=.118)>실물자산(β=.048)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4-29>) 소득과 소비지출은 유량 개념의 자원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데,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으며,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별 분석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를 보면 20-30대는 금융자산만 유의하게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소비지출과 실물자산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40대는 금융자산>소비지출 순으로 나타나고 실물자산은 유의하지 않았다. 50대와

60대 이상은 금융자산>소비지출>실물자산 순으로 나타났다.

<모형 3>과 <모형 4>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대신 순자산을 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은 <모형 1>, <모형 2>에 대한 분석과 유사하다.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소득>순자산, 소비지출>순자산 순으로 유량 개념의 자원이 저량 개념의 자원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모형 3>과 <모형 4>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모형 3>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 5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보다 순자산보다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소비지출과 순자산의 영향력을 살펴본 <모형 4>의 경우 20-30대에서는 소비지출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순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소비지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우선 20-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자원을 비롯해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변수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음을 시사한다.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원수, 가족관계, 주거환경 만족도, 종교유무, 기부여부 등은 모든 연령대에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대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혼인상태의 경우 20-30대와 40대는 결혼 유무에 따른 행복 수준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50대, 60대 이상은 기혼자가 기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행복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직위의 경우 20대는 무직자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비해 행복 수준의 유의하게 낮았으며, 40대, 50대는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와 기타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행복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종사상 직위에 따른 행복 수준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

다. 교육수준은 대체로 행복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60대 이상 집단의 경우 대졸집단이 기타 집단에 비해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의 경우 20-30대, 40대, 60대 이상의 경우 자가 거주자와 전세 거주자의 행복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50대는 자가 거주자가 전세 및 기타 집단에 비해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영(2015), 박천규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대체로 30, 40대에 주택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본 연구 결과에 적용하자면, 다수의 소비자들에 40대에 주택 구매가 완료되며, 50대 이상이 되면 자가 거주를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경제적 자원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적 자원 가운데에는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자산의 상대적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축적된 자산이 많아지고, 동시에 퇴직, 실직 등으로 고정적인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자산소득에 대한 의존이 커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득과 소비지출은 가계의 재무 시스템 안에서 순환되는 유량 개념의 자원인데, 두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자산과 함께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비교할 때,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자산보다 높았지만, 소비지출은 금융자산보다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적게 나타났다. 소비자 입장에서 소득은 욕구 충족을 위한 기본적인 경제적 자원으로, 이를 현재의 욕구 충족을 위한 소비지출와 미래 지출을 위한 저축으로 선택된다. 연령대별 소비지출과 자산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연령이 적을수록 미래 지출에 대비한 저

축과 이를 통해 축적된 금융자산이 행복에 작용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영향력은 연령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0-30대, 40대의 경우 결혼유무, 종교, 거주유형, 거주지역 등이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20-30대의 경우 회귀모형의 전체적인 설명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연령대의 행복을 결정하는 다른 변수들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요인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40대의 경우 20-30대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유사하나, 회귀계수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즉 40대부터는 경제적·사회적 요인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3> 경제적 자원과 행복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행복사다리		전체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소득 (로그)		.322*** (.158)	.255** (.098)	.462*** (.177)	.318*** (.135)	.249*** (.106)
금융자산 (로그)		.101*** (.104)	.087** (.085)	.108*** (.110)	.081*** (.087)	.106*** (.107)
실물자산 (로그)		.048*** (.045)	.012 (.013)	.007 (.006)	.072** (.072)	.060*** (.056)
30대 =1	40대	-.378*** (-.078)				
	50대	-.780*** (-.167)				
	60대 이상	-.839*** (-.234)				
주관적 건강		.347*** (.186)	.211*** (.091)	.295*** (.132)	.262*** (.123)	.383*** (.190)
성별 (남성=1)		.052 (.013)	.077 (.020)	.015 (.003)	.052 (.012)	.068 (.018)
혼인상태 (기혼=1)		-.387*** (-.105)	-.255 (-.077)	-.039 (-.009)	-.551*** (-.146)	-.485*** (-.135)
종교유무 (있음=1)		.147*** (.041)	.144 (.041)	.292*** (.087)	.122* (.034)	.131*** (.036)
임금근로=1	자영업	-.115*** (-.026)	-.209 (-.042)	-.165** (-.040)	-.230** (-.056)	-.002 (-.000)
	무직	-.162*** (-.043)	-.350* (-.051)	-.148** (-.022)	-.270** (-.053)	-.087 (-.024)
교육수준 (대졸=1)		.166*** (.025)	0	0	.420 (.014)	.158** (.031)

- 다음 장에 계속-

행복사다리		전체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자가=1	전세	-.088 (-.016)	-.058 (-.017)	.071 (.016)	-.297** (-.055)	-.086 (-.012)
	월세 기타	-.102* (-.022)	-.001 (-.000)	-.036 (-.008)	-.447*** (-.109)	.005 (.001)
기부여부 (기부유=1)		.402*** (.070)	.182* (.047)	.332*** (.083)	.412*** (.082)	.549*** (.069)
가구원수		-.322*** (-.225)	-.591*** (-.496)	-.342*** (-.252)	-.204*** (-.139)	-.286*** (-.140)
가족관계		.426*** (.381)	.473*** (.614)	.423*** (.433)	.402*** (.368)	.463*** (.374)
주거환경		.063** (.016)	.102 (.023)	.071 (.016)	-.002 (-.000)	.060 (.017)
수도권=1	광역시.시	.027 (.007)	.199* (.057)	.130 (.034)	.158* (.041)	-.105* (-.028)
	군.도 농복합	.083 (.018)	.233 (.042)	.175 (.031)	.275* (.053)	-.057 (-.014)
2016=1	2017	.185	.065	.178**	.140*	.223***
	2018	.100	.101	.102	.149*	.076
상수		.523	2.481**	-.703	-.135	-.134
R^2		0.313	0.168	0.304	0.318	0.281
Adj R^2		0.312	0.159	0.298	0.313	0.280
F		356.48***	17.87***	58.92***	64.81***	167.91***

<표 4-34> 경제적 자원과 행복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2)

행복사다리		전체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소비지출 (로그)		.309*** (.128)	.066 (.021)	.341*** (.104)	.241** (.082)	.287*** (.104)
금융자산 (로그)		.115*** (.118)	.110** (.108)	.140*** (.144)	.106*** (.113)	.105*** (.110)
실물자산 (로그)		.051*** (.048)	.029 (.032)	.021 (.019)	.080** (.080)	.057** (.053)
30대 =1	40대	-.384*** (-.080)				
	50대	-.779*** (-.167)				
	60대 이상	-.846*** (-.236)				
주관적 건강		.356*** (.191)	.219*** (.095)	300*** (.134)	.265*** (.124)	.390*** (.194)
성별 (남성=1)		.065 (.016)	.080 (.020)	.054 (.010)	.061 (.014)	.072 (.019)
혼인상태 (기혼=1)		-.387*** (-.105)	-.195 (-.059)	-.007 (-.001)	-.530*** (-.140)	-.496*** (-.138)
종교유무 (있음=1)		.145*** (.040)	.157* (.045)	.297*** (.088)	.105 (.029)	.127*** (.035)
임금근로=1	자영업	-.119** (-.027)	-.226* (-.045)	-.159* (-.039)	-.230** (-.056)	-.001 (-.000)
	무직	-.221*** (-.059)	-.479** (-.071)	-.332** (-.050)	-.347*** (-.069)	-.117 (-.032)
교육수준 (대졸=1)		.154** (.023)	0	0	.381 (.012)	.146** (.028)

- 다음 장에 계속-

행복사다리		전체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자가=1	전세	-.078* (-.014)	-.054 (-.016)	.086 (.020)	-.288** (-.053)	-.083 (-.012)
	월세 기타	-.103* (-.022)	-.011 (-.003)	-.033 (-.008)	-.426*** (.104)	-.006 (-.001)
기부여부 (기부유=1)		.426*** (.073)	.205* (.054)	.354*** (.088)	.427*** (.085)	.547*** (.068)
가구원수		-.324*** (-.226)	-.579*** (-.486)	-.351*** (-.259)	-.197*** (-.134)	-.291*** (-.143)
가족관계		.426*** (.381)	.470*** (.610)	.426*** (.436)	.409*** (.374)	.466*** (.376)
주거환경		.068** (.018)	.102 (.023)	.070 (.016)	-.007 (-.000)	.067* (.019)
수도권=1	광역시.시	.024 (.006)	.203* (.058)	.134 (.035)	.166* (.041)	-.111* (-.030)
	군.도농복합	.077 (.016)	.220 (.040)	.173 (.030)	.286** (.053)	-.069 (-.014)
2016=1	2017	.184***	.075	.183*	.150*	.218***
	2018	.101***	.114	.109	.157*	.073
상수		.968	3.843**	.852	.878	.342
R^2		0.324	0.164	0.295	0.314	0.281
Adj R^2		0.323	0.154	0.290	0.309	0.280
F		271.68***	17.30***	56.53***	63.69***	167.95***

<표 4-35> 경제적 자원과 행복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3)

행복사다리		전체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소득 (로그)		.392*** (.192)	.328** (.124)	.479*** (.181)	.344*** (.146)	.315*** (.136)
순자산 (로그)		.152*** (.127)	.101** (.085)	.131*** (.105)	.186*** (.163)	.156*** (.134)
30대=1	40대	-.362 (-.078)				
	50대	-.724 (-.167)				
	60대 이상	-.787 (-.234)				
주관적 건강		.353*** (.189)	.177*** (.077)	.311*** (.138)	.248*** (.117)	4013*** (.198)
성별 (남성=1)		.053 (.013)	.078 (.018)	-.012 (-.002)	-.026 (-.006)	.080 (.021)
혼인상태 (기혼=1)		-.379*** (-.101)	-.281 (-.083)	-.014 (-.003)	-.492*** (-.128)	-.506*** (-.138)
종교유무 (있음=1)		.127*** (.035)	.107 (.032)	.267*** (.081)	.134* (.039)	.098* (.027)
임금근로=1	자영업	-.204*** (-.048)	-.265 (-.054)	-.261*** (-.066)	-.316*** (-.081)	-.071 (-.017)
	무직	-.182*** (-.047)	-.374* (-.051)	-.276* (-.040)	-.362*** (-.070)	-.076 (-.021)
교육수준 (대졸=1)		.210*** (.029)	0	0	.598 (.017)	.187** (.035)

- 다음 장에 계속-

행복사다리		전체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자가=1	전세	-.048* (-.009)	-.007 (-.002)	.119 (.028)	-.216* (-.041)	-.093 (-.013)
	월세 기타	-.002 (-.000)	114 (.033)	.027 (.006)	-.320** (-.070)	.096 (.018)
기부여부 (기부유=1)		.406*** (.074)	.251** (.066)	.308** (.078)	.356*** (.074)	.575*** (.074)
가구원수		-.336*** (-.239)	-.611*** (-.513)	-.348*** (-.254)	-.205*** (-.141)	-.296*** (-.148)
가족관계		.431*** (.382)	.473*** (.623)	.415*** (.418)	.391*** (.356)	.484*** (.386)
주거환경		.069* (.017)	.141 (.031)	.076 (.017)	-.037 (-.008)	.069 (.019)
수도권=1	광역시.시	.085* (.022)	234* (.067)	.185* (.049)	.271** (.072)	-.083 (-.022)
	군.도농복합	.143** (.031)	.328 (.062)	.287* (.052)	.386*** (.050)	-.049 (-.011)
2016=1	2017	.124	.002	.106**	.122	.211**
	2018	.105	.105	.089	.182**	.071
상수		.503	1.675	-1.252	-.883	-.986
R^2		0.325	0.175	0.300	0.312	0.303
Adj R^2		0.324	0.165	0.294	0.307	0.301
F		356.48***	17.59***	56.63***	57.84***	152.071***

<표 4-36> 경제적 자원과 행복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4)

행복사다리		전체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소비지출 (로그)		.375*** (.155)	.131 (.041)	.379*** (.114)	.280*** (.095)	.340*** (.125)
순자산(로그)		.172*** (.143)	.147** (.123)	.172*** (.139)	.217*** (.191)	.158*** (.136)
30대 =1	40대	-.366*** (-.078)				
	50대	-.718*** (-.167)				
	60대 이상	-.794*** (-.234)				
주관적 건강		.366*** (.196)	.186** (.081)	.317*** (.141)	.253*** (.119)	.412*** (.203)
성별 (남성=1)		.070 (.017)	.081 (.019)	.021 (.004)	-.025 (-.005)	.087 (.023)
혼인상태 (기혼=1)		-.378*** (-.100)	-.216 (-.064)	.056 (-.013)	-.470*** (-.122)	-.523*** (-.143)
종교유무 (있음=1)		.121*** (.034)	.121 (.036)	.269*** (.081)	.112 (.032)	.093* (.025)
임금 근로 =1	자영업	-.214*** (-.050)	-.298* (-.061)	-.265*** (-.067)	-.320*** (-.082)	-.072 (-.017)
	무직	-.261*** (-.068)	-.553** (-.076)	-.458*** (-.067)	-.452*** (-.087)	-.121* (-.033)
교육수준 (대졸=1)		.199*** (.028)	0	0	.528 (.015)	.176** (.033)

- 다음 장에 계속-

행복사다리		전체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자가=1	전세	-.027 (-.005)	.007 (.002)	.152* (.035)	-.192* (-.036)	-.086 (-.012)
	월세 기타	.007 (.001)	.129 (.037)	.032 (.007)	-.291** (-.067)	.092 (.018)
기부여부 (기부유=1)		.425*** (.077)	.281** (.074)	.334*** (.083)	.368*** (.077)	.576*** (.074)
가구원수		-.338*** (-.240)	-.607*** (-.509)	-.364*** (-.266)	-.203*** (-.140)	-.291*** (-.146)
가족관계		.431*** (.383)	.483*** (.621)	.417*** (.421)	.399*** (.363)	.490*** (.390)
주거환경		.074** (.019)	.138 (.031)	.072 (.016)	-.040 (-.009)	.078* (.022)
수도권=1	광역시.시	.088* (.023)	.237* (.068)	.191* (.050)	.285 (.076)	-.088 (-.023)
	군.도농복합	.140** (.030)	.304* (.057)	.290* (.053)	.405** (.083)	-.053 (-.012)
2016=1	2017	.130	.017	.112**	.133*	.223*
	2018	.103	.125	.094	.193*	.076
상수		.523	3.209	.233	.128	-.338
R^2		0.321	0.1676	0.290	0.307	0.302
Adj R^2		0.320	0.1576	0.284	0.301	0.300
F		278.95***	16.69***	54.06***	56.49***	151.511***

제 4절 소결

소득, 자산, 소비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4-37>, <4-38> <4-39>와 같다.

<표 4-37>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 영향력	포화점
소득		정적 영향	존재 / 평균 대비 3.2~4.2배
자산	금융자산	정적 영향	존재 / 평균 대비 8.4~16.8배
	실물자산	정적 영향	존재 / 평균 대비 10.1~16.1배
	순자산	정적 영향	존재 / 평균대비 5.5~9.8배
소비지출		정적 영향	존재 / 평균 대비 3.3~3.7배

<표 4-37>는 각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포화점 탐색 결과이다. 소득, 소비지출, 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 등 다섯 가지 경제적 자원 변수 모두 자원이 증가할수록 행복 수준이 증가하여 행복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경제적 자원마다 포화점이 도출되었다. 가장 최근 연도인 2019년을 기준으로 경제적 자원의 포화점은 소득 약 1억4천만원(연소득), 금융자산 약 4억5천만원, 실물자산 약 30억원, 순자산 약 27억원, 소비지출 약 950만원(월지출)에 이른다. 각 경제적 자원의 평균값 대비 비율로 표기하면 소득 3.2~4.2배, 소비지출 3.3~3.7배, 금융자산 8.4~16.8배, 실물자산 10.1~16.1배, 순자산 5.5~9.8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각 경제적 자원에서 포화점이 도출되어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포화점으로 도출된 지점은 해당 경제적 자원의 상위 1~2% 내외의

매우 높은 수준이다.

<표 4-38> 연령대별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 영향력	포화점
소득		40대>50대>60대 이상>20-30대	50대>40대>60대 이상>20-30대
자산	금융자산	40대/50대/60대 이상>20-30대	연령대별 차이 없음
	실물자산	50대>40대/60대 이상>20-30대	40대/50대/60대 이상>20-30대
	순자산	50대/40대>40대/60대>20-30대	60대 이상>40대/50대>20-30대
소비지출		40대/50대/60대 이상>20-30대	50대>40대/60대 이상>20-30대

<표 4-38>은 연령대별로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것이다. 소득, 소비지출, 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 등 각 경제적 자원이 모든 연령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연령대별로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소득은 연령대별 차이가 가장 뚜렷하여 40대>50대>60대 이상>20-30대 순으로 영향력 차이가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20-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낮았다. 금융자산도 20-30대에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났다. 실물자산과 순자산은 50대에서 영향이 가장 높았고, 20-30대에서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20-30대가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포화점 도출 결과도 연령대별 차이가 있다. 소득은 50대>40대>60대 이상>20-30대 순으로 포화점이 도출되었다. 소비지출은 20-30대의 포화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포화점에 연령대별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실물자산은 20-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났다. 순자산은 60대가 가장 높고, 20-3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포화점 차이는 전체적 영향력과 대체로 유사한 순서로 나타난다. 예외적인 것은 금융자산으로, 전체적인 영향력은 20-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지만, 포화점에 있어서는 연령대별 차이를 판별하기 어려웠다. 이는 20-30대에게 금융자산이 전반적으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지만, 금융자산 증가에 따라 행복의 증가가 자산 수준이 높은 지점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39>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구분	경제적 자원의 상대적 영향
전체소비자	소득>금융자산>실물자산 소비지출>금융자산>실물자산 소득>순자산, 소비지출>순자산
20-30대	소득>금융자산 소득>순자산 소비지출, 실물자산 영향 유의하지 않음
40대	소득>금융자산 금융자산>소비지출 소득>순자산, 순자산>소비지출 실물자산 영향 유의하지 않음
50대	소득>금융자산/실물자산 금융자산>소비지출>실물자산 순자산>소득, 순자산>소비지출
60대 이상	소득/금융자산>실물자산 금융자산>소비지출>실물자산 소득≥순자산, 순자산>소비지출

<표 4-39>는 각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주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이다.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경제적 자원의 상대적 영향은 소득>금융자산>실물자산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신 소비지출을 투입할 경우 소비지출>금융자산>실물자산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 유량 개념의 소득과 소비지출이 저량 개념의 금융자산, 실물자산에 비해 행복에 주는 상대적 영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0-30대는 소득>금융자산 순으로 나타나고, 실물자산은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 대신 소비지출을 투입할 경우 금융자산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앞 절의 연령대별 각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 분석에서도 나타나듯, 20-30대는 현재의 욕구충족을 위한 소비지출보다 미래를 대비한 금융자산 축적이 행복에 더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대는 소득>금융자산 순으로 나타나고, 소득 대신 소비지출을 투입할 경우 금융자산>소비지출 순으로 나타났다. 실물자산은 유의하지 않았다.

50대는 소득>금융자산>실물자산 순으로 나타나고, 소득 대신 금융자산을 투입할 경우 금융자산>소비지출>실물자산 순으로 행복에 영향을 주었다. 60대 이상은 50대와 마찬가지로 소득>금융자산>실물자산 순으로 나타났고, 소비지출을 투입할 경우 금융자산>소비지출>실물자산 순으로 나타났다. 50대부터 실물자산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 이들 연령대부터 실물 자산 축적이 행복에 주는 영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돈을 경제적 자원으로 정의하고,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의 종류와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경제적 자원을 소득, 자산, 소비지출로 구분하고 각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소비자와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관계에 있어 전반적 영향력 뿐만 아니라 각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지점 즉 포화점이 존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소비지출, 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OLS 회귀분석, 독립변수의 2차항을 추가한 비선형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여 두 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 경제적 자원의 포화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chow 검정과 이원분산분석 등을 통해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OLS 회귀분석을 통해 각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 상대적 영향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 자산, 소비지출 등 각 경제적 자원은 행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각 경제적 자원마다 포화점이 존재해,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도출된 포화점은 각 경제적 자원의 상위 1% 이내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금액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원의 증가에 따라 행복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경제적 자원 가운데에는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소득은 행복 변수의 변화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 자원의 상대적 영향력 비교에 있어서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자원이었다. 소비지출은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보다 상대적 영향이 높았지만, 소득보다는 상대적 영향이 낮았다. 소득은 가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 경제적 자원으로, 욕구 충족의 결과인 소비지출을 가능하게 하고, 소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원이며, 소비자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자원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대에 따라 절대적 영향과 상대적 영향력 모두에 차이가 있었다. 절대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보면, 20-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 소비지출, 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 등 각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낮게 나타났으며, 포화점도 낮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소비지출에서 두드러져서, 20-30대의 소비지출 포화점은 절대값 기준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낮았으며, 해당 연령대의 평균 소비지출 대비 비율도 1.0~1.7배로 2배 이상을 넘어서는 다른 연령대와 대비되었다. 다만 금융자산의 경우 행복에 대한 절대적 영향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포화점은 다른 연령대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금융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완만하여도, 금융자산 증가에 따른 행복 증가세가 금융자산이 높은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소비지출이 금융자산보다 영향력이 높았지만,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금융자산의 영향이 소비지출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기간 선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는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소비 혹은 저축의 선택을 하게 된다. 이를 욕구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소비는 현재의 만족과 필수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는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저축과 이를 통해 축적된 금융자산은 주택 구매, 진학, 은퇴 자금 등 특정 목적이나 위험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적인 욕구 이상의 것을 충족시키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금융자산의 영향이 소비지출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행복에 있어 현재의 소비를 통한 욕구 충족도 중요하지만, 미래 및 특정 목적에 대비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중요하며 행복을 위한 경제적 자원의 역할이 이러한 욕구 충족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실물자산의 상대적 영향이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실물자산은 20-30대, 40대에는 상대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절대적 영향력에 있어서도 50대에서 실물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애주기의 관점으로 볼 때 50대, 60대가 되면 이미 은퇴가 이루어지거나 임박한 시점으로 근로소득이 줄고 대체 소득원을 찾게 된다. 자산의 경우 활발하게 자산 규모를 불려가는 자산증식기를 지나 일정 수준의 자산이 구축된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경우 특히 노후 대비로 부동산에 대한 선호가 강한 점을 고려할 때,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실물자산이 행복에 주는 영향이 높아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 2절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돈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포화점 도출을 시도해 본 결과 소득, 자산, 소비지출에 포화점이 존재한다. 즉 경제적 자원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도출된 포화점은 각 경제적 자원의 상위 1~2%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금액이다. 가장 최근인 2019년을 기준으로 경제적 자원의 포화점은 소득 1억4천만원(연간), 금융자산 4억5천만원, 실물자산 30억원, 순자산 27억원, 소비지출 952만원(월간)에 이른다. 이는 경제적 자원이 포화점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원의 증가에 따라 행복의 증가가 지속됨을 의미한다. 소득, 자산, 소비지출 수준이 매우 높은 일부 소비자를 제외하고는 자원의 증가가 행복을 증진시키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동일한 시점, 동일한 지역에서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원이 증가하면 행복의 증진이 지속된다는 Veenhoven(1991)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포화점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경제적 자원을 통해 충족시키고 싶은 물질적 욕구가 그만큼 높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분석 자료와 연구범위의 한계로 물질주의적 성향, 돈에 대한 태도와 같이 개인의 물질적 열망을 보여줄 수 있는 심리적 특성, 비교의 기준이 되는 준거집단의 소득 등과 같은 상대소득과 연관된 변수들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고려한다면 소비자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원의 포화점에 대해 보다 다양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가 도출한 두 번째 결론은 개인 차원의 돈과 행복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어, 소득 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경제적 자원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 절의 포화점 분석에 대한 결론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은 소비자가 대체로 더 행복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때 돈은 소득 뿐 아니라 자산, 소비지출도 포함된다. '버는 돈'(소득)도 많고 '쓰는 돈'(소비지출)도 많고 '모으는 돈'(자산)도 많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한정된 자원 안에서 세 가지 경제적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관리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동안 돈과 행복의 관계에서 주요 연구 대상이었던 소득은 행복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경제적 자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소득, 즉 '버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바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돈을 버는 목적은 소비지출을 통해 욕구를 충족하고 동시에 저축(자산의 축적)을 통해 미래의 목적에 대비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결론은 현재의 욕구 충족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비 또한 행복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경제적 자원을 통해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행복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Tatarkiewicz(1966)는 행복이 현재 상태 뿐 아니라 과거에 대한 성찰, 미래의 전망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그는 이 가운데 현재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돈과 행복의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의 욕구 충족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대비도 현재 못지 않게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소비자 금융보호국(2017)은 소비자들이 도달하기 바라는 재무적 웰빙의 한 요소로 삶을 즐길 숭 있는 재정적 자유(financial freedom)를 중요한 요소로 보았는데, 이 또한 현재의 소비지출 줄이고 축적하는 '모으는 돈'에 해당한다. 종합하면 행복을 위해서는 돈을 '버는 것' 뿐만 아니라, 자원 관리를 통해 자산을 잘 '모으는 것' 또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를 개발한 Cummins(2017)가 행복의 3대 요소(golden triangle of happiness)로 강력한 인간관계(strong personal relationship), 목적의식(sense of

purpose)과 함께 재정적 통제(financial control)를 꼽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권석만(2008)은 행복은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데 활용하느냐는 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자기조절(self-regulation)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행복에 있어서 자기 조절(self regulation)이 중요하다는 심리학에서의 지적은 돈과 행복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자원의 영향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는 연령대가 지니는 여러 특징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20-30대는 행복 수준은 높고,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낮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자원의 포화점이 낮게 나타났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보면 20-30대는 사회 초년생으로 향후 자신의 진로 개발에 따라 미래 기대 소득이 개선될 여지가 크고, 미래 기대소득을 근거로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한 부담도 다른 연령대보다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녀교육, 노후준비 등 현재 및 미래 대비를 위한 지출 욕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즉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욕구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가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과 이를 사용하는데 대한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세대별 특징에 초점을 맞춘 선행 연구들은 에코세대, MZ 세대 등 젊은 연령층들이 즉흥적 소비, 문화 소비 등 가격보다 자신의 선호를 중시한 소비 가치를 보이는 점에 주목하였다(임미리, 2013, 황금진, 2015 , 홍보라, 2018 등). 본 연구의 문제제기에서도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에 충실하자는 YOLO(you only live once)가 최근 트렌드로 부상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기에, 20-30대에는 다른 연령대보다 소비가 행복에 더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 20-30대는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지출

보다 미래에 대비하는 금융자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가구주로 한정하였기에 결혼, 출산, 양육 등 전통적인 가구 생애주기(family life cycle) 과정을 경험하는 소비자들이 분석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또한편으로 30, 40대가 '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주택 구매를 서두르는 최근의 현실과(연합뉴스, 2021), 30, 40대의 금융자산 축적 목적이 주로 주택 구매임을 감안하면(송혁준, 김영일, 2013), 과거에 비해 인생을 즐기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주택 보유는 전세대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이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30대는 경제적 자원을 포함하여 기존에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변수들이 행복을 설명하는 영향력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30대의 행복을 설명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낮기 때문에 행복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성취의 정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서, 행복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40대, 50대는 생애주기 상 자녀교육비 등 소비지출을 통해 충족시켜야 하는 요구가 가장 큰 세대라 할 수 있다. 가구원수가 늘고, 자녀들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구원들이 경제적 자원을 통해 충족시켜야 할 욕구 수준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출에 대한 욕구가 커지므로, 이를 충족시킬 자원에 대한 기대와 열망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애주기 상 소득이 정점에 이를 시기인 만큼, 20-30대에 비해 자신의 소득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연령대는 포화점이 높게 형성될 뿐 아니라 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가파른 직선 형태를 보인다. 즉 소비, 소득 수준이 낮을 때에는 다른 연령대보다 행복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경제적 자원이 증가하면서 행복

수준이 다른 연령대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50대는 개인의 생애주기 상 소득이 정점에 이를 시기이면서 동시에 은퇴가 임박하고, 개인에 따라 이미 은퇴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자산의 생애주기로 보면 활발하게 자산 규모를 불려가는 자산증식기를 지나 일정 수준의 자산이 구축된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50대부터는 실물자산이 절대적 영향과 상대적 영향이 높아지는 것이 40대와 차별되는 점이다.

60대 이상은 생애주기 상으로 보면 교육비 등 필수적인 지출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고, 가구원수가 줄면서 40대, 50대에 비해 필수적으로 충족시킬 욕구가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40대, 50대에 비해 낮고 포화점도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40대, 50대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소득, 소비지출, 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의 포화점도 높게 나타났다. 즉 60대 이상은 평균적인 행복 수준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지만, 경제적 자원의 증가에 따른 행복 수준의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들이 이전에 형성된 생활 기준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Kyrk, 1953). Constantinides(1990)은 과거의 소비 행태가 일종의 습관처럼 형성되어 그 이상의 소비를 할 경우에만 효용이 발생한다는 내적습관형성(iinternal habit formation)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 박천규 외(2008)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소비자들은 가구원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거주하는 넓은 주택 소유를 계속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60대 이상은 욕구가 줄어드는 소극적인 고령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적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최근 학계와 언론은 과거와 다른 고령층의 특성에 주목한다. '실버

부머(silver boomer), 뉴시니어(new silver), 어번 그래니(urban granny), 엑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욜드(YOLD: young old)' 등의 신조어들이 새롭게 등장하며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과거와는 다른 소비 패턴과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한다(김선하, 2016, 이코노미스트, 2019). 이들은 과거 직장에서 퇴직한 뒤 연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생활하거나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소일거리를 하며 소극적인 여생을 보냈던 노년층과 다르게 경제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다양한 취미와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誌(2019)가 '2020년 세계경제 대전망'에서 주목한 욜드(YOLD: young old, 젊은 노인)는 경제력을 갖춘 65세~75세 사이 세대를 통칭하는 용어로, 연령으로는 노인이나, 체력과 정신 등 모든 면에서는 여전히 젊어서 노인으로 취급받기 힘들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2020)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욜드 세대는 본인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건강뿐 아니라 매력적인 외모를 가꾸기 위한 수단으로 운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등 자기 개발을 위한 적극적이다. 즉 이들 연령대는 자녀교육기가 끝나고 필수적인 지출 욕구가 줄어들지 모르나 경제적 자원에 허락한다면 자아성취, 자기개발에 자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경제적 자원이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들 연령대의 행복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제 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돈과 행복에 관한 연구가 소득에 국한돼 있었다면, 본 연구는 소득 뿐 아니라 자산, 소비지출 등 다양한 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경제적 자원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히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그치지 않고, 행복하기 위하여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바란다. 또한 연령대별로 돈이 행복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존의 이론들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과 더불어 해석하고자 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돈이 행복에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행복이 모든 소비자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임을 고려할 때, 연령대별 재무 관리 및 교육에 대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소비자들에게 '부자는 행복한가'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모색함으로써, 부자에 대한 막연한 동경, 물질주의적 가치에 대한 과도한 추구보다 가용한 자원 하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복을 위해서는 현재 욕구의 충족 뿐 아니라 미래 대비를 또한 중요하는 사실은, 돈에 있어서 적절한 자기 통제와 관리, 이를 통한 자산의 축적이 행복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려주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연령대별로 소비자들을 이해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소득의 불균형을 줄이고,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등 빈곤을 막는 다

양한 정책적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행복에 있어 자산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특히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자산의 빈곤이 행복 수준이 낮은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노력들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분석자료로 2차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돈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행복을 설명하는 변수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지적 요인인 '행복사다리'를 선택하기는 하였지만, 감정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 등 행복의 다른 요인들에 경제적 자원이 주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한 것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경제적 자원의 포화점 모색을 위하여 여러 분석 기법을 시도하고 최대한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였음에도, 일부 경제적 자원의 경우 연도별 결과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연도별 추이를 파악하기에는 분석 연도가 짧은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양한 관점에서 본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주는 영향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양한 소비 양식이나 항목별 지출 등 경제적 자원의 세부적인 구성이 행복에 주는 영향, 소득 대비 소비 비율, 유동성 비율 등 소비자 재무관리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재무비율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후속 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또한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연령대별 차이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으나, 실물자산 등은 지역별 편차가 큰 경제적 자원인 만큼, 지역별 비교가 포함되지 못한 것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연령대별로도 소비자 특성이 상이한 만큼, 이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경우 더욱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령대 이외에도 돈에 대한 태도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나 재무관리 행동 등 자원관리와 관련

다양한 소비자 특성에 따른 돈과 행복의 관계 등도 후속 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둔다. 이러한 연구들이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돈이 행복에 의미하는 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고 소비자들에게 돈이 행복에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강성진(2010),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8(1), 5-36.

강성호, 임병인(2009), 노후소득의 불평등 및 양극화와 공적연금의 개선 효과, *사회보장연구*, 25(2), 55-85

강시온(2018), 청년 가구주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연구: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강은택·홍석동·마강래(2015), 지역의 소득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 관계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3권 제2호, 117-130.

강이주 · 김영신 · 허경옥(2006), *알기 쉬운 가계경제학*. 신정.

곽민주·이희숙(2014), 경제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5(2), 93-119.

권석만(2010),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욕망과 행복의 관계, *철학사상,* 제36권, 121-152.

권두영(2016),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의 보상소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구교준·임재영·최슬기(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제21권 제2호, 95-130.

김경자·박명숙·정운영(2002), 가계 재무상태와 재무관리 행동 성과에 따른 재무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1-28.

김기옥·김민정(2008), 소비욕구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소비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김동배·박은영, 김성웅(2009), 고령자의 자산유형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제활동의 조절효과 검증, *사회복지정책*, 36(3), 471-494.

김미곤 · 여유진 · 정해식 · 박이택 · 김성아(2017),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김미애(2016), *행복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민정(1995), 객관적 가계경제복지와 주관적 가계경제복지의 상호관계, 개방화시대의 소비자문제와 정책, 한국소비자학회, 19-39.
김민정(2007), *소비욕구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민철 외(2016),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김선정・김태용(2012), SNS 콘텐츠의 감성이 사용자의 감정상태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9(1), 5-47.
김성아・김미곤(2016), 한국인의 행복과 경제 수준, 그리고 열망의 반작용,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9권 0호, pp.263-284 .
김성아·정해식(2019),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95-104.
김승권·장영식·조흥식·차명숙(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시월·조향숙(2014), 단독가구의 부채 유형이 가계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7(1), 157-178.
김시월·조향숙(2015), 중·고령 1인가구의 소비패턴과 삶의 만족도, *Financial Planning Review, 6(4), 71-97.*
김영신(2001), 대학생소비자의 화폐에 대한 태도에 따른 강박적 구매행동, *소비문화연구*, 4(3), 41-57.
김영신·서정희·송인숙·이은희·제미경(2004), *새로 쓰는 소비자와 시장환경*. 서울: 시그마프레스.
김우성·허은정(2007),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소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10(4), 31-53.
김정우(2016) 노인의 근로참여 및 직업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 비교,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충선(2015),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용·이정은·이지연(2016), 한·미 목표만기펀드에 대한 비교사례 연구, 금융공학산학연구, 2, 43-72.

김하나·최혜경(2010), 베이비붐 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가치 및 행동,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46-158.
나운봉·손영석(2006), 브랜드와 비 브랜드의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할인 역치수준과 포화점 연구, *마케팅관리연구,* 제 11권 1호, 63-75.
노법래(2017),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궤적 유형화와 성향점수 가중 교차지연 패널 모형을 활용한 기부가 주관적 삶이 만족 그리고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10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류지아(2016), *행복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효과: '포화점'의 존재 및 사회비교효과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진영(2012) 이스털린 역설에 대한 연구: 만족점의 존재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 64, No. 1, 53-77.
박상현·김태일(2014), 금융위기 전·후 가계의 금융부채 및 소비 행태 분석: 소득 계층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0(2), 165-190.
박서영(2016), *베이비부머의 소비패턴과 우울에 관한 연구 : 은퇴집단과 비은퇴집단 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종선·황덕순(2015),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행복하세요? 상대적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제18권 제3호, 1-23.
박종현(2016), 행복경제학과 '좋은 삶' 전통: 쾌락과 가치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국경제학보.* 제23권 제1호, 79-102.
박천규·이수욱·손경환(2009), 가구생애주기를 감안한 주택수요특성 분석 연구, *국토연구*, 171-187.
서봉균(20101), 상대적 박탈과 소비구조가 경제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은국·구재선(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25(1), 96-114.
서원석(2018), *가구생애주기 및 점유형태별 주택수요와 주거면적의 차이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인주·정지영·한연순(2012), 생활주기(life cycle)에 따른 소비성향 및 주거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85-101.
성영신·이진용·유창조·박은아·신은희·백인기(2013), 소비활동이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까? 소비유형별 소비활동, 소비행복, 삶의 행복의 관계

에 관한 연구, *마케팅연구,* 28(6), 185-217.
송현주(2011), 중고령자 빈둥우리 가계의 부채규모의 영향요인과 소득·자산 집단별 재무상태분석,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준혁·김영일(2013), 주택시장과 생애주기별 가구의 소비 및 자산 결정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19(2), 230-278.
신효연(2013), 도시가계의 재무상태, 재무의사소통 및 재무스트레스가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29-50.
양세정·주소현·차경욱·김민정, 한국형 가계재무비율 도출 및 가이드라인 제안, *Financial Planning Review,* 6(3), 143-181.
오영수·류건식·임병인·김재현(2005), 고령화 리스크의 진전과 노후보장체계의 재구축, *한국금융학*, 19, 129-207.
원도연(2020), *사회활동참여를 매개로 한 노인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유경원(2010), 교육비 부담이 가계 저축 및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21권 4호, 135-160 .
유을용, 계선자 (2003),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p. 155-173.
윤강재·김계연(2010),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보건복지포럼.* 제 159호. 86-98.
윤상용·김태완(2012). 장애인과 저축: 저축 결정 요인과 고용상태 및 생활만족도 효과, *장애와 고용*, 22(3), 101-124.
이기춘 외 (1995). *소비자학의 이해.* 학현사.
이민아·송리라(2014), 소득, 물질주의와 행복의 관계, *한국인구학*, 37(4), 89-114.
이보영(2017), 자산이 기혼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세미·이지연(2016), 청년의 부채부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9.
이소라・홍기석(2012), 주관적 만족도를 이용한 습관형성 이론과 상대소

득 가설의 검정, *사회과학연구*, 38(3), 1-27.
이정아·백승호·신우진·송민정(2019), 2019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와 임금정책 연구, *연구총서*, 1-296.
이종아·한창근(2015), 저축이 청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2(4), 75-100.
이준구(2008), *미시경제학*, 법문사.
이창선(2012),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고령층일수록 부동산 변동 리스크에 노출, LGERI리포트
이창희(2018), *가계자산 축적의 동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 비교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현송(2000),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3(1), 91-117
임기현(2013),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미화, 정의철(2012), 주택자산이 가구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선택에 미치는 영향, *국토연구*, 제 73권, 99-114.
임미화(2017), 자산소득이 은퇴가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학연구*, 23(1), 5-17.
임보영・마강래(2015), 지역 내 준거집단과 비교한 경제적 격차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국토계획*, 50(3), 213-224.
임완주(2016),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 의존비율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소비를 매개하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지영(2015), 연령코호트 종단분석을 통한 주택소유 및 공간분포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장항채(2017), *고령자 삶의 만족도의 다차원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항채(2018), 자산유형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3(4), 21-43.
전미영・김난도(2011), 재화소비와 경험소비에서 나타나는 소비자행복 수준 비교,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2), 55-75
정보람(2017), *소득과 문화소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세은(2016), 상대적 임금과 효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정순둘・주소현・고은희・박원주(2008), 우리나라 세대별 재무만족도와 영향요인: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1권 1호, 92-120.
정순둘·성민현(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32(4), 249-272.
정해식・김성아(2018), 한국인의 행복: 지역 내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영향 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조명한·차경호(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48집.
조승헌(2006), 행복・소득・신뢰의 관계: 국제적 경향과 한국의 특수성에 대한 실증 분석, *학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6.6: 177-179.
조윤주(2002),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 갈등 및 부양 의무감과 부양의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향숙·김시월(2014), 단독가구의 부채 유형이 가계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7(1), 157-178.
주인숙, 이연숙(1996), “도시가계의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 - 체계론적 접근법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5-125.
채은석·성영애(2000),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 지표 및 기준실정을 위한 주관적 부채부담 관련요인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2.
천민기(2018), *일상소비와 비일상소비에서 나타나는 소비행복에 관한 연구 : 물질소비와 경험소비의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은영(2016), 가계부채와 가계소비간의 상관관계 분석, *인문사회*, 7(1), 673-688.
최재경(2017), 돈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투자행동에의 적용,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22.
최현자·김정현·김민정(2008), 가계의 저축의사결정, *소비자학연구* 제 19

권 4호, 211-237.
최현자(2010),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 연구에 관한 종합적 고찰: 2000-2009년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41-64.
최홍철(2014),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와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홍철(2019), *한국 가계 소비양식 변화의 시기구분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정애(2013), *베이비부머세대 부모와 에코부머세대 자녀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비교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보라(2018),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키워드로 알아본 패션 테라피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5-116.
홍석동(2016), *소득이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지역적 차별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금진(2015),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가계자산구조 및 재무건전성 비교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명진·심수진(2008),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 *조사연구*, 9(3), 93-117.

해외문헌

Alderfer(1969), An empirical test of a new theory of human need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Vol 4 (2), 142-175.

Alesina A., Di Tella, R. & MacCulloch, R. (2004). Inequality and Happiness: Are European and Americans Differ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9-10), pp.209-2042.

Ando, A. & Modigliani, F.,(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1963, 55-84.

ANZ(2018), Financial Wellbeing: A survey of adults in Australia.

Argyle, Michael(2001), *The Psychology of Happiness,* .New York.Routledge

Blanchflower, D., & Oswald, A.(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8, No. 7-8, 1359-1386.

Blanchflower, D. G., & Oswald. A. J.(2008), Is well-being U-shaped over the life cycl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6(8): 1733.

Brickman, P., & Campbell, D. T. (1971). Hedonic relativism and planning the good society. In M. H. Appley (Ed.), Adaptation level theory: A symposium (pp. 287 - 302). New York: Academic Press.

Brobeck, S.(2008). Understanding the emergency savings needs of low-and moderate-income households: A survey-based analysis of impacts, causes, and remedies,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November.

Brown, S., Gray, D., Roberts, J. (2015). The relative income hypothesis: A comparison of methods, *Economics Letters*, 130.

Bjornskov, C., Dreher, A., & Fischer, J. A. (2008). Cross-country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Exploring different determinants across groups in society, *Social Choice and Welfare,* 30(1):

119-173.

Campbell, A., Converse, P.E. & Rogers, W.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 Bureau)(2015), *Financial well-being: The goal of financial education*.

Clark, A., & Oswald, A. (1996). Satisfaction and comparison inc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1, 359 - 81.

Clark, A. (2003), Inequality-aversion and income mobility: a direct test, *DELTA Working Paper* No. 2003-11.

Clark, A., Frijters, P, & Shields. M.A.(2008),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1), 95-144..

Clark, A. and C. Senik (2011), Is happiness different from flourishing? Cross-country evidence from the ESS, Working Paper 2011-04, Paris, School of Economics.

Constantinides, G.(1990), Habit Formation: A Resolution of the Equity Premium Puzzl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No. 3, pp.519-543.

Csikszentmihalyi, M. & Hunter, J. P.(2003), Happiness in Everyday Life: The Uses of Experience Sampl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4(2):185-199.

Cummins(2017), The Golden Triangle of Happiness: Essential Resources for a Happy Family,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Youth & Family Studies*, Vol. 9 No.4.

Danziger, Haveman, & Plotnick (1981). "How income transfer programs affect work, savings, and the income distribution: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Davis, EP, & Helmick, SA (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4(1), 124-131.

Deci E. & Ryan. R.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Dew, J. (2008). Debt change and marital satisfaction change in recently married couples. *Family Relations*, 57(1), 60-71.

Dew, J. & Dakin, J. (2011). Financial disagreements and marital conflict tactics, *Journal of Financial Therapy*, 2(1).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Diener, E., Emmons, R., Larsen, R.,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Diener, E., Sandvik, E., Seidlitz,L. & Diener, M.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

Diener, E., Smith, H., & Fujita, F. (1995), The personality structure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9(1), Jul 1995, 130-141.

Diener, E. & Oishi, S. (2000), Money and Happiness in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Diener and Suh, ed.). A Bradford Book.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estts. London. England. pp.185-218.

Diener, E., & Seligman, E. P.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3), 81－84.

Diener, E., Wirtz, D., Tov, W., Kim-Prieto, C., Choi.D., Oishi, S., & Biswas-Diener, R. (2009). New measures of well-being: Flourishing and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9, 247-266.

Diener, E, Suh, EunKook, Kim-Prieto, Chu, Biswas-Diener, R., Tay, LS (2010), Unhappiness in South-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Paper presented at the Special

Symposium organized b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ugust 19.

Diener, E., J. F. Helliwell and D. Kahneman (2010),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ell-Being,* Oxford University Press.

Di Tella, R & MacCulloch, R. (2006). Some Uses of Happiness Data in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1 (1), 25-46.

Dolan, P., Peasegood, T., & White, M. (2008).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9, p94-122.

Draughn, P. S., LeBoeuf, R. C., Wozniak, P. S., Lawrence, F. C., & Welch, L. R. (1994), Divorcee's economic well-being and financial adequacy as related to interfamily grant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2, 23 - 35.

Duesenberry, J. S. (1949).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Dunn, E. W., Aknin, L., & Norton, M. I. (2008). Spending money on others promotes happiness. *Science, 319*, 1687-1688.

Dunn, E. W., Gilbert, D.T., Wilson, T.D.,(2011). If money doesn't make you happy, then you probably aren't spending it righ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1, p.115-125.

Durvasula, S., & Lysonski, S.,(2010). Money, money, money-how do attitudes toward money impact vanity and materialism? -The case of young Chinese consumer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7(2) 169-179.

Easterlin, R. A.(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d.) P. A. David and M. W. Reder. (New York, Academic Press), 89-125.

Easterlin, R. A.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7, 35-47

Easterlin. R. A. (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The economic journal*, 111, 465-484.

Easterlin. R. A. (2004), Explaining Happiness, *Proceeding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0, 1176-1183.

Easterlin. R. A. & Angelescu, L.(2007), Modern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Cross Sectional and Time Series Evidence, IZA Discussion Paper 2755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Bonn.

Easterlin. R. A., McVey,L.A.,Switek,M.,Sawangfa,O., & Zweig,J.S. (2011), The happiness - income paradox revisited,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52), 22463-22468.

Easterlin. R. A. (2013), Happiness, growth, and public policy, *Economic Inquiry* 51(1), 1-15.

Ferrer-i-Carbonell, A.(2005), Income and Well-being: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omparison Income Effec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9, No. 5-6, .997-1019.

Fowler, E.S.(1972). Factors Related to the Economic Well-being of Family. Ph. D.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Frank, Robert (1985), *Choosing the Right Pond: Human Behavior and the Quest for Statu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rank, Robert (1997), The Frame of Reference as a Public Good, *Economic Journal*, 107 (445), 1832-1847.

Frey. B. R. (2008), *Happiness: A revolution in economics* [행복, 경제학의 혁명] 유정식·홍훈·박종현 역, 서울 부키(2015).

Frey. B. R. & Stutzer, A. (2002), 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2(2), 402-435.

Furnham, A. & Cheng H. (2000), Perceived parental behaviour, self-esteem and happines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 35, pp 463 - 470.

Gasiorowska, A.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Wealth is Moderated by Financial Control and Mediated by Money Anxiet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43, 64-74.

Gareth, J. Witten. D, Hastie, T. & Tibshirani, R.(2013), *An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 Springer.

Goodman, Paul S.(1974), An examination of referents used in the evaluation of pa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2(2), 170-195.

Greenley, J. R., Greenberg, J. S., & Brown, R.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A new and practical survey instrument. *Social Work,* 42, 244 - 254.

Guven, C.(2012). Reversing the question: Does happiness affect consumption and savings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3(4), 701-717.

Hafstrom, L. H., & Dunsing, M.M. (1973), Level of Living: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Vol.2 (2) 119-132.

Hagerty, M. R. (2000), Social comparisons of income in one's community: Evidence from national surveys of income and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4): 764-771.

Hagerty, M.R., & Veenhoven.R.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 1-27.

Hallowell, E.M. & Grace, W.J. (1991). Money and mind; Money style. New York: Plenum Press.

Hamner, W. C. & Harnett, D. L.(1974), Goal setting,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in an interdependent task,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2, 217-230.

Han, C. K. & Hong, S. I. (2011), Assets and life satisfaction pattern among korean older adults: latent class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0, 225-240.

Han, C. K. & Kim, S. J. (2014). Assets and a wife's marital satisfaction in korea.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24(4), 251-264.

Harrell, F. E., Jr. (2001), Regression Modeling Strategies: With Applications to Linear Models, Logistic Regression, and Survival Analysis. New York: Springer.

Haveman, R., & Wolff, E. N. (2005). Who are the asset poor?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1983-1998, *Inclusion in the American dream: Assets, poverty, and public policy*, 61-86.

Hayes, D., J. & Finney, A.(2016), *Momentum UK Household Financial Wellness Index: Wave one.* Personal Finance Research Centre (PFRC), University of Bristol for Momentum UK.

Hayo, B. & Seifert. W.(2003), 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in Eastern Europ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4: 329 - 348.

Helliwell, .J.F.(2003), How's life? Combining individual and national variables to explain subjective well-being, *Economic modelling,* Vol 20(2), 331-360.

Hills, Frederick S.(1980), The relevant other in pay comparisons, *Industrial Relations*, 19(3), 345-351.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Jebb, A.T., Diener, Ed. & Oishi, S. (2018), Happiness, income satiation and turning points around the world, *Nature Human Behaviour,* Vol. 2, pages33 - 38.

Joo, S. & Grable, E.(2004). An Exploratory Framework of the Determinants of Financi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 25(1)

Kahneman, D., Krueger, A.B., Schkade, D.A., Schwarz(2004),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Vol. 306, Issue 5702, 1776-1780.

Kahneman, D. and A. Krueger (2006), Development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No. 20, pp. 3-24.

Kahneman, D. & Deaton, A. (2010),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NAS)* 107(38), 16489-16493.

Kenny, Charles (1999), Does growth cause happiness, or does happiness cause growth, *Kyklos* 52(1), 3-25.

Keyer, C., Shmotkin, D., & Ryff, C. (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007-1022.

Kempson, E., C. Pope, and A. Finney(2017), *Financial Well-Being A Conceptual Model and Preliminary Analysis*, Consumer Research Norway (SIFO) & Akershus University College of Applied Sciences: Oslo.

Knight, J, Song, L., & Gunatilaka.R.(2009), Subjective well-being and its determinants in rural china, *China Economic Review,* 20(4), 635-649.

Krueger, A. and D. Schkade (2008), The reliability of subjective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No. 92, pp. 1833-1845.

Kumar, A., Killingsworth, M. A., & Gilovich, T.(2014). Waiting for merlot: anticipatory consumption of experiential and material purchases, *Psychological Science*, 25(10), 1924 - 1931.

Kyrk, H. (1953). The family in the American econom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yard, Richard (2003), Happiness: Has Social Science a Clue, Lionel Robbins Memorial Lectures 2002/3, London School of Economics,

March 3 - 5. cep.lse.ac.uk/events/lectures/layard/RL030303.pdf.
Lindgren, H.(1980). The Psychology of Money., *Odessa,* FL: Krieger.
Luttmer, E.(2005), Neighbors as Negatives: Relative Earnings and Well-be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0, No. 3, 963-1002.
Maslow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pp. 370-396.
McBride, M.(2001), Relative-income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ross-sec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Vol. 45, No. 3, 251-278.
McClelland, D. C. (1967), Money as a motivator: Some research insights, *The McKinsey Quarterly*, p. 10.
McClelland(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N. J. : Van Nostrand.
McGregor, S.L.T. & Goldsmith, E.B.(1998, Expanding our Understanding of Quality of Life, Standard of Living, and Well-being.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90(2), 2-6, 22.
McKernan, S. M., & Sherraden, M. W. (2008), *Asset building and low-income families*, The Urban Insitute.
Merton, R. K., & Rossi. A. (1957), Contributions to the theory of reference group behavior, in Merton R. K.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Morgan, J. N. (1992). Health, work, economic status, and happiness. In N. E. Cutler, D. W. Gregg, & M. P. Lawton (Eds.), Aging, money, and life satisfaction: Aspects of financial gerontology (pp. 101 - 33).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Muir, K., Hamilton, M., Noon, J.H., Marjolin, A, Salignac, F., & Saunders, P. (2017), *Exploring Financial Wellbeing in the Australian Context*, Center for Social Impact & Social Policy Reserach Center,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Murphy, E. P., & Staples, A. W.(1979), A Modernized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1), 12-22.

Murray(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Harvard psychological clinic

Myers, D.G. (2000), The Funds, Friends and Faith of happy people, *American Psychologist* 55(1), 56-67.

Ng. W. & Diener, E. (2014). What Matters to the Rich and the Poor? Subjective Well-Being, Financial Satisfaction, and Postmaterialist Needs Across the Worl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7(2), 326 - 38.

Osberg, L. & Sharpe, A.(2001), Trends in Economic Well-Being in Canada in the 1990s. in Banting, Keith, G. (Eds),. *The Review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The longest Decade, Canada in the 1990s*. Institut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 Canadian electronic library.

Oshio, Takashi, Nozaki, Kayo & Kobayashi, Miki (2011), Relative income and happiness in asia: Evidence from nationwide surveys in china, japan, and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4(3): 351-367.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an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Ryff, C. D., & Singer, B. (2000). Interpersonal Flourishing: A positive Health Agenda for the New Milleniu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 30-44.

Russell, R., Kutin, J., Stewart, M., & Rankin, G. (2017) Money Minded Impact Report 2017. http://www.financialliteracy.gov.au/media/560892/mm-impact-2017.pdf

Schor, Juliet (1998), *The Overspent American: Why we want what we don't need,* Basic Books.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Sen, A. (1999). Development af Freedom, New York: Knop.

Senik, C (2004), When information dominates comparison: Learning from Russian subjective panel dat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9), 2099-2123.

Shefrin & Thaler(1988), The Behavioral Life-Cycle Hypothesis, *Economic Inquiry,* 26(4), 609-43

Sherraden, M. (1991), *Asset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M. E. Sharpe.

Shim, S., Serido, J. and Tang, C. (2012). The ant and the grasshopper revisited: The present psychological benefits of saving and future oriented financial behavior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3: 155-165.

Spilerman, S. (2000), Wealth and satisfaction process, *Annual Review of Sociology*, annualreviews. org.

Stevenson, B. & Wolfers. J.(2008), Economic Growth and Subjective Well-Being: Reassessing the Easterlin Paradox,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Issue: 1 (2008-03-01) p. 1-87.

Stiglitz, J. E., Sen, A., & Fitoussi, J.P.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http://www.stiglitzsen-fitoussi.fr/en/index.htm.

Tatarkiewicz, W.(1966), Happiness and Time, *Philosophical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27:1-10.

Tversky, A., & Kahneman, D.(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a*, 47(3), 263-291.

Van Boven, L., & Gilovich, T. (2003). To do or to have? Tha tis the question",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85(6),1193 - 1202.

Veblen, T. B.(1899). *The Theory o f the Leisure Class: An Economic Study of Institutions*, New York: MacMillan.

Veenhoven, R.(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

Veenhoven, R.(1994), Is happiness a trait?, Social indicators research, 32, 101-160.

Veenhoven, R.(1996). Developments in satisfaction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37(1), 1-46.

Veenhoven, R.(2005),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in Na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6(4), 421 - 455.

Veenhoven, R. & Hagerty, M. (2006), Rising happiness in nations 1946 - 2004: A reply to Easterli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9, 421-436.

Veenhoven, R. & Vergunst, F. (2014), The Easterlin illusion: economic growth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Happiness and Development, 2.*

Verme, Paol (2011), Life satisfaction and income inequal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7(1): 111-137.

Waterman, A. S. (1993). Two Conceptions of Happiness: Contrasts of Personal Expressiveness(eudaimonia) and Hedonic Enjoy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78-691.

Watson, D., Clark, L.,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Williams, F. (1985). Family and personal resource management a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Thinking Globally, Acting Locally, Washington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Xiao, J. J., Tang, C., & Shim, S.(2009). Acting for happiness: financial behaviour and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2(1), 53-68.

Yadama, G. N. & Sherraden, M (1996). Effects of assets on attitudes and behaviors: Advance test of a social policy proposal. *Social Work Research.*

Zimmerman, S. L.(1995). Understanding family policy, *Theories and Applications*, 2nd ed., Sage, Newbury Park, CA.

기타자료

연합논스(2021.4.7.) 2030 매수 폭증 사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영끌이 옳았다"

파이낸셜뉴스(2018.1.2.) 새해 소망 2위는 건강…1위는 돈

토마토뉴스(2021.1.5.) 직장인 새해 소원 1위는 이직: 연봉 인상·재테크·건강 뒤이어

통계청(2016, 2020) 국민이전계정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17.12.) 2017 가계 금융・복지 조사 결과

통계청(2012.08.0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회적 특성 분석: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중심으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2) 에코 세대의 라이프 금융플랜 분석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2018) Economic Survey: Korea

Abstract

A Study on Money and Happiness: How Income, Assets, and Consumption Expenditure Affect Consumers' Happiness

Lee Hyun Jin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the behavioral life cycle hypothesis of Shefrin & Thaler (1988), consumer utilities can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financial resources and consumer preferences. This study defines money as financial resources, and assumes that financial resources affect happines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resources and consumers' preferences. On this assumption, the research classifies the financial resources into income, assets(financial assets, real assets, net assets), and consumption expenditure, and examine the effect of each financial resource on happiness by overall consumers and by age groups. In addition, the research detects a

satiation point of happiness, where each financial resource no longer has significant positive impacts on happiness. To this end, the research conducted OLS regression, nonlinear regression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from 2017 to 2019. The chow test and two-way ANOVA were conducted as wel, to examine the difference by age group.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appiness ha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each financial resource; income, financial assets, real assets, net assets, and consumption expenditure. Satiation points were detected for each economic resource; As of 2019 data, the satiation point was c.a. KRW 140 million in income(annual term), KRW 450 million in financial assets, KRW 3 billion in real assets, KRW 2.7 billion in net assets and KRW 9.5million in consumption expenditure(monthly term). When expressed as a ratio of the derived saturation point to the annual average, it corresponds to income 3.2 to 4.2 times, consumption expenditure 3.3 to 3.7 times, financial assets 8.4 to 16.8 times, real assets 10.1 to 16.1 times, and net assets 5.5 to 9.8 times. Converting to a ratio to the mean of the corresponding year, income was 3.2 to 4.2 times, consumption expenditure 3.3 to 3.7 times, financial assets 8.4 to 16.8 times, real assets 10.1 to 16.1 times, and net assets 5.5 to 9.8 time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economic resources on happiness by age group. Income differed in influence in the order of those aged 40s > 50s > 60s or more > 20s and 30s. Financial assets had a lower effect on happiness in those in their 20s and 30s than in other age groups. Real assets and net assets had the highest impact in those in their 50s, and the lowest in those in their 20s and 30s. Consumer spending had a lower effect on happiness in their 20s and

30s than other age groups. Overall, the effects of economic resources on happiness in their 20s and 30s were lower than in other age groups.

Comparing the relative influence of each financial resource. it was found that income > financial assets > real assets for all consumers. When consumption expenditure is input instead of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 > financial assets > real assets are shown in the order. That means flow-type financial resources such as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have a higher relative effect on happiness compared to stock-type resources such as financial assets and real assets.

The relative influence of financial resources on happiness differed by age group. Those in their 20s and 30s appeared in the order of income > financial assets. Real assets were not significant. When consumption expenditure instead of income was invested, only financial asset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ir 40s, income>financial assets were shown in the order, and if consumption expenditure was input instead of income, financial assets>consumption expenditure appeared in the order. Real assets were not significant.

People in their 50s appeared in the order of income > financial assets > real assets, and when consumption expenditures were put in instead of income, they had an effect on happiness in the order of financial assets > consumption expenditures > real assets. For those in their 60s or older, income > financial assets > real assets, as in those in their 50s, financial assets > consumption expenditure > real assets when consumption expenditure is input. The effect of real assets was significant from the 50s, indicating that the effect of real asset accumulation on happiness is increasing from these age groups.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drawn fro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atiation point of happiness with respect to income, financial assets, net assets of real assets, and consumption expenditure. However, the saturation point is a very high level corresponding to the top 1-2% of each economic resource. Therefore, the increase in resources has the effect of enhancing happiness, except for some consumers with very high levels of economic resources.

Second, speaking of money and happiness at the individual consumer leve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inancial resources from various perspectives as well as income. Income is the most influential and important financial resource for happiness, but it is hard to conclude that you are happy if you have a lot of 'money'. The conclusion drawn from this study is that not only satisfying current needs but also preparing for the future are important factors in happiness, and satisfying these needs through financial resource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happiness.

Third, the influence of economic resources on happiness differs by age group, and it seems various characteristics that each age group has influence the results. Overall, those in their 20s and 30s showed a high level of happiness, a low effect of financial resources on happiness, and a low satiation point of economic resources for happiness. This might result from the reason that the 20s and 30s have relatively few needs to spend in their life cycle, but the available financial resources and the burden of using them are small.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financial assets prepared for the future had a stronger effect on happiness than consumption expenditures in this age group. It is different from previous research results that show that the materialism and consumption tendencies of younger

age groups such as the MZ generation and the eco- generation are strong. This may be partly because the analysis target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household heads, but it also indicates that housing ownership is still an important issue for all generations of Korean consumers.

In their 40s and 50s, economic resources have a high impact on happiness. life cycle phase. In these age groups, needs to be satisfied rise to peak such as education fees retirement funding. People in their 50s differ from those in their 40s in that the absolute and relative influence of real assets increases. This may be because retirement is imminent in 50s in their life cycle, and it is a time when the life cycle of assets enters a stable period.

It can be predicted that those in their 60s or older will have less demand for essential expenditures, and the impact of financial resources on happiness will be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ose in their 40s and 50s. However, the effect of financial resources on happines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in their 40s and 50s, and the satiation points of financial resources on happiness were also high. This may result from consumers' habit of maintaining previously established standards of living. In addition, it may res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 new generation that actively pursues self-realization, rather than the passive elderly people in their 60s or older.

keywords : happiness,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 assets, satiation point, behavioral life cycle theory
Student Number : 2010-31118